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濟州島 無文土器文化의 流入과 展開

嶺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類學科

考古學專攻

朴 京 敏

指導教授 李 淸 圭

2012年 12月

碩士學位論文

濟州島 無文土器文化의 流入과 展開

指導教授 李 淸 圭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12月

嶺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類學科 考古學專攻

朴 京 敏

朴 京 敏의 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2012年 12月

嶺南大學校 大學院

目 次

I. 서론

- 1. 연구목적 1
- 2. 선행연구검토 2
-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7

II. 유물 및 주거지의 분류와 시간성

- 1. 토기의 검토 9
- 2. 주거지의 검토 40

III. 제주도의 유적 검토와 편년

- 1. 개별유적의 검토 46
- 2. 유적간 공반양상의 비교 53
- 3.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편년 56

IV.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유입과정 검토

- 1. 남부지방의 무문토기문화 검토 65
- 2. 각 문화요소의 연관성검토 76

V. 결론 88

<參考文獻> 90

<Abstract> 95

圖 面 目 次

도면 1. 제주도 출토 호형 및 외반구연토기	10
도면 2. 발형토기의 기고와 구경의 크기	12
도면 3. 천발형토기	12
도면 4. 심발형토기 형식분류	13
도면 5. 구연부 형태	13
도면 6. 복합문이 시문된 심발형 토기	14
도면 7. 이중구연토기의 이중구연폭 분포현황(상모리유적)	17
도면 8. 제주도 공렬문토기의 투공방향과 관통여부 분포현황	19
도면 9. 공렬문토기의 투공방향과 관통여부 분포현황(상모리유적)	19
도면 10. 공렬문토기의 투공방향과 관통여부 분포현황(삼화지구유적)	19
도면 11. 문양요소의 분류	23
도면 12. 상모리유적의 문양별 토기출토현황(발형)	24
도면 13. 상모리유적의 문양별 토기출토현황(호형)	24
도면 14. A지구 층위별 현황도(발형)	26
도면 15. A지구 층위별 현황도(호형)	26
도면 16. 상모리 B지구 문양별 토기출토 현황도	27
도면 17. 상모리 D지구 문양별 토기출토 현황도	28
도면 18. 주거지 평면형태별 토기출토 현황도	31
도면 19. 제주도 마연토기(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c, 수정 후 인용)	37
도면 20. 산청사월리 11호	37
도면 21. 적색마연호의 형식분류(宋永鎮 2003)	38
도면 22. 마연토기 형식분류	39
도면 23. (장)방형계주거지 평면형태 분포도(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c, 수정 후 인용)	40
도면 24. (장)방형계주거지 면적 분포도	41
도면 25. 제주도 소형 (장)방형주거지	41
도면 26. 반송리식주거지	42
도면 27. 원형주거지 면적 분포도	43
도면 28.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분류 모식도(이정진 2012)	44
도면 29.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분류	44
도면 30.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도	45

도면 31. 제주도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도	46
도면 32. 제주도 무문토기문화 I기	58
도면 33. 제주도 무문토기문화 II기	60
도면 34. 제주도 무문토기문화 III기	62
도면 35. 분기별 유적분포도	63
도면 36. 남부지방 복합문토기 출토 유적분포도	77
도면 37. 남부지방 복합문토기	80
도면 38. 단순문토기단계 문화요소의 분포	82
도면 39. 송국리식주거지의 형식별 분포도(김승옥, 2006a, 수정 후 인용)	86

表 目 次

표 1. 하모리유적 토기문양 속성분석표	29
표 2. 주거지 출토토기 문양요소 속성분석	33
표 3. 제주도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45
표 4. 복합문출토유적 주거지 AMS 분석자료	57
표 5. (장)방형 주거지 AMS 분석자료	59
표 6. 원형주거지 AMS 분석자료	61
표 7.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시기구분	64
표 8.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유적	66
표 9.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유적	67
표 10. 남해안서부 및 섬진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유적	68
표 11.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71
표 12. 남해안동부 및 낙동강하류유역권	72
표 13. 형산강·태화강유역권	73
표 14. 남부지방 복합문토기 속성표(단사선시문위치 : a. 이중구연내부, b.동체와 경계에 걸침)	79
표 15. 만경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84
표 16.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84
표 17. 탐진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84
표 18. 섬진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85
표 19.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85
표 20. 남해안동부 및 낙동강하류지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85

I. 서론

1. 연구목적

제주도는 한반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독립된 섬이지만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와 유사한 문화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청동기 시대의 문화양상만 보더라도 혼암리식토기, 역삼동식토기, 송국리식주거지 등 한반도에서 성행했던 문화요소들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사회는 ‘國’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로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과 제주도의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韓民族’이라는 동질성을 느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문화의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주도는 한반도 남해안으로부터 약 100k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점, 문화의 이동이 海路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점, 화산섬으로서 한반도와는 토양조건이 다르다는 점, 큰 강이 없어 飲用水를 구하기 힘들고 水田農耕이 어렵다는 점 등 지리적·환경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같은 문화의 분포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相異性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相似性과 相異性을 검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검토는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무문토기문화가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 유입되었는지, 유입된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한반도,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무문토기문화 비교를 통해 어느 지역으로부터 어느 시점에 그 문화가 유입되었고 한반도와 어떤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어 가는지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지방에서는 2000년대 이후 활발한 발굴조사로 인해 수많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 활동도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단위의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에서부터 서북한·동북한 지역을 거쳐 남한지역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일본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흐름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¹⁾ 하지

1) 姜仁旭, 2007, 「두만강 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동북한 토기의 편년 및 주변 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第62輯.

고민정, 2009,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와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한국청동기학회.

金炳燮, 2009, 「남한지역 조·전기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韓國青銅器學報』, 4號.

배진성, 2009, 「압록강~청천강유역 무문토기 편년과 남한」, 『韓國上古史學報』, 第64號.

만 제주도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이청규²⁾에 의해 정리된 이후 매우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타 지역에 비해 유적의 수가 매우 적고 주거지나 유물출토양상이 뚜렷하지 않아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 태도의 결여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삼화지구 등 삼양동 일대에서 그동안 뚜렷하지 않았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 확인되고, 고산리유적에서도 송국리문화의 모습이 보여짐에 따라 제주도의 무문토기문화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남강유역을 비롯한 남한지역의 대규모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과 그에 따른 수많은 연구 성과들은 상모리유적으로 대표되는 기존에 있던 제주도의 유물양상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물론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유적의 수가 적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상모리에서 삼화지구, 그리고 고산리로 이어지는 문화양상의 시간적 흐름이 확인되고 있어 한반도 남부지방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선행연구검토

제주도 무문토기에 대한 연구는 1973년 문기선이 당시 오라동, 광지리, 북촌리 등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유적별로 구분하여 기술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³⁾ 그 이후 광지패총이 본격 발굴되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남해안의 성산패총과 조도패총을 광지패총과 비교하여 제주도 무문토기의 시기구분을 시도한 연구가 이백규에 의해 진행되었고,⁴⁾ 상모리유적 발굴 이후 출토 유물군을 세 단계로 설정한 연구도 있었다.⁵⁾ 하지만 이후 청동기시대유적 발굴이 거의 없었던 탓인지 연구의 진행도 미진했다.

남한지방의 무문토기에 대한 연구는 시기구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비파형동검기와 세형동검기로 구분되는 2분기설⁶⁾로 시기구분이 시작된 이후 송국리유적의 발굴로 인해 송국리식토기, 유구석부, 삼각형식도를 표지적 유물로 하는 중기가 설정이 되며 청동기시대 3분기설이 등장하

岡田憲一・千羨幸, 2006, 「二重口縁土器と孔列土器-山陰地方の縄文晩期土器と韓半島の無文土器-」, 『古文化談叢』, 第55集, 九州古文化研究会.

2) 李清圭, 1995, 『濟州道 考古學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3) 文基善, 1973, 「濟州道 無文土器 文化研究」, 『濟州大學校 論文集』 5.

4) 李白圭, 1979, 「濟州道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濟州道の 考古學的 調査研究 I」, 『考古學』 56 合輯.

5) 李清圭, 1995, 전계서, pp.85~87.

6) 林炳泰, 1969, 「漢江流域 無文土器의 編年」, 『李弘植博士回甲記念論文集』.

李白圭, 1974,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器:土器編年을 中心으로」, 『考古學』 3輯.

게 된다.⁷⁾ 즉 역삼동유형, 가락동유형, 혼암리유형은 전기, 송국리유형은 중기, 점토대토기문화가 후기로 설정되게 된다. 또한 3분기설은 이청규에 의해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상존하는 단계, 가락동 및 역삼동유형의 한강 및 그 이남으로 보급과 혼암리유형과 송국리유형이 형성되는 단계, 역삼동유형·혼암리유형·송국리유형이 남부지방으로 확산되는단계, 수석리-연암산 유형이 형성 및 확산단계, 군곡리-조도유형이 형성 성행단계로 세분되기도 한다.⁸⁾

미사리와 남강유역의 발굴조사에서 즐문토기의 요소와 공반되는 돌대문토기가 확인됨에 따라 안재호는 전기의 각 문화유형에 앞서는 조기 돌대문토기문화를 설정하여 4분기설을 주장하게 된다.⁹⁾ 그리고 이후 점토대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에서 제외하여 조기 각목돌대문토기문화, 전기 가락동·역삼동·혼암리유형, 후기 송국리유형으로 설정한 새로운 3분기설을 제시한다.¹⁰⁾ 안재호의 조기설정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기설정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¹¹⁾되고 있지만, 조기설정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조기설정에 부정적인 견해도 확인되고 있다.¹²⁾ 또한 세형동검에 앞서 점토대토기가 우선 유입되는 단계를 후기로 판단하거나,¹³⁾ 철기가 공반 되지 않는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를 후기로 보아¹⁴⁾ 송국리문화를 중기, 원형점토대토기문화를 후기로 인식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혼암리유형에 대한 논쟁도 청동기시대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서북한의 팽이형토기문화와 동북한의 공렬토기문화가 한강유역에서 접촉하여 혼암리유형이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된 이후¹⁵⁾ 동북한 지역보다는 압록강, 청천강유역의 서북한

7)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の弥生土器」, 『弥生文化の研究3 弥生土器1』.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宋滿營, 1995, 『中期無文土器時代의 編年과 性格』,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創刊號, pp.84~85.

9)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輯, pp.43~49.

10) 安在皓,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1) 裴眞晟, 2003, 「무문토기의 성립과 계통」, 『嶺南考古學』 32.

裴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 第57輯.

千羨幸, 2007, 「無文土器時代 早期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靑銅器學報』 1號.

김현식, 2008b,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의 文化史的 意味」, 『考古廣場』 2, 釜山考古學研究會.

金炳燮, 2009, 전게서.

12) 김장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韓國考古學報』, 第69輯.

13) 金權中, 2010, 『청동기시대 중부지방의 사·공간적 정체성-주거지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2010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문, p.57.

14) 金奎正, 2011, 「湖南地域 靑銅器時代 前期文化의 特徵」, 『韓國靑銅器學報』 9號, 한국청동기학회, p.37.

15) 李白圭, 1974, 전게서.

지역 토기와 관련성이 강하다는 견해,¹⁶⁾ 원산만 일대에서 형성되었다는 견해¹⁷⁾가 존재하며, 혼암리식 토기가 확인되는 유적간에는 相異性이 크다는 이유로 혼암리유형의 유형설정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또한 제시되고 있다.¹⁸⁾

200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락동식토기, 역삼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라는 토기군을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여 그 틀 속에서 모든 유적을 대입시켜 각 유형의 확산과정을 설명하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¹⁹⁾를 보이며 각 지역성에 입각한 세부편년을 정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영동지역의 연구는 박영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무문토기의 전개양상을 각각 유물의 조합상과 공반관계의 검토를 통해 총 6단계로 구분하였다. 교동단계(I기)·사천리단계(II기)·조양동단계(III기)·방내리단계(IV기)·포월리단계(V기)·방동리 A지구 단계(VI기)로 구분되는데 동북한·서북한의 요소가 강한 단계에서 장식성이 강해지다가 점점 무문화가 진행되는 양상으로 전개해 나간다.²⁰⁾

영서지역은 북한강 유역과 남한강 유역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강 유역은 각목돌대문토기와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대형 방형주거지 중심의 초기, 세장방형주거지에 순수공렬토기가 주류를 차지하는 전기, 전기와 중기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 중기전반, 이색점토구역이라는 특수시설이 설치된 중·소형 방형주거지의 천전리유형이 확인되는 중기후반, 무문양의 심발형토기를 중심으로 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 양상과 낮은 구릉을 중심으로 새로이 유입된 점토대토기 문화가 확인되는 후기로 구분가능하다.

남한강 유역은 용형과 심발형의 돌대문토기를 중심으로 폭이 좁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확인되는 초기, 중대형의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와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이 공반되거나 결합되는 양상이 주류를 보이는 전기, 공렬토기와 소형호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유구석부, 일체형석축, 일단병식석검 등의 석기류가 확인되는 중기,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확인되는 중형 장방형주거지의 후기로 구분 가능하다.²¹⁾

경기지역은 미사리유적 중심의 돌대문토기문화가 가장 이르다고 볼 수 있는데²²⁾ 김권중은 용형에 가까운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확인되는 군포 부곡동유

16) 大貫静夫, 1996, 「欣岩里類型土器の系譜論をめぐって」 『東北アジアの考古學 第二 〔樺域〕』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編, 깊은샘)

17) 朴淳發,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湖西考古學』 創刊號, pp.87~90.

18) 金壯錫, 2001, 「혼암리 유형 재고: 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 28號.

19)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5.

20) 朴榮九, 2008, 「嶺東地域 無文土器文化의 展開樣相」, 『江原考古學報』, 第11號, pp.60~63.

21) 金權中, 2010, 전게서, pp.69~71.

적, 인천 동양동유적, 김포 운양동유적 등도 동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전기에는 팽이형토기문화요소와 이중구연단사선문요소, 공렬문요소의 공반양상이 전기 전반에 나타나며 중반에는 퇴화된 이중구연단사선에 구순각목공렬이 결합되거나 공반되는 양상이 후반에는 구순각목공렬토기 중심으로 확인된다.²³⁾ 김한식은 구순각목공렬토기 중심의 역삼동유형은 역삼동Ⅰ유형과 역삼동Ⅱ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전기의 석기양상을 보이는 역삼동Ⅰ유형은 전기로, 중기의 석기양상을 보이는 역삼동Ⅱ유형은 경기도 남부 송국리문화와 함께 중기의 문화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²⁴⁾

호서지역은 차령산맥 이북지역과 이남지역으로 구분된다. 차령산맥 이북지역은 역삼동·혼암리유형 중심지역으로 전기에는 장방형 주거지가 우세하며 목이 길고 외경된 구연부를 지닌 웅과 호를 지표로 하는 1기, 세장한 주거지가 주류로 구연부가 길게 직립되거나 외경되며 동체 상부가 크게 부풀어진 웅과 호가 성행하고 발형토기에는 퇴화이중구연과 단사선이 시문된 예가 많아지는 2기, 장방형 내지 방형의 주거지 주류에 웅과 호의 구연부는 짧게 외경되거나 외반되며 발형토기에 퇴화이중구연과 단사선이 사라지는 3기로 구분가능하다. 중기에는 송국리유형이 확인되는데 중북관계 및 방사성탄소연대에 따라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가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보다 선행하고 있다.²⁵⁾

차령산맥 이남지역은 대전·청주지역을 중심으로 가락동유형의 유적들이 대부분이다. 이 지역의 가락동유형Ⅰ기는 장방형주거지에 한 개의 위석식노지가 설치되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한다.Ⅱ기는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세장해지며 노지의 수가 2개인 것이 증가한다. 토기의 문양은 단사선문과 구순각목문의 비중이 증가한다.Ⅲ기에는 송국리형토기의 기형이 증가하고 일단경축, 삼각형석도 등이 등장한다.²⁶⁾

호남지역은 순창 원촌에서 미사리식주거지와 돌대문토기가 확인되어 가장 이른 시기로 파악된다.²⁷⁾ 전기는 4기로 구분되는데Ⅰ기는 장방형주거지에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확인된다.Ⅱ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에 이중구연거치문, 이중구연거치구순각목문토기가 추가되고 주거지는 장방형주거지와 세장방형주거지가 확인된다.Ⅲ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토기가 확인되며 주거지는 장방형, 세장방

22) 庄田愼矢, 2009, 「南韓 青銅器時代 生産活動과 社會」, 학연문화사, p.48.

23) 金權中, 2010, 전개서, p.58.

24)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 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 5-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25) 羅建柱, 2006, 『前·中期 無文土器 文化的 變遷過程에 대한 考察』,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6)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研究』, 忠南大學校碩士學位論文.

27) 庄田愼矢, 2009, 전개서, p.99.

형, 초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인다. IV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에 원형이나 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된다.²⁸⁾

영남지역은 남강유역, 동남해안지역, 대구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강유역은 판석부위석식노지의 장방형주거지에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며 절상돌대문토기와 공렬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공반되는 1기, 무시설식노지에 세장방형주거지가 설치되며 공렬문, 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 등이 확인되는 2기, 주거지 중앙에 타원형수혈이 설치되는 ‘대평리유형’에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이 결합되거나 공반되고 횡침선문의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는 3기, 타원형수혈이 설치된 장방형·방형주거지와 송국리형 원형·타원형주거지가 확인되고, 외반구연토기,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등이 확인되는 4기로 구분가능하다.²⁹⁾

동남해안지역의 1기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주거지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며 공렬문+구순각목문과 공렬문+단사선, 공렬문, 구순각목문이 주류를 이룬다. 2기는 장방형과 방형의 평면형태에 1~2개의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에 단순공렬문과 난알문+공렬문이 시문되는데 공렬문은 주로 안에서 밖으로 반투공되었다. 3기는 장방형과 방형의 중·소형주거지가 주로 확인되며 공렬문과 난알문이 확인되는데 공렬문은 밖에서 안으로 반투공되어 2기와 대조를 이룬다. 4기는 말각방형의 평면형태에 중앙에 타원형수혈이 설치된 주거지가 주를 이루며, 난알문토기와 일단경축 등이 확인된다.

대구지역의 1기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대형주거지에 1~4기의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다. 토기 문양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문, 공렬문+구순각목문, 공렬문이 주류를 이루며 석축은 무경축이 확인된다. 2기는 장방형과 말각방형의 중형주거지에 노지 1개가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토유물은 공렬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와 일단경축 등이 확인된다. 3기는 말각방형과 원형의 중·소형주거지가 주를 이룬다.³⁰⁾

이상과 같이 지역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에는 이러한 지역성연구와 함께 개별 유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적색마연토기에 대한 연구로 하인수, 송영진, 이화영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기형의 형식분류를 통해 시간성과 지역성을 검토하였다.³¹⁾ 석기에 대해

28) 홍باط음, 2010a, 「湖南地域 青銅器時代 前期 文化의 展開過程」,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p.68~72.

29) 高旻廷, 2003, 전개서, pp.78~94

30) 黃炫眞, 2004, 「嶺南地域의 無文土器時代 地域性研究-東南海岸 無文土器文化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31) 河仁秀, 1989, 전개서.

宋永鎮, 2003, 「赤色磨研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서는 손준호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마제석기의 대표기종인 석검, 석촉, 석도, 석부를 각각 형식분류하고 시간적·공간적 양상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청동기시대의 생활상을 복원해 보고자 하였다.³²⁾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외에도 묘제나 농경에 관한 연구 등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에 의해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문화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만 제주도는 독립된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도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문화 속에서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의 공간적인 범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며 제주도와 관련성이 상정되는 한반도 중·남부지방의 모든 지역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시간적인 범위는 청동기시대 전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초기로 상정되는 돌대문토기문화부터 점토대토기문화 이전까지를 범위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토기의 기형과 구연부 문양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토기 이외에 참고 가능한 주거지 및 공반출토되는 석기들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시기구분에서의 용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전기-후기의 3분기설을 따르고자 한다. 초기는 돌대문토기문화를 중심으로 하며, 전기는 소위 말하는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이 해당하며, 후기는 송국리유형과 북한강유형, 검단리유형, 역삼동유형Ⅱ 등 후기적인 석기양상이 확인되는 유적을 포함한다.

시대명은 ‘청동기시대’와 ‘무문토기시대’가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동기시대’를 사용하고자 하며 토기를 중심으로 한 유물 갯춤새를 이야기 할 때는 ‘무문토기문화’라고 칭하고자 한다. 사실 ‘무문토기문화’에는 토기, 석기 등의 유물갯춤새는 물론 거주·농경·묘제 등 생활방식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제주도의 경우 이 모든 것들을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징적인 유물갯춤새와 주거지 특성의 묶음 또한 협의의 의미로 ‘무문토기문화’라 부르고자 한다.

남한의 무문토기는 문양요소의 결합에 따라 가락동식토기, 역삼동식토기, 혼암

李花英, 2008, 「靑銅器時代 赤色磨研壺의 變遷」, 全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32) 孫峻鎬, 2006, 「靑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2』, 서경문화사.

리식토기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각 형식의 정의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혼암리식토기의 경우 역삼동식과 가락동식의 토기가 공반되거나 일정한 토기에 두 유형의 장식속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토기로 정의되는데³³⁾ 한 개체내에 두 형식이 복합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두 형식이 공반되는 경우에는 혼암리식토기라고 설정함에 있어 다소 모호해질 수 있다. 우선 두 형식의 토기가 정확하게 공반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형식은 후대에 혼입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실제로는 매우 어렵고, 토기의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두 동의 주거지만 확인되는 소규모의 유적에서는 어떤 유형의 유적이며 어떤 형식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형식설정은 자칫 하나의 유적을 설명함에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따져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규격화하여 설명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양요소의 결합여부에 따라 형식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토기의 문양요소를 모두 나열하여 부르기가 힘든 경우 편의상 이중구연단사선문 요소와 공렬문의 요소가 결합되면 복합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 요소가 탈락되어 공렬구순각목문이나 공렬문, 구순각목문만 남아있는 토기를 단순문토기로 부르도록 하겠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II장에서는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유물과 주거지를 분류하고 시간성을 살피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유물의 형식분류와 토기 문양의 속성분석을 통하여 각 유적의 공반양상을 파악하고 유물과 주거지의 특성 검토를 통해 각 유적을 편년하여 한반도 남부지방과의 비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남부지방 무문토기문화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제주도의 문화양상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 제주도의 무문토기문화가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V장인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3) 李清圭, 1988, 전개서, p.41.

II. 유물 및 주거지의 분류와 시간성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유적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다. 그에 따라 유물의 출토양상, 주거지의 속성 등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청동기시대의 유물 중 가장 출토량이 많고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토기도 完形의 개체수가 적어 기형 분류에 어려움이 따른다. 주거지의 경우에도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내부시설인 노지와 저장공 등이 파악되지 않고 내부면적도 매우 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뚜렷한 특징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확인되는 무문토기문화의 특징을 참고로 제주도의 유물과 주거지의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完形의 토기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발형토기를 중심으로 기형을 분류하고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토기 구연부의 문양요소 변화를 관찰한 후 토기의 시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공반출토되는 마연토기의 기형변화를 남부지방의 양상과 비교하여 시간성 논의에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주거지의 특징을 검토하여 제주도의 지역성에 대한 논의에 근거자료로 삼고자 한다.

1. 토기의 검토

1) 토기기형의 검토

(1) 호형 및 외반구연토기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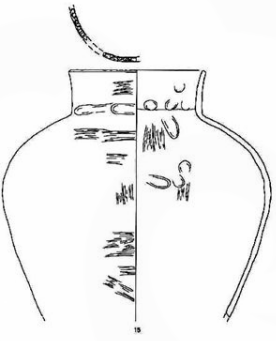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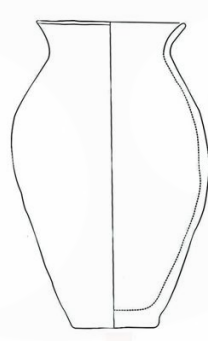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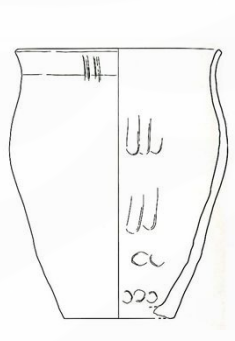
호형토기는 좁은 경부를 가지고 있으며, 동체가 球 형태로 부풀어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기형은 좁은 경부를 통해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어 저장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호형토기에는 끈을 감아 묶었던 흔적이 자주 확인되는데 저장용으로서 토기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³⁴⁾ 호형토기는 크기에 따라 대형은 장기저장용, 소형은 단기저장용으로 상정되기도 한다. 장기저장용은 부패의 가능성이 적은 음식물을 담아 수혈을 굴착한 후 안치하기도 하며, 단기저장용은 자주 사용하는 종류의 내용물을 담아 선반이나 바닥에 보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의 호형토기는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대형의 (세)장방형 주거지에서 공동생활하며 잉여생산물의 저장공간이 많이 필요했던 전기와 달리 후기에는 가족단위로 분화되면서 저장요구량이 줄어들

34) 高旻廷, 2003, 전계서, P.37.

어 저장용기의 용량도 줄어들었다고 보는 견해도 확인된다.³⁵⁾

호형토기는 후기가 되면 외반구연토기로 대체된다고 보기도 한다. 이 토기는 동체부가 부풀어 있고 구연부로 갈수록 좁아지며 살짝 외반하는 기형을 보이고 있어 형태적 특징이 호형토기보다 옹형토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호형과 옹형토기도 정형적인 형태가 아니고서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부 연구자는 청동기시대 후기 외반구연토기의 또 다른 명칭인 ‘송국리형토기’ 자체를 기종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³⁶⁾ 이러한 외반구연토기는 취사흔적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호형토기가 대체로 저장용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煮沸用器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호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는 형태와 사용용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구분을 하여 형식분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호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는 完形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형식분류를 하기 위한 개체수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호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는 기형을 분석하여 형식을 설정하기보다 호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가 주로 확인되는 유적의 유물갖춤새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적간 시간성을 검토하는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외반구연토기는 송국리계와 삼양동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토기가 청동기시대 후기에 주로 확인된다면 후자의 토기는 점토대토기와

형 식	호형토기	외반구연토기(송국리계)	외반구연토기(삼양동계)
도 면			
출토유구	삼양세무서 1호주거지	삼화지구가 I 110호수혈	고산리 II 8호주거지

도면 1. 제주도 출토 호형 및 외반구연토기

35) 박상운, 2011,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전기 호형토기의 변화양상」, 『韓國青銅器學報』 9號, P.31.

36) 庄田愼矢, 2009, 전계서, p.57.

함께 초기철기시대로 편년할 수 있어 유구의 편년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두 토기는 구연부의 성형수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는 성형시 손으로 눌러 부드럽게 외반 시키는 반면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는 판상구를 사용하여 구연부를 축약시켜 다소 거칠게 외반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의 동체대경이 胴中位에 형성되는 반면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는 胴上位에서 형성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³⁷⁾

제주도에서 이러한 호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의 등장과 소멸에 대해서는 호형토기가 먼저 등장하고 이후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가 등장하여 호형토기와 공존하다가 호형토기가 먼저 소멸하고 그 이후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가 소멸하면서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발형토기의 기형 검토

발형토기는 직립구연 내지 내만구연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넓은 구연부를 갖고 있어 내용물을 쉽게 확인하고 넣고 뺄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발형토기는 다시 深鉢과 淺鉢로 나뉘는데 보통 크기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고와 구경의 비율도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한다.³⁸⁾ 발형토기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무문토기로 용도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형토기 중에는 2차 가열흔적인 그을음·피열흔·탄착흔·박리흔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취사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그 외에도 대형의 深鉢은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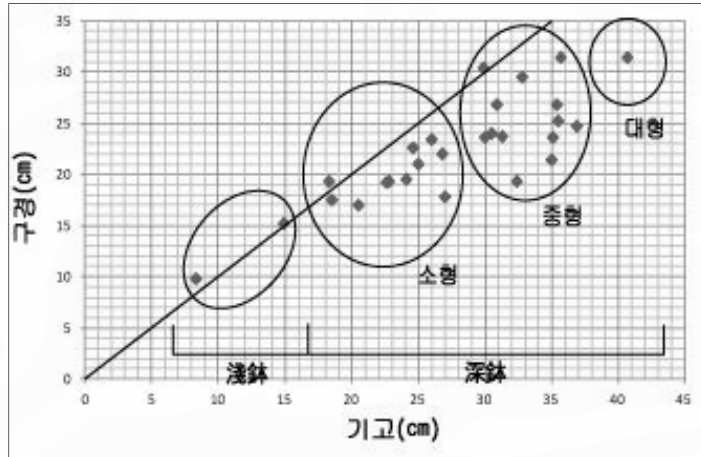
발형토기는 문양이 가장 다양하게 시문되는 器種으로 문양요소의 변화와 함께 기형의 변화도 검토할 수 있어 무문토기의 편년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발형토기 기형의 주요 속성으로는 토기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한 기고, 구경, 용량과 토기의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기고:구경, 구경:저경, 동최대경의 위치, 동최대경:구경 등이 있다. 토기의 용량은 토기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이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고와 구경만을 이용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발형토기의 기고와 구경에 대한 분석결과 구경에서는 뚜렷한 구분점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고에 따라 4개의 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선 15cm 미만의

37) 김경주, 2012, 「고산리취락의 성격과 편년」, 『제주고산리유적(1874-16번지)』, P.260.

38) 발형토기를 기고와 구경의 비율에 따라 기고가 구경보다 큰 ‘심발’, 기고가 구경의 1~2/3인 발, 기고가 구경의 2/3 이하인 ‘천발’로 구분하기도 한다.(金智賢, 2008, 『中西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의 炊事用土器 研究-驛三洞・欣岩里類型 鉢形土器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16~17.)

39) 金智賢, 2008, 전계서, PP.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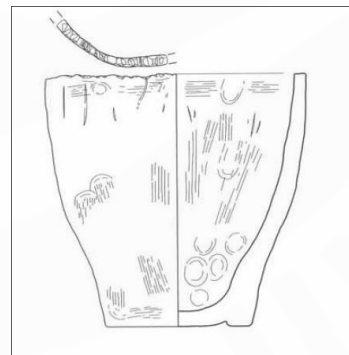


도면 2. 발형토기의 기고와 구경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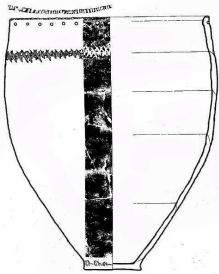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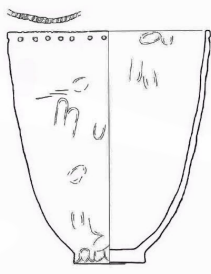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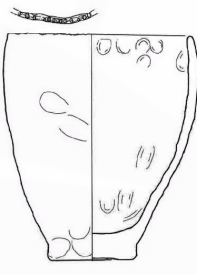
토기는 기고가 구경보다 작아 천발로 분류 가능하다. 15cm 이상의 토기에서는 3개의 군으로 구분되는데 40cm 이상은 대형, 29~39cm는 중형, 16~28cm는 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0cm 이상의 대형이 한 점 밖에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대형토기들의 기고가 대부분 40cm 이상에 군집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류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5cm 미만의 천발형 토기는 기고가 구경보다 작으며, 동최대경이 구연단에 형성되어 있고, 구연단의 형태는 뾰족하거나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순에 각목이 시문되기도 한다. 完形으로 확인된 천발형 토기는 단 두 점으로 크기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형은 거의 유사하다.

심발형토기는 구연부의 내경도와 구경:저경에 따라 3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연부의 내경도를 알아보기 위해 동최대경:구경을 검토한 결과 동최대경이 구경보다 큰 경우와 동최대경과 구경이 같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전자는 구연부가 내경하는 토기이며 후자는 직립하거나 외경하는 구연의 토기이다. 또한 구경:저경의 검토에서 구연부가 내경하는 토기중에는 저부가 매우 좁아 저경이 구경의 1/3에 못 미치는 토기와 비교적 안정적인 저부를 가진 토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두 결과를 종합하면 구연부가 내경하며 저부가 좁은 I식, 구연부가 직립 내지 외경하며 저부가 비교적 안정적인 II식, 구연부가 내경하며 저부가 안정적인 III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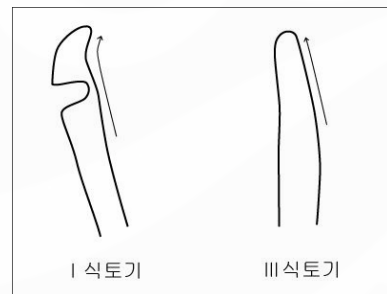
도면 3. 천발형토기

형 식	I 식	II 식	III 식
도 면			
출토유구	상모리 A지구	삼양세무서 1호주거지	삼양세무서 1호주거지

도면 4. 심발형토기 형식분류

I 식으로 분류된 토기는 상모리A에서 한 점밖에 확인되지 않아 분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유사한 토기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나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이 시문된 복합문토기 중에서 저경이 구경의 1/3 이하인 폭이 좁은 저부를 갖는 토기가 어은 2-2호주거지, 백석동 A-4호주거지, 옥방 5-C4호주거지 등에서 확인되었다. 물론 방내리 1호주거지에서처럼 II 식에 가까운 안정적인 기형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김병섭이 유사이중구연⁴⁰⁾을 갖는 토기는 동하방이 좁고 구연부가 내경하는 기형에서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⁴¹⁾ I 식의 기형이 상모리와 같이 복합문토기가 중심이 되는 유적에서는 주된 기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또한 상모리에서 확인되는 구연부편 중에는 구연부가 내경하다 구연 상단에서 직립하거나 외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III 식의 토기에서는 이러한 현상 없이 구연 상단에서도 내경하는 방향성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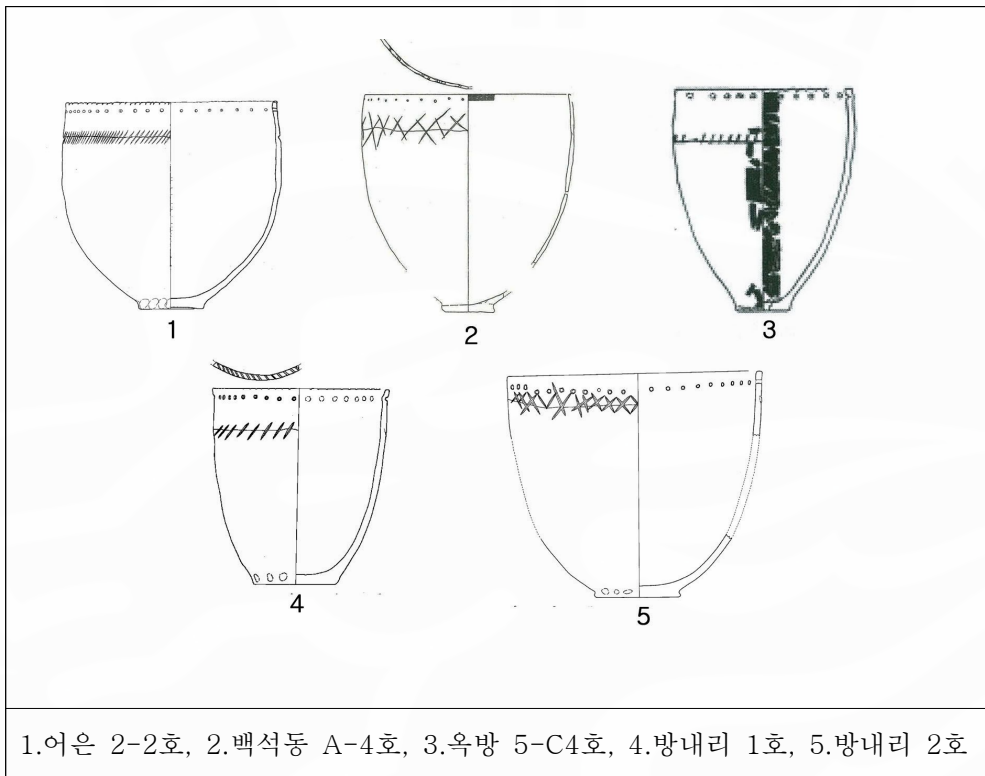
II 식의 토기는 상모리에서 I 식과 공반되기도 하고 삼화지구에서 III 식과 공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중·소형의 토기에서 많이 확인되며 구연부에는 공렬구순각목이 시문되는 경우가 많다. II 식 토기는 영동지역에서 방내리나 포월리 단계에서 확인되며



도면 5. 구연부 형태

40) 복합문토기는 유사이중구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41)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二重口緣土器를 中心으로-」慶尙大學校碩士學位論文, PP.32~33.



도면 6. 복합문이 시문된 심발형 토기

경기지역에서는 미사리3기, 아산만 지역에서는 명암리에서 확인되어 대체적으로 전기후반에서 후기에 걸쳐 출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식의 토기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기형으로 대부분 중·소형의 토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삼화지구를 비롯한 삼양동일대에서 많이 확인되며, 完形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고산리나 하모리를 비롯한 제주도 전 지역에서 Ⅲ식 토기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 확인되어 가장 넓은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구연부의 내경 현상은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되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 삼양동 일대 유적의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구연부에는 구순에 각목이 시문되는 경우가 많고 무문양토기도 적지 않게 확인되어 가장 늦은 시기까지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검토대상의 토기가 각 유적에서 고르게 추출되지 않고 삼화지구에서 집중 출토된 Ⅲ식에 집중되고 있어 불안정한 형식분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형식간의 시간적 순서를 살펴보면 I·Ⅱ식→Ⅱ·Ⅲ식→Ⅲ식

순으로 변화된다고 보이며, 토기의 크기는 중·대형토기 중심에서 중·소형토기 중심으로 점점 작아진다고 판단된다. 토기 크기에서 시간성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주거지 면적의 변화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생활방식이 변화하면서 토기의 크기도 함께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문양요소의 검토

토기의 구연부에 돌대문, 공렬문,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등 여러 가지 문양요소가 단독 또는 복합되어 시문되는 형태는 무문토기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문양요소가 쇠퇴하기는 하지만 공렬문과 구순각목문과 같은 문양요소는 지역에 따라 지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구연부에 문양이 시문된다는 것은 무문토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양요소들은 청동기시대의 문화 흐름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토기 문양이란 단지 구연부를 꾸미는 결과로 나타난 아주 미세한 속성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나친 의미부여를 경계하는 의견⁴²⁾도 존재하지만 문양의 변화에 따라 청동기시대의 흐름이 파악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연부에 문양이 새겨지는 특징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관찰되며 그 유사성도 매우 높아 각 집단들 간에 유사한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문양의 결합양상, 시문방법, 쇠퇴과정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검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어 한반도 전역의 무문토기는 각각 보편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섬이라는 고립성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무문토기의 문양요소도 한반도의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는 청동기시대에도 제주도는 한반도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문양요소에는 각목돌대문, 단사선문, 공렬문, 구순각목문, 횡대구획문 등의 문양이 존재하며 이중구연단사선문, 단사선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등 각 문양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도 확인된다. 각 문양요소들이 결합된 복합문의 형태는 상모리유적을 중심으로 매우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혼암리식 토기군⁴³⁾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1) 각 문양요소의 특징

42) 김장석, 2010, <청동기시대 중부지방의 사·공간적 정체성>에 대한 토론문, 2010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p.97.

43)李清圭, 1988, 전개서.

① 刻目突帶文

토기의 구연부를 둘러 돌대를 부착하고 돌대에 각목문을 새긴 것을 각목돌대문 토기라고 하는데 덧띠새김무늬토기⁴⁴⁾, 突帶刻目文土器⁴⁵⁾(李亨源 2002)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위 개념인 돌대문토기에는 각목돌대문토기 외에도 돌대가 일주하지 않고 띠엄띠엄 부착된 切狀突帶文土器, 구연부에 등간격으로 3~4개의 파수를 부착한 四耳附土器 혹은 鷄冠形把手附土器 등이 있다.⁴⁶⁾

황석리에서 확인되기 시작한 돌대문토기는 1980년대 시작된 미사리유적의 발굴 이후 줄문토기적 요소와 공반하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의 가장 빠른 시기의 토기로 인식되어지고 있다.⁴⁷⁾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각목돌대문토기는 상모리유적 D지구 III층에서 확인된 한 점뿐이다. 하지만 이 한 점도 작은 편으로 남아 있고 사진과 도면상으로 확인했을 때 돌대의 형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D지구 III층에서 확인되는 토기들은 공렬구순각목문토기가 대부분인데 한 점이 확인된 각목돌대문토기가 공렬구순각목문토기와 동일시라고 판단하기에도 자료상 한계가 있다. 제주도에서 각목돌대문토기가 확인되었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이 토기의 시기 설정에 있어서는 자료가 더 확보되기 전까지 유보하도록 하겠다.

② 二重口緣短斜線文

이중구연단사선문은 흔히 가락동식토기의 특징으로 인식되어 진다.⁴⁸⁾ 이중구연단사선문은 기존에 대동강유역의 팽이형토기에서 기원을 찾았으나 최근에는 압록강~청천강유역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유사성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동강 유역의 팽이형 토기는 좁은 저부에 이중구연 위에 여러 개의 단사선문이 방향을 달리하며 규칙적으로 시문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기는 남한지역에서는 강화 삼거리 유적 출토품을 제외하면 거의 드물다.⁴⁹⁾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이중구연의 퇴화된 형태이다. 즉 구연부에 점토띠를 덧대어 이중구연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점토관 접합부를 이용하여 이중구연의 효과만 낸 것이다. 이러한 이중구연의 형태는 유사이중구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중구연토기보다 시기가 늦은 것으로 파악된다.⁵⁰⁾ 이중

44) 李弘鐘, 1988, 「日本 初期水田農耕期の 덧띠새김무늬토기-한반도와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史叢』 33.

45) 李亨源, 2002, 전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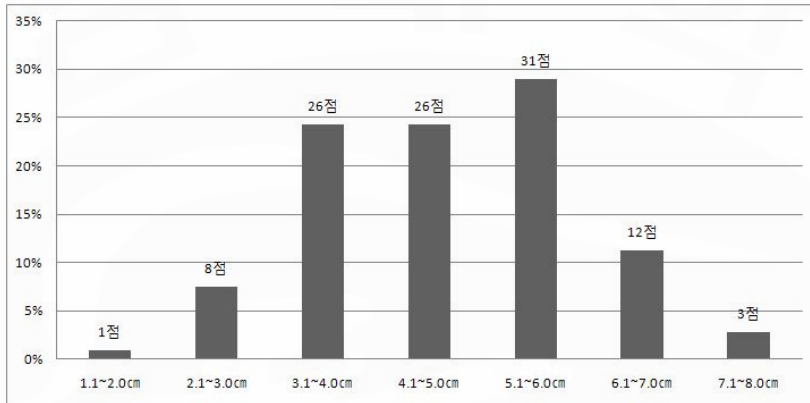
46) 국립김해박물관, 2005, 『전환기의 선사토기』.

47) 安在皓, 2000, 전개서.

48) 李清圭, 1988, 전개서, p.41.

49) 高旻廷, 2003, 전개서, pp.56~57.

50) 金炳燮, 2003, 전개서.



도면 7. 이중구연토기의 이중구연폭 분포현황(상모리유적)

구연과 유사이중구연을 구분해야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유사이중구연만 확인되므로 두 특징을 구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상위개념인 이중구연으로 통일하여도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된다.

이중구연단사선문의 주요속성으로는 이중구연의 폭, 단사선의 길이, 단사선의 위치 등이 있다. 상모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이중구연의 폭은 2cm미만의 매우 좁은 것과 7cm이상의 비교적 넓은 것도 확인되지만 대체적으로 3cm~6cm사이에 집중된다. 1cm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1~4.0cm가 24.3%, 4.1~5.0cm가 24.3%, 5.1~6.0cm가 29.0%로 3.1cm에서 6.0cm사이에 전체 이중구연토기의 77.6%가 몰려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만들었던 이중구연의 폭이라고 할 수 있다. 安在皓·千羨幸의 분류에 의하면 3.1~6.0cm의 폭은 전기무문토기 II~III기에 해당하는데⁵¹⁾ 이중구연단사선문이 복합된 토기가 제주도에 유입되는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상모리유적 외에도 강정동유적, 동명리유적, 삼화지구유적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시문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 몇 점 확인되었으나 이중구연부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다. 이중구연단사선문은 타 유적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아 상모리유적 단계가 지나면 거의 소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이중구연단사선문의 단사선 길이는 1~2cm 사이에 집중되고 있고 1cm미만이나 2cm를 초과하는 것도 소량 확인되나 1~2cm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단사선문의 시문위치는 이중구연과 동체부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경계 밑에 시문되는 경우도 있다. 단사선은 등간격로 右上에서 左下로 내려 긋는 경우가 주류이나 반대로 시문되는 경우도 있고 엇갈리게 시문하여 X자 모양이나 V자 모양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에서 이중구연단

51) 安在皓·千羨幸, 2004, 「前期無文土器の文様編年と地域性」,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p.94.

사선문은 단독으로 시문되기보다 구순각목문이나 공렬구순각목문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단사선문만 단독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중구연의 요소가 퇴화되어 아예 사라져 버린 경우라고 판단된다.

③ 孔列文

공렬문토기는 토기의 구연부에 원형의 구멍을 뚫거나 반관통시켜 일주시킨 문양으로 청동기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지역에 따라 후기까지 확인되는 대표적인 문양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렬은 관통된 것과 관통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통되지 않고 돌기부만 형성되게 시문된 것을 공렬과 구분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⁵²⁾ 이러한 경우를 突瘤文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공렬문과 일괄된 계통으로 파악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⁵³⁾, 돌류와 공렬간에 시간적 서열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한다.⁵⁴⁾ 하지만 관통시키든 관통시키지 않든지 간에 등간격으로 구연부를 일주하며 문양을 시문하는 행위를 한반도 전역에서 똑같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렬문과 돌류문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공렬문에 돌류문을 포함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된다.

공렬의 관통여부와 함께 투공방향은 공렬문의 시간성 연구에 중심이 되어온 주제이다. 실질적으로 남한강 유역에서는 공렬간격이 넓고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한 것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확인되고 있어 시간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⁵⁵⁾ 반면 남강유역에서는 90%이상이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되고 있으며 시간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옥방5지구 C-3호 주거지에서 절상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공렬문토기가 밖에서 안으로 관통되고 있는데 시간성과는 무관해 보인다.⁵⁶⁾ 동해안지역에서는 조양동과 방내리에서 공렬이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⁵⁷⁾ 이처럼 투공방향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반드시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주도에서는 고산리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에서 모두 공렬문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관통여부는 반관통이 공렬문의 93%를 차지하며 투공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시문되는 경우가 84%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이다. 관통여부와 투공방향을 연계해서 살펴보면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된 경우가 7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52) 趙由典, 1994, 「청동기시대의 孔列土器」, 『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遺物을 通하여 본 社會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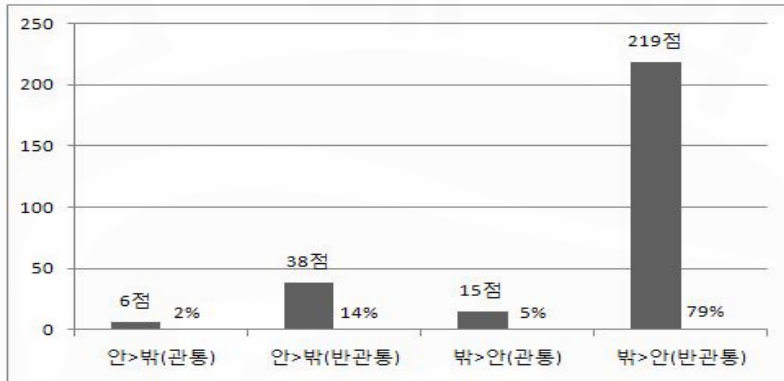
53) 大貫靜夫, 1996, 전게서.

54) 朴淳發, 1999, 전게서.

55) 金權中, 2010, 전게서, p.80.

56) 高旻廷, 2003, 전게서,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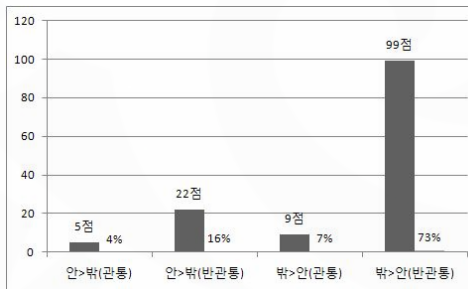
57) 黃炫眞, 2004, 전게서,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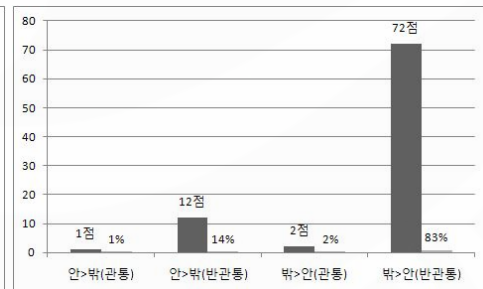
도면 8. 제주도 공렬문토기의 투공방향과 관통여부 분포현황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된 경우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관통된 공렬문의 경우 반관통을 의도하고 시문했으나 실수로 관통되거나 소성 중 관통되어 버린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처음부터 반관통을 의도하여 시문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문이 발달된 상모리유적의 공렬문과 문양요소가 단순화되는 삼화지구유적 공렬문의 투공방향과 관통여부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주도 전체적인 양상과 마찬가지로 두 유적 모두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된 경우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유적에서의 투공방향과 관통여부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중구연요소의 탈락이라는 시간적 변화에도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된 공렬문을 시문한다는 토기 제작의 전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의 공렬문은 주로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하고 있고 시간성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외지산 태토로 확인되는 공렬문토기 11점은 관통여부와 관계없이 밖에서 안으로가 6점, 안에서 밖으로



도면 9. 공렬문토기의 투공방향과 관통



도면 10. 공렬문토기의 투공방향과 관통여부 분포현황(삼화지구유적)

로가 5점 확인되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李清圭는 외지산태토가 확인되는 토기를 혼암리식토기의 유입단계로 보고 있는데⁵⁸⁾ 외지산태토의 공렬문 투공방향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무문토기 유입기의 투공방향의 양상은 그 이후의 투공방향 양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외지산태토 토기의 개체수가 적어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가능성만은 열어 두고자 한다.

공렬문의 구멍직경, 구연단에서 공렬까지의 거리, 구멍 간 간격 등도 공렬문의 문양속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멍직경은 제주도의 모든 유적에서 일정한 크기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좁은 것은 0.3cm 정도이며 넓은 것은 0.7cm에 이르는데 0.5cm 내외에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멍의 크기는 시문도구의 크기와 관계되는데 제주도에서는 각 유적 간 일정한 크기의 시문도구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安在皓는 속성배열법에 관한 연구에서 구연단에서 공렬까지의 거리를 3단계로 구분하여 편년연구에 사용하였다.⁵⁹⁾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구연단에서 공렬까지의 거리가 다양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와 같은 연구는 다소 무리가 있다. 구연단 밑에 바로 붙어 공렬이 시문되는 경우부터 넓게는 2.0cm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0.5cm~1.5cm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상모리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에서는 1.0cm를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한 토기 내에서 구연단과 각 구멍의 거리는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규칙한 경우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구멍 간 간격에 있어서 좁은 경우는 0.3cm 정도로 매우 뽁뽁하게 시문되기도 하며 넓은 경우는 3.0cm에 이르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0.5cm에서 2.0cm 사이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유적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상모리 유적에서는 1.0~2.0cm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삼화지구 및 기타 유적에서는 1cm를 내외한 간격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 지을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단지 상모리유적의 공렬문토기 개체수가 타 유적에 비해 많기 때문에 구멍간 간격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렬문은 단독으로 시문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이 함께 시문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제주도 전기 무문토기의 특징으로 공렬문이 제주로 전파될 당시 이미 복합문의 형태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동남해안지역의 편년연구에서 복합문에서의 공렬문과 단순문양으로서 공렬문이 계통을 달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⁶⁰⁾ 제주도에서도

58) 李清圭, 1995, 전게서, p.85.

59) 安在皓, 2011, 「屬性配列法에 따른 東南海岸圈 無文土器 文樣의 編年」 『韓國上古史學報』, 第73號, p.73.

60) 安在皓, 2011, 전게서, p.93.

복합문이 주로 확인되는 상모리 집단과 문양이 단순화되는 삼화지구의 집단 간에 다소 상이한 유물출토양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다른 계통에서 오는 차이점인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다.

④ 口脣刻目文

구순각목문토기는 구순부를 일주하며 끝이 예리하거나 둥근 시문구를 이용하여 눈금을 새겨 놓은 토기를 말한다. 흔히 공렬문토기와 복합시문되거나 공반되는 경우가 있어 소위 역삼동식토기의 특징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며 고구려토기에도 나타나는 등 시기 폭이 매우 넓으며 공렬문과는 별개로 가락동식 요소와도 결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순각목문을 공렬문과 함께 역삼동식토기의 범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순각목문토기는 주로 심발형토기나 천발형토기, 호형토기에서 확인되는데 대체로 ‘//’또는 ‘||’와 같이 동일 방향으로 시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X’, ‘V’ 또는 ‘N’자의 형태로 엇갈리게 시문되는 경우도 확인된다.⁶¹⁾

청동기시대의 구순각목문토기는 다른 문양요소에 비해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중서부 지역에서는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와 공반되거나 외반구연토기에 구순각목문이 시문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토기는 관창리식토기⁶²⁾로 불리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제주도 영선동식토기 II단계에서 횡주어골문토기를 중심으로 구순각목문토기의 유행이 있었다.⁶³⁾ 그 이후 청동기시대에는 상모리단계에서 공렬문, 이중구연단사선문 등과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석기시대에서부터 이어지는 계통이 아닌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구순각목문토기는 타 문양들이 소멸된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최근 확인된 제주 고산리유적에서는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제주도 청동기시대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던 문양요소로 인식된다.

구순각목문은 제주도 청동기시대 모든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장 광범위한 문양요소이며 각 유적별로 각목시문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순각목문은 시문간격이 매우 불규칙해서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략적인 간격을 살펴보면 우선 상모리유적은 0.5cm 내외의 간격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시문되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삼화지구유적에도 상모리유적과 마찬가지로 촘촘한 간격의

61) 李亨源, 1998, 「口脣刻目土器의 變遷과 性格에 대하여-無文土器를 中心으로」, 『百濟研究』 第28輯, 忠南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p.327.

62) 李弘鐘, 2005, 「松菊里文化의 文化接觸과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 第48號.

63) 朴근태, 2011, 「제주도 영선동식토기 연구」 『濟州道研究』 35집, p.159.

구순각목문이 주로 확인되는데 구순부에 각목이 일주하지 않고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 보인다. 아마도 각목문이 퇴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산리유적에서는 모두 11점의 구순각목문토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구연부편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양상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1cm내외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상모리유적이나 삼화지구 유적에 비해 각목 간격이 넓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산리유적은 송국리식 주거지가 확인되는 유적으로 무문양의 발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가 주로 출토된다. 다른 문양요소는 모두 사라지고 구순각목문 구연부편만 소량 확인되고 있는데 문양 소멸기의 양상으로 판단된다. 각목간격이 넓어지는 현상도 구순각목문의 퇴화 현상이라고 추정된다.

⑤ 橫帶區劃文

횡대구획문은 二條의 횡침선을 시문한 후 그 사이에 사선문 등의 문양을 채운 것을 말한다. 이외에 多條의 횡침선이 시문된 것, 一條의 횡침선만으로 횡대구획을 의도한 것도 횡대구획문토기에 포함될 수 있다. 횡대구획문은 기존의 토기 문양과는 이질적이어서 외래계토기로 판단되는데 시간적 위치에 대해서는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하는 견해⁶⁴⁾와 조기부터 성립되었다는 견해⁶⁵⁾가 있다.

횡대구획문이 시문되는 토기는 外反口緣(臺附)甕을 비롯하여 호형토기, 심발형토기, 마연토기 등 다양하다. 시문위치도 구연부나 동체부에 시문되어 청동기시대 토기가 구연부에만 문양이 시문되는 것과 비교할만 하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횡대구획문은 대부분 마연호의 구연부나 동체부에 시문되고 있다. 문양은 동하부에 四條의 횡침선 사이에 거치문이 새겨진 경우와 동상부에 二條의 횡침선 사이에 사격자문이 새겨진 경우, 구연부에 三條의 횡침선만 새겨지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문양요소의 변화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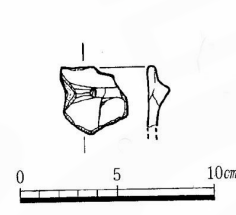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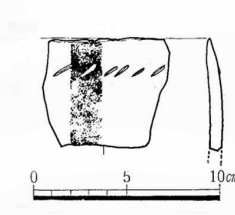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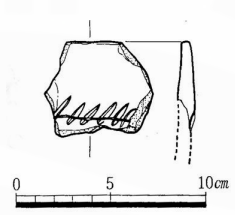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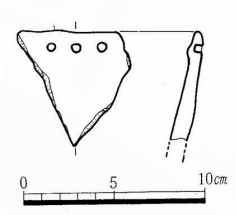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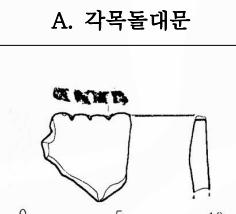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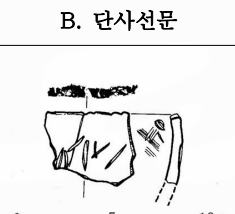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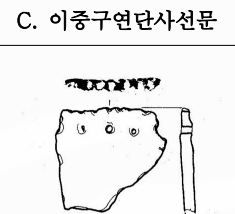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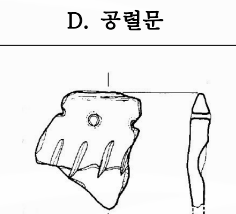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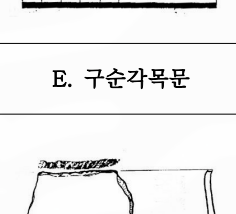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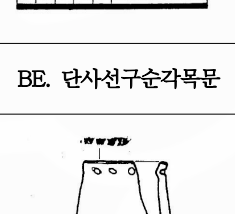
무문토기의 문양요소가 복합문양에서 단순문양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이미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제주도에서도 최근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복합문양 중심의 유적과 단순문양 중심의 유적이 구분되어 여러 보고서에서 이미 그 시간성이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 청동기시대의 구체적인 편년이 제시되기 위해선 유적별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가능한 문양요소들을 살펴보면 A. 각목돌대문, B. 단사선문, C. 이중구연단사선문, D.공렬문, E. 구순각목문, BE. 단사선구순각목문, DE. 공렬구순각목문,

64) 裴眞晟, 2007, 전개서.

65) 김현식, 2008b, 전개서.

金炳燮, 2009, 전개서.

			
A. 각목돌대문	B. 단사선문	C. 이중구연단사선문	D. 공렬문
			
E. 구순각목문	BE. 단사선구순각목문	DE. 공렬구순각목문	CD.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CE.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BDE.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CDE.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F. 횡대구획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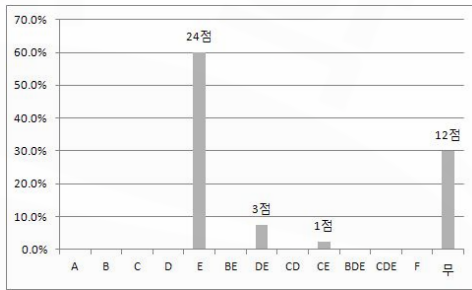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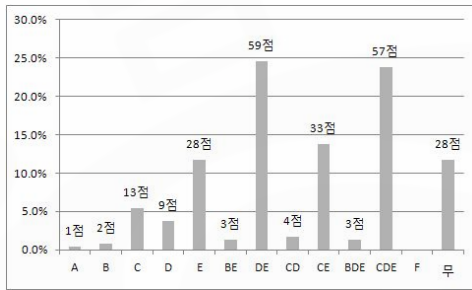
도면 11. 문양요소의 분류

CD.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CE.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BDE.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CDE.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F. 횡대구획문 등이 있다.

① 상모리유적⁶⁶⁾

상모리유적에서 검토대상이 되는 발형과 호형 토기의 구연부편 또는 完形토기는 총 240점이다. 확인되는 문양요소로는 각목돌대문, 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공렬문, 구순각목문, 단사선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이 있어 제주도의 청동기시대 유적 중 가장 다양한 문양요소가 출토되고 있

66) 상모리유적에 관한 토기문양분석은 이미 이청규(1995)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고에서는 당시의 분석을 보완하여 인용하였다.



도면 12. 상모리유적의 문양별 토기출 토현황(발형) 도면 13. 상모리유적의 문양별 토기출 토현황(호형)

다. 각 문양별 출토비율을 살펴보면 공렬구순각목문(DE)과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이 각각 22.1%(62점), 20.4%(57점)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구순각목문(E)과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이 18.6%(52점), 12.1%(34점)로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무문양토기는 전체의 14.3%(40점)로 상모리유적은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무문양토기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독문양으로는 구순각목문(E)이 18.6%(52점)로 가장 많으며 구순각목문이 복합 시문된 토기까지 다 합치면(E, BE, DE, CE, BDE, CDE) 75.4%(211점)를 차지해 상모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중 가장 다양한 문양요소와 결합되는 문양이 구순각목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렬문, 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과 이중구연단사선문이나 단사선문이 결합된 복합문(CD, CE, BDE, CDE)의 출토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의 35%(98점)에 이르고 있다. 한 토기 내에 여러 가지 문양요소들이 복합 시문되는 경우가 많고, 복합 시문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요소들이 공반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상모리유적은 매우 다양한 문양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되는 한반도에서도 보기드문 유적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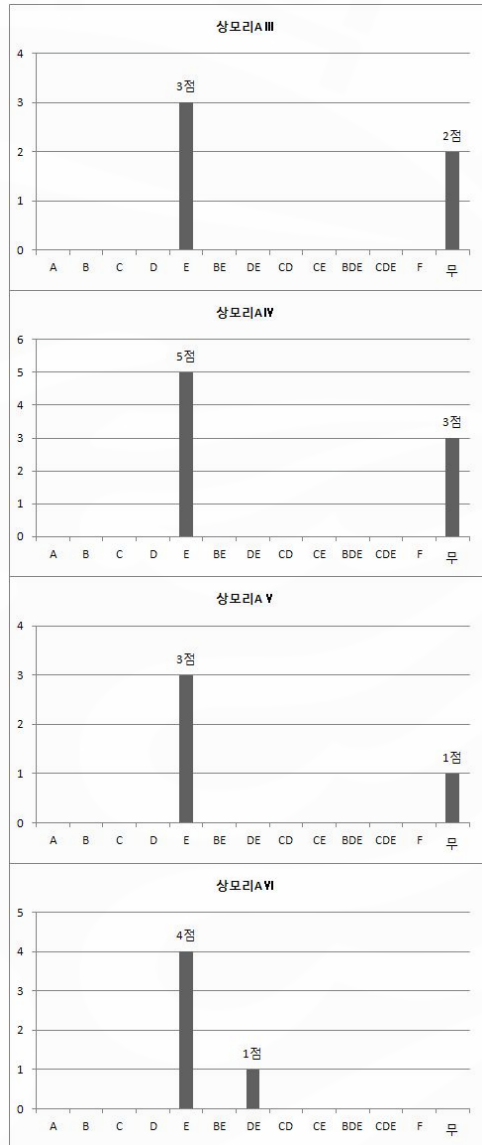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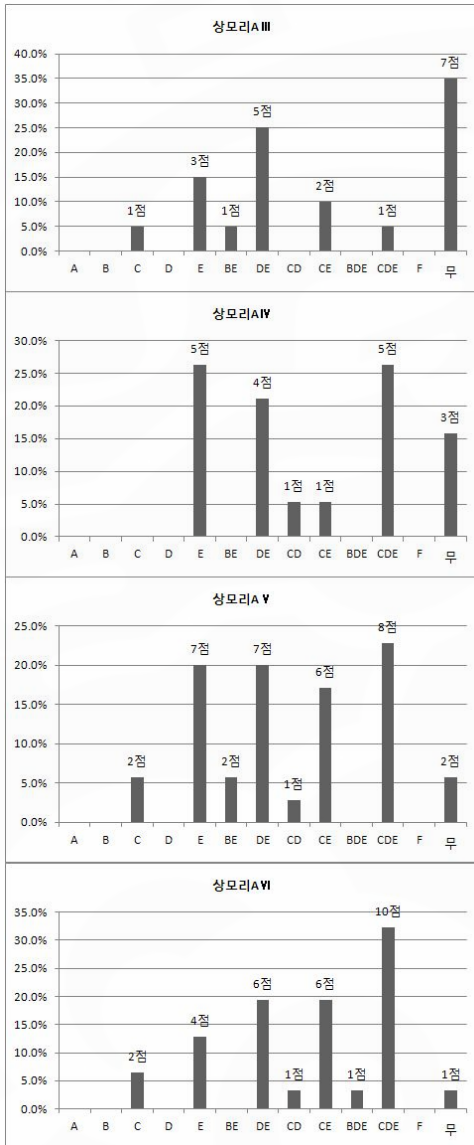
토기의 문양요소는 발형토기⁶⁷⁾와 호형토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호형토기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거나 시문되더라도 발형토기에 비해 단순하게 시문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형에 시문되는 문양요소들의 변화양상도 다른 관점에서 관찰해야 변화상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발형토기에는 상모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문양요소가 모두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양별 비율도 전체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호형토기에서 확인되는 문양요소는 구순각목문(E), 공렬구순각목문(DE),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만 확인되고 있다. 이중 구순각목문(E)이 전체의 60%(24점)를 차지하고

67) 심발형토기가 대부분일 거라고 추정하지만 대부분 편으로 남아있어 기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발형토기로 부르도록 하겠다.

있어 호형토기에 가장 많이 시문되는 문양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른 문양에도 구순각목문이 결합되어 있어 호형토기의 모든 문양은 구순각목문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호형토기에는 무문양토기가 30%(12점)를 차지하고 있어 발형토기에 무문양이 11.7%(28점) 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상모리유적은 A, B, C, D지구로 구분되는데 지구별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토기문양요소의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A지구는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모리유적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층위상에서 출토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문양요소의 시간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지구에서 토기가 확인되는 층위는 III층부터 VI층까지이다. 발형토기의 층위 간 출토비율부터 살펴보면 우선 VI층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이 32.3%(10점)로 가장 많이 출토되는 가운데 공렬구순각목문(DE)과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이 비교적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V층에도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의 비율이 22.9%(8점)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공렬구순각목문(DE)과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이 VI층과 마찬가지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구순각목문(E)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VI층과 V층은 출토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 공렬구순각목문(DE), 구순각목문(E)이 타 문양에 비해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무문양토기가 많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IV층은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이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의 비율이 V, VI층에 비해 낮아진다. 구순각목문(E)과 공렬구순각목문(DE)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무문양토기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III층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무문양토기가 35%(7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순각목문(E)과 공렬구순각목문(DE)의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의 비율은 IV층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다.

호형토기는 전체적으로 출토량이 적어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미세한 변화의 양상은 보여지고 있다. VI의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구순각목문(E)이 4점, 공렬구순각목문(DE)이 1점 출토되었으며 무문양의 호형토기는 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V층은 구순각목문(E)이 3점, 무문양토기가 1점 확인되었다. 다만 V층에서 확인되는 무문양토기 1점은 기고 5cm정도의 소형토기로 문양을 시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일상용기로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형의 호형토기를 제외한다면 V층에서도 무문양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IV층에서는 구순각목문(E) 5점과 함께 무문양토기가 3점 확인되었고 III층에서도 구순각목문(E) 3점과 함께 무문양토기 2점이 함께 출토되었다. 즉 호형토기는 IV층과 III층에서 무문양토기가 증가한다는 변화양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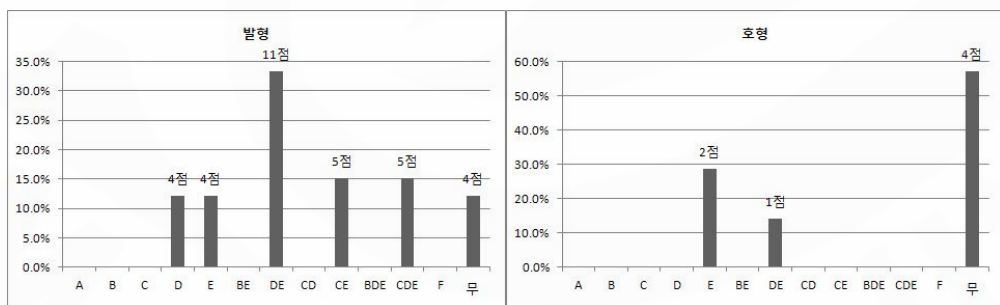
도면 14. A지구 층위별 현황도(발형) 도면 15. A지구 층위별 현황도(호형)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형토기에 있어 VI층과 V층이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IV층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이 줄어들고 무문양토기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III층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이 급격히 줄어들고 무문양토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즉 IV층부터는 이중구연단사선문과 관련된 문양요소(C, CD, CE, BDE, CDE)가 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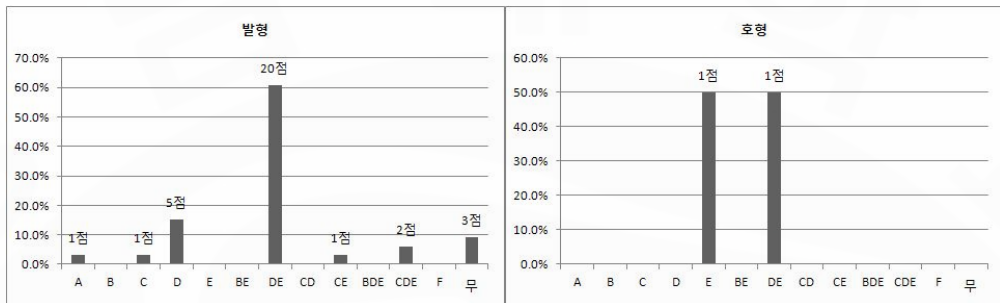
히 감소하다가 Ⅲ층에서는 매우 소량만 확인되고 있으며 무문양토기는 그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Ⅳ층부터 이중구연단사선문과 관련된 문양요소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V층과 Ⅳ층을 경계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지만 Ⅳ층에서도 여전히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의 비중이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VI층, V층과 같은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호형토기에서 VI층, V층과 Ⅳ층, Ⅲ층의 양상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어 V층과 Ⅳ층을 경계로 구분 지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분석 가능한 출토량이 적어 발형토기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Ⅳ층은 전체적으로 발형과 호형토기 모두 무문양토기가 증가하고 발형토기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과 관련된 요소들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B지구에서는 I층, II층, Ⅲ층에서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데 I층과 II층에서는 출토량이 매우 적어 층위간 변화를 논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전체적인 출토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B지구 발형토기 중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것은 공렬구순각목문(DE)으로 전체의 33.3%(11점)를 차지한다. 그 외에는 공렬문(D), 구순각목문(E),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 무문양토기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토되고 있다. 호형토기는 무문양토기가 4점으로 가장 많고 구순각목문(E)이 2점, 공렬구순각목문(DE)이 1점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발형토기에서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과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이 합쳐서 30%를 넘고 있어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문양토기도 A지구의 VI층과 V층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어 A지구의 Ⅳ층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판단된다. 호형토기의 경우도 무문양토기의 비중이 높기는 하나 A지구의 Ⅳ층, Ⅲ층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상모리 B지구는 이중구연단사선문 요소가 감소하고 무문양토기가 증가하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추정된다.

상모리 C지구는 발형토기만 7점 확인되었는데 그중 구순각목문(E)이 2점, 무문양토기가 5점이다. C지구는 출토량이 너무 적어 정확한 양상을 알 수는 없지만



도면 16. 상모리 B지구 문양별 토기출토 현황도



도면 17. 상모리 D지구 문양별 토기출토 현황도

A지구의 Ⅲ층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늦은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상모리 D지구의 발형토기를 살펴보면 공렬구순각목문이 60.6%(20점)로 타 문양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 외에는 공렬문(D)이 5점 확인되며 이중구연단사선문(C),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CE),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이 각각 1점, 1점, 2점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중구연단사선문과 관련된 문양요소가 거의 소멸되는 모습을 보인다.

D지구는 무문양토기가 많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중구연단사선문 관련 문양요소가 매우 소량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A지구 Ⅲ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② 하모리 유적

하모리유적에서 검토대상이 되는 토기는 발형토기를 중심으로 일부 외반구연토기도 포함되며, 수혈유구에서 확인되는 토기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하모리유적에서 호형토기라고 할 수 있는 구연부편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대체로 외반구연토기를 호형으로 분리하는게 일반적이며 외반구연토기가 호형토기에서 변화했다고 보기도 하지만⁶⁸⁾ 주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확인되는 호형토기와 그 이후에 주로 확인되는 외반구연토기는 형태와 기능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호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를 구분하도록 하겠다.⁶⁹⁾ 또한 제주도 무문토기에서 확인되는 외반구연토기가 송국리계와 삼양동계로 구분된다 것은 앞에서 이

68) 안재호는 직립한 장경의 구연을 갖는 호형토기가 짧게 외반되는 송국리식토기로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 (安在皓,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11, p.18.

69) 청동기시대 전기에 주로 확인되는 호형토기는 둥근 동체에 길고 곧은 직립경을 가지며 경부와 견부의 경계가 뚜렷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외반구연토기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짧게 외반되는 구연부를 가지며 견부가 뚜렷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호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의 구분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기의 호형토기가 대체로 저장용이고 후기의 외반구연토기는 생활 및 자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두 토기는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박상윤, 2011, 전계서, P.5.)

번호	유구번호	발형토기				외반구연 토기 (삼)
		DE	D	E	무	
1	1-2호수혈	●1		●4		
2	2호수혈Ⅱ층	●6	●1	●9	●1	
3	3호수혈			●4	●2	
4	1-3호수혈		●1		●4	
5	1-1호수혈				●6	
6	1-4호수혈				●3	
7	2호수혈Ⅰ층				●4	●1

표 1. 하모리유적 토기문양 속성분석표

미 설명한 바 있다.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는 대체로 초기철기시대로 편년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 대상이지만 검토대상의 유구에서 발형토기와 공반되어 시기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모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문양요소는 공렬구순각목문(DE), 공렬문(D), 구순각목문(E)이다. 상모리유적에 비해 매우 단순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검토대상이 되는 수혈유구는 모두 7기이며 구연부편은 총 47점이다. 검토대상의 토기중에서는 무문양토기가 21점으로 가장 많으며, 구순각목문(E)이 17점, 공렬구순각목문(DE)이 7점, 공렬문(D)이 2점 확인되고 있다.

각 수혈별로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별된다. 첫 번째 양상은 문양이 시문된 토기만 확인되거나 무문양토기가 소량 공반되는 양상이다. 1-2호 수혈유구에서는 공렬구순각목문(DE)과 구순각목문(E)만 확인되어 무문양토기는 출토되지 않으며, 2호 수혈유구 Ⅱ층과 3호 수혈유구에서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 다수에 소량의 무문양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문양은 대체적으로 구순각목문(E)이 많으며 공렬문(D)은 매우 소량만 확인된다. 두 번째는 무문양토기 위주로 출토되는 양상이다. 1-3호 수혈유구에서는 공렬문(D)이 한 점 출토되기는 했지만 무문양토기가 4점 확인되어 압도적인 출토량을 보이고 1-1호 수혈유구, 1-4호 수혈유구, 2호 수혈유구 Ⅰ층에서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두 양상의 순서는 2호 수혈유구의 층위상에서 확인된다. 2호 수혈유구는 2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상층인 Ⅰ층에서는 무문양토기만 확인되며, 하층인 Ⅱ층에서는 구순각목문(E) 9점, 공렬구순각목문(DE) 6점 등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압도적으로 출토되어 무문양토기만 확인되는 두 번째 양상이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1-1호 수혈유구와 1-2호 수혈유구의 중복관계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 해

준다. 1-1호 수혈유구가 1-2호 수혈유구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는데 1-2호 수혈 유구에서는 무문양토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1-1호 수혈유구에서는 무문양토기만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하모리유적은 크게 2시기로 구분되는데 공렬구순각목문(DE), 공렬문(D), 구순각목문(E)이 주로 확인되는 이른 시기(하모리 1기)와 문양요소가 거의 사라지고 무문양토기가 압도적인 양상을 보이는 늦은 시기(하모리 2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2호 수혈유구 I 층에서는 외반구연토기가 공반되는데 삼양동계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문양토기만 확인되는 하모리의 늦은 시기는 송국리계와는 다른 새로운 성형기술의 외반구연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일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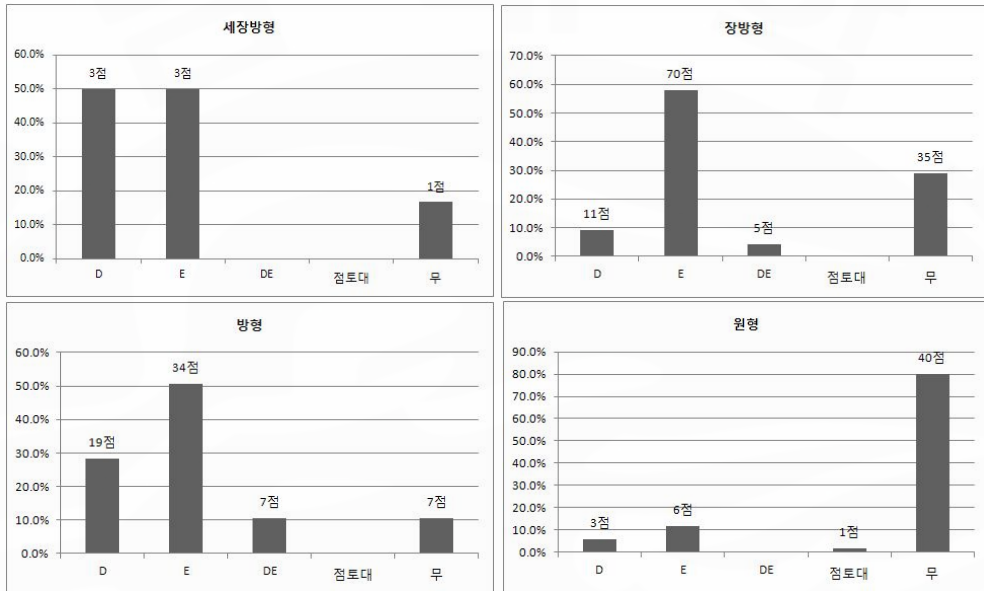
③ 주거지 출토토기 문양요소 변화 검토

앞에서 살펴본 상모리유적과 하모리유적은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별로 살펴보았다. 물론 하모리유적의 1-1호 수혈유구와 1-2호 수혈유구는 면적이 비교적 넓어 주거지로 추정되기도 하나 유구의 중복으로 인한 파괴가 심해 주거지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주거지로 분류하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주거지가 확인되는 유적은 고산리유적, 용담 월성로유적, 삼양2동 2132-1번지 내 유적, 제주세무서 직원사택 부지 내 유적, 삼화지구유적,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내 유적 등이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원형 등이고 검토대상이 되는 주거지의 수는 총 68기이다. 뒤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의 주거지는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확인되는 중·대형의 주거지가 아닌 모두 소형의 주거지임을 미리 밝힌다.

토기는 크게 발형, 호형, 외반구연토기로 구분하였고 외반구연토기는 다시 송국리계와 삼양동계로 나누었다. 호형토기와 외반구연토기가 구연부편만 남았을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형토기의 제작시 견부와 경부를 다른 점토판을 사용하여 접합시킨다는 점에서 견부와 경부의 경계지점에서 파손된 구연부편일 경우 호형토기로, 구연부가 외반된 부분의 밑에서 파손된 편일 경우 외반구연토기로 구분하였다. 다만 그마저도 애매한 형태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다소 작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검토대상이 되는 토기는 총314점이며 이 중 발형토기가 252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호형토기는 29점,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는 22점,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는 11점을 차지하고 있다. 발형토기에 시문되는 토기문양은 공렬구순각목문(DE), 공렬문(D), 구순각목문(E)이 주로 확인되며 이 외에도 이중구연단사선문(C)과 관련된 요소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대부분 파손이 심하고 수량



도면 18. 주거지 평면형태별 토기출토 현황도

이 너무 적어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이한 점은 원형점토대토기가 1점 확인되고 있는데 삼양동선사유적에서 삼양동계 외반구연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의 공반 사례⁷⁰⁾가 있어 초기철기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등장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주거지의 평면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문양요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의 주거지에서는 대부분 공렬문(D)과 구순각목문(E)이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고 무문양의 발형토기는 1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각 주거지 형태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양상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반면 원형주거지에서도 공렬문(D)과 구순각목문(E)토기가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문양의 발형토기가 80%를 차지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의 증가와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 역시 원형주거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가 원형주거지의 유입과 함께 등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아직 제주도 송국리 문화의 양상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아⁷¹⁾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고산리 유적과 광지리(1808-5번지)유적⁷²⁾에서 확인된 송국리문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삼양동계외반구

70)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三陽洞遺蹟』.

71) 제주도에서 송국리식 주거지는 삼양동, 화순리, 예래동 등의 대규모의 취락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철기시대 이후로 편년되고 있다.

7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광지리 1808-5번지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연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는 같은 송국리식 주거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청동기시대의 유물이라기 보다는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양상으로 보여진다.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의 목탄시료 AMS 분석결과 2σ 에 의해 산출된 교정연대가 모두 B.C.4세기 이후로 나타내고 있어 이 주거지들은 초기철기시대의 유구로 보는게 타당할 듯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거지 평면형태에 따른 토기 문양요소의 변화양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양상은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공렬(D), 구순각목문(E)이 시문된 발형의 토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 양상은 원형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무문양의 발형토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되며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가 증가하고 원형점토대토기,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가 등장한다. 하모리유적의 층위와 유구 중복관계에서도 밝혀졌듯이 공렬문과 구순각목문 등이 많이 확인되는 첫 번째 양상이 앞선 시기이고, 무문양의 발형토기가 압도적인 두 번째 양상이 늦은 시기라고 판단된다.

번호	유구번호	평면형태	발형토기					호형토기		외반구연토기		
			D	E	DE	점토대	무	E	무	송국리계		삼양동계
1	삼화가 I 22	세장방형		1			1					
2	삼화가 I 27	세장방형	3	1								
3	삼화가 I 31	세장방형		1								
4	삼화가 I 1	장방형		1								
5	삼화가 I 7	장방형		3			2					
6	삼화가 I 8	장방형	1				1					
7	삼화가 I 10	장방형	2	3			3		2			
8	삼화가 I 11	장방형		4	1		1					
9	삼화가 I 12	장방형	2		1							
10	삼화가 I 20	장방형		7								
11	삼화가 I 21	장방형					1					
12	삼화가 I 28	장방형	1	3			1					
13	삼화가 I 30	장방형	2	5			1				1	
14	삼화가 I 34	장방형		6	2			1	3			
15	삼화가 I 43	장방형					2				1	
16	삼화가 I 44	(장)방형	1	1			1				1	
17	삼화가 I 45	장방형					1					
18	삼화나Ⅲ-1 2	장방형		5			6					
19	삼화나Ⅲ-3 1	장방형		1					1			
20	삼화나Ⅲ-3 5	장방형					1					
21	삼화나Ⅲ-3 18	장방형		3			2		1		1	
22	삼양주민센터 1	장방형					2					
23	삼양세무서 1	장방형		18	1		3	1	1			

번호	유구번호	평면형태	발형토기					호형토기		외반구연토기		
			D	E	DE	점토대	무	E	무	송국리계		삼양동계
24	용담 월성로	장방형					2		2			
25	삼화가 I 5	말각장방형		1								
26	삼화가 I 6	말각장방형	1	7			5					
27	삼화가 I 14	말각장방형							1			
28	삼양주민센터 2	말각장방형		1								
29	삼양2132-1 1	말각장방형	1	1							1	
30	삼화가 I 9	방형	1				1					
31	삼화가 I 17	방형	1	3	1						1	
32	삼화가 I 19	방형			1							
33	삼화가 I 29	방형					1					
34	삼화가 I 32	방형	3					1				
35	삼화가 I 33	방형		7			2	1	1			
36	삼화가 I 35	방형	1	2				3	1			
37	삼화가 I 42	방형			2		1					
38	삼화가 I 47	방형						1				
39	삼화가 I 49	방형	3				1					
40	삼화나Ⅲ-1 3	방형	1	1								
41	삼화나Ⅲ-1 4	방형	2	2			1					
42	삼화나Ⅲ-1 5	방형		1					1			
43	삼화나Ⅲ-3 2	방형	4	4	1							
44	삼화나Ⅲ-3 7	방형	1	1								
45	삼화나Ⅲ-3 9	방형		4						1		
46	삼화나Ⅲ-3 10	방형			1							

번호	유구번호	평면형태	발형토기					호형토기		외반구연토기		삼양동계
			D	E	DE	점토대	무	E	무	송국리계	무	
47	삼화나Ⅲ-3 15	방형		2								
48	삼화나Ⅲ-3 16	방형		3								
49	삼화나Ⅲ-3 19	방형	1	1								
50	삼화나Ⅲ-3 20	방형		1								
51	삼양주민센터 4	방형		1								
52	삼화가Ⅰ 16	말각방형	1	1								
53	삼화가Ⅰ 36	말각방형			1							
54	삼화가Ⅰ 48	부정형		1	1							
55	삼양세무서 2	?		3	1		1	1	1			
56	삼양주민센터 6	원형	2	2			7		3			
57	삼화가Ⅰ 23	원형					4					
58	삼화나Ⅰ 1	원형					5	1				
59	고산리Ⅰ 1	원형		1			2				1	
60	고산리Ⅱ 2	원형									2	
61	고산리Ⅱ 3	원형					1					
62	고산리Ⅱ 4	원형									3	
63	고산리Ⅱ 5	원형					3					
64	고산리Ⅱ 9	원형					6					
65	삼양주민센터 5	원형	1	1		1	2					
66	고산리Ⅱ 1	원형		1			4				2	1
67	고산리Ⅱ 7	원형		1			3				2	1
68	고산리Ⅱ 8	원형		1			3				4	9

표 2. 주거지 출토토기 문양요소 속성분석

3) 磨研土器의 검토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에 등장하는 마연토기는 紅陶, 붉은 간토기, 赤色磨研土器 등으로 불리는데 매우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여 성형한 후 기면에 붉은 丹을 바르고 마연한 뒤 소성한 토기로 붉은 색의 윤택이 난다.⁷³⁾ 하지만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마연토기 중에는 표면이 흑색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깨어진 단면 확인결과 검정색 표피 바로 안쪽에 적황색의 內皮가 있고 내심은 회갈색을 띠고 있어 의도적으로 불완전 연소시켜 흑색기면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⁷⁴⁾ 이러한 경우 紅陶 또는 赤色磨研土器로 부르기에는 다소 부적합하여 통칭으로 ‘마연토기’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제주도 마연토기의 특징은 흑색 내지 흑갈색의 기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흑색기면의 마연토기는 초기철기시대의 黑色磨研土器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기형은 흑색마연토기보다 전형적인 적색마연토기와 비슷하고 공반유물 또한 공렬문토기나 구순각목문토기가 확인되고 있어 흑색마연토기와는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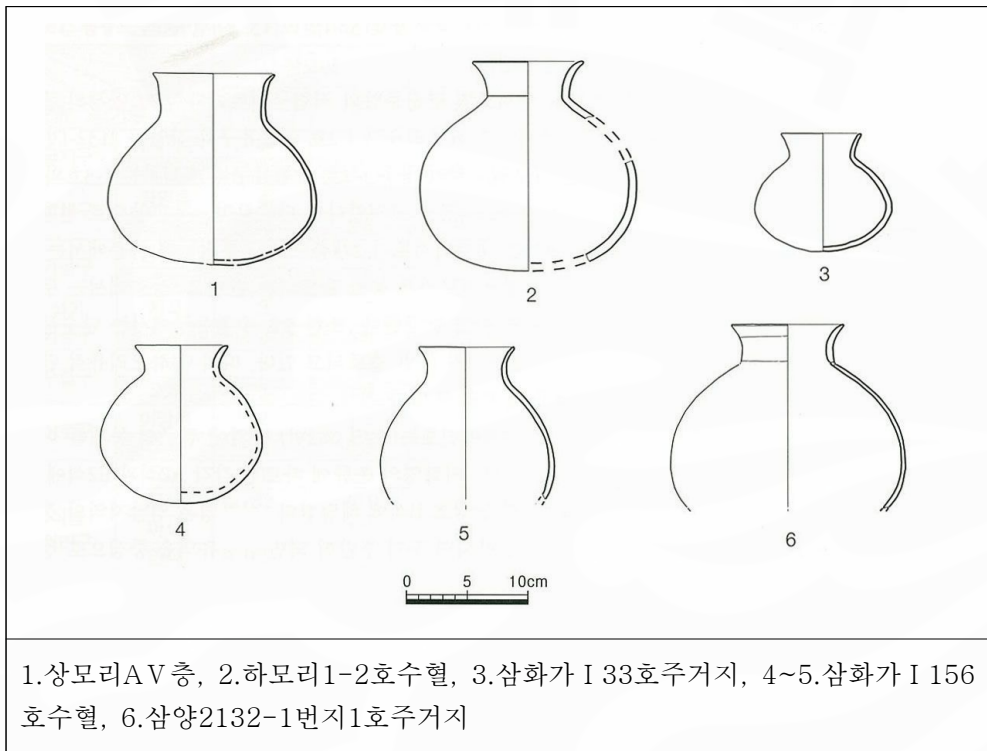
마연토기의 기종에는 호형토기가 중심이었으나 대부발, 대부호, 완, 소옹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기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⁵⁾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마연토기에도 발형, 웅형 등으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 확인되어 마연토기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完形の 사례가 없어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그나마 기형이 잘 남아 있는 圓底壺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연토기는 주로 분묘유적에서 확인되어 부장용 또는 의례용으로 그 용도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묘 이외에 주거지 등 생활유적에서도 마연토기의 출토량이 증가하고 臺附鉢이나 臺附壺의 경우에는 무덤에서 출토사례가 없어 실생활에도 어느 정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에서는 용담동고분 남쪽묘역 석곽묘를 제외하고는 분묘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부장용으로서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반면 대부분의 마연토기가 주거지 및 수혈유구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삼양동의 80여 동에 이르는 (장)방형 주거지 중 19동의 주거지에서 마연토기가 확인되어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삼화지구 가I 유적의 156호 수혈유구에서는 22점의 마연토기 구연부편과 다수의 저부편이 이단병식 석검편과 공반 출토되었는데 마연토기와 석검의 공반출토는 주로 분묘에서 부장품의 조합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156호 수혈도 죽은자를 위한 제의적인 성격의

73) 河仁秀, 1989, 전개서, p.3.

74) 濟州大學校博物館, 1989, 『龍潭洞 古墳』, p.34.

75) 김미영, 2010, 「적색마연토기의 변천과 분포에 대한 연구-원저호를 중심으로-」, 『경남연구』 제2집,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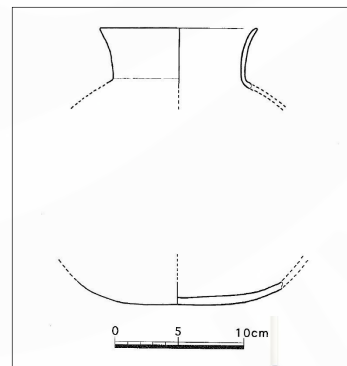


도면 19. 제주도 마연토기(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c, 수정 후 인용)

유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마연토기의 저부편들은 圓底와 함께 平底도 다수 확인되어 두 형태가 고루 분포한 것으로 판단되나 完形으로 출토되는 마연토기는 모두 원저의 형태만 확인돼 원저호를 중심으로 기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모리AV층에서 확인되는 원저호의 동체부는 扁球의 형태이며 구연부는 축약되는 경부에서 직립에 가깝게 올라가다 구연 상단에서 살짝 외반한다. 산청사월리 11호주거지 출토품과 거의 유사한 기형으로 판단되는데 이 주거지에서는 이중 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토기를 비롯한 공렬구순각목문(DE), 공렬문(D)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상모리AV층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물 공반상이 확인되어 두 마연토기는 동일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하인수는 이러한 기형을 소형 I 류 또는 대형 AI 류로 구분하



도면 20. 산청사월리 11호

분류	I 식	II 식		III 식	IV 식
		a	b		
형태					

도면 21. 적색마연호의 형식분류(宋永鎮 2003)

고 있는데 당시 그의 자료 중 가장 오래된 형식에 해당한다.⁷⁶⁾ 또한 송영진 역시 이러한 형태의 기형을 적색마연호 I 식으로 분류하고 역삼동유형 일부와 혼암리유형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⁷⁷⁾ 상모리AV층 마연토기의 출토양상과 부합되고 있다.

하모리 1-2호수혈 출토품과 삼양2132-1번지 1호 주거지⁷⁸⁾의 출토품은 동일 기형으로 판단되며, 각 유구에서 공반출토되는 토기도 공렬문(D)토기, 구순각목문(E)토기 등이 확인되어 동일 시기의 유구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 기형은 圓底나 말각평저의 저부를 가지며 동체부는 扁球의 형태를 하고 있다. 동체부와 구경부의 구분이 뚜렷하며 경부는 직립하거나 살짝 외반하고 구연부에서 급하게 외반된다. 이 기형은 이화영 분류 A2식, 송영진의 적색마연호 IIa식과 유사한데 이화영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이른 시기로 판단하고, 송영진은 적색마연토기 4단계로 선송국리유형의 시기로 보고 있다.⁷⁹⁾ 하모리 1-2호수혈과 삼양동 2132-1번지 1호주거지의 유물 출토양상을 보면 상모리AV층의 복합문보다는 시기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단순문의 토기가 확인되고 있어 적어도 하모리 1-2호수혈과 삼양동 2132-1번지 1호 주거지가 전기의 이른 시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전기 후반부나 후기 전반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선송국리유형을 전기 말부터 후기의 이른 시기로 편년하는 경향을 봤을 때 이 단계와 비슷한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즉 하모리 1-2호 수혈과

76) 河仁秀, 1989, 전개서, P.4.

77) 宋永鎮, 2003, 『赤色磨研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47.

78) 보고서에는 1호수혈유구로 보고되어 있으나 규모나 내부주혈의 배치 등 여러 정황상 주거지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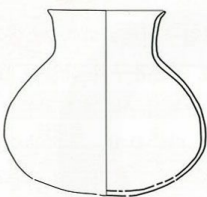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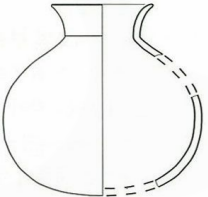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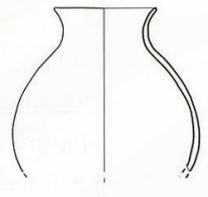
79) 李花英, 2008, 전개서, p.74.

宋永鎮, 2003, 전개서, p.47.

삼양동 2132-1번지 1호 주거지 출토 마연토기는 송영진의 적색마연호 IIa식에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

삼화지구 가I 구역의 33호 주거지와 156호 수혈유구에서 확인되는 마연토기 중 <도면 19-3>과 <도면 19-4>는 하모리 1-2호 수혈 출토품에 비해 경부와 동체부의 연결이 다소 부드러워지고 크기가 작아지긴 했지만 기형면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 하지만 <도면 19-5>는 동체부에서 구연부까지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이어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동체부는 球形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9-5>는 이화영의 적색마연호 E2식⁸⁰⁾, 송영진의 적색마연호 III식⁸¹⁾과 매우 유사하며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되어지고 있다. 삼화지구 가I 구역의 156호 수혈에서 마연토기들과 함께 공반되고 있는 유물은 공렬구순각목문(DE)토기, 구순각목문(E)토기, 이단병식마제석검 병부편이 있다. 柄部에 형성된 段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마제석검편이 두 점 확인되는데 한 점은 단이 얇게 형성되어 있고, 다른 한 점은 병부 측면에만 홈을 만든 형태로 段이 퇴화된 형식이다. 황현진에 의하면 전자는 Ib식, 후자는 Ic식에 해당하는데 Ib식은 동해안지역 1기, Ic식은 동해안지역 2기로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⁸²⁾ Ic식의 석검은 포월리 단계의 석검으로 후기로 편년되는데 <도면 19-5>의 마연토기와 함께 늦은 시기까지 잔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마연토기는 크게 세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I 형식은 축약되는 경부에서 직립에 가깝게 올라가다 구연단에서 살짝 외반된다. 경부는 다른 형식에 비해 긴 편이다. 圓底나 抹角平底의 저부를 가지며 동체부는 扁球의 형태를 하고 있다. II 형식은 동체와 경부의 구분이

형 식	I 식	II 식	III 식
도 면			
출토유구	상모리AV층	하모리1-2호수혈	삼화가 I 156호수혈

도면 22. 마연토기 형식분류

80) 李花英, 2008, 전개서, pp.43~44.

81) 宋永鎮, 2003, 전개서, p.26.

82) 黃炫眞, 2004, 전개서, pp.35~36.

뚜렷하며 경부는 직립 또는 살짝 외경하고 구연부에서 급하게 외반된다. 경부의 길이는 I 식에 비해 짧다. Ⅲ형식은 球나 扁球상의 동체부를 가지며 동체부와 경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구연부는 짧게 외반된다. I→Ⅱ→Ⅲ식의 시간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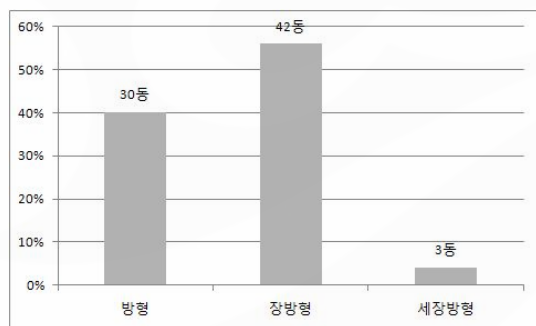
2. 주거지의 검토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주거지는 (장)방형계와 원형계로 구분 할 수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방형계와 원형계의 주거지는 출토유물양상에서 차이를 보여 다른 시기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장)방형주거지의 검토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중 (장)방형주거지는 조기와 전기를 중심으로 원형주거지는 후기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장)방형주거지도 지역에 따라 늦은 시기까지 이어지는데 다만 규모와 내부시설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방형주거지는 장단비에 따라 방형·장방형·세장방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의 형식은 유형별로 또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기 이전의 중·대형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 소형주거지에서는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제주도에서 확인되고 있는 (장)방형주거지도 세부적으로 방형·장방형·세장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³⁾ 각 형식 중 장방형주거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방형주거지도 40%에 이르러 적지 않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세장방형은 단 3동만 확인되고 있어 주류의 형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2>를 참고하면 이러한 평면형태에 따른 분류에 있어 출토유물의 양상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각 평면형태의 주거지들은 모두 동일 시기로 판단되어 지는데 조·전기에 확인되는 남한지방 주거지의 평면형태에 따른 시기 차이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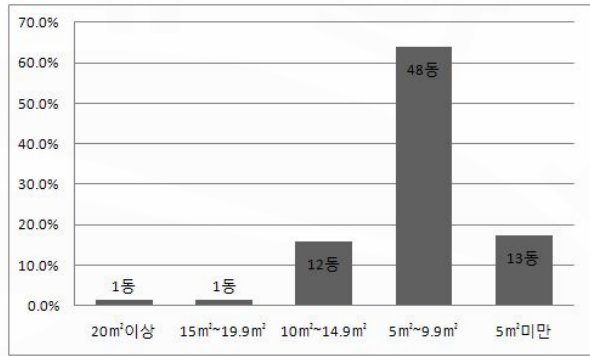


이러한 양상은 이미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장)방형주거지가 청동기

도면 23. (장)방형계주거지 평면형태 분포도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c, 수정 후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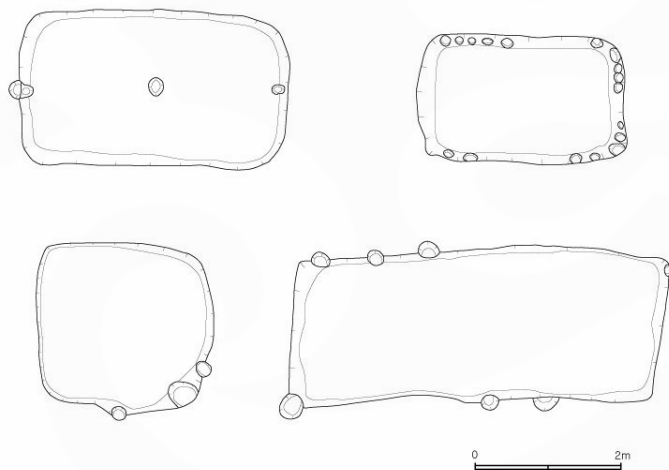
83) 장단비 1.3미만을 방형, 1.3이상~2.3미만을 장방형, 2.3이상을 세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김승옥, 2006b,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第60輯, p.9.

시대 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주거지의 면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장)방형주거지의 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용담월성로유적 1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이하의 소형주거지에 속한다.⁸⁴⁾ 용담월성로유적 1호 주거지는 37.2㎡로 대형주거지에 속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매우 생소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내부 출토 심발형토기는 구연부가 내만하는 Ⅲ식의 토기로 추정되며 문양이 시문된 토기는 보이지 않아 시기가 삼양동에서 확인되는 소형의 장방형주거지들보다 빠를 것 같지는 않다. 삼양동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면적은 대부분 5~10㎡사이에 밀집되어 있고 5㎡미만의 주거지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어 한 세대가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5㎡미만의 초소형주거지들은 한 사람이 겨우 살아갈 정도의 면적으로 사실상 주거지로서 기능을 했을지는 의문이다.⁸⁵⁾ 어쨌든 이러한 소형의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공



도면 24. (장)방형계주거지 면적 분포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내부 출토 심발형토기는 구연부가 내만하는 Ⅲ식의 토기로 추정되며 문양이 시문된 토기는 보이지 않아 시기가 삼양동에서 확인되는 소형의 장방형주거지들보다 빠를 것 같지는 않다. 삼양동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면적은 대부분 5~10㎡사이에 밀집되어 있고 5㎡미만의 주거지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어 한 세대가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5㎡미만의 초소형주거지들은 한 사람이 겨우 살아갈 정도의 면적으로 사실상 주거지로서 기능을 했을지는 의문이다.⁸⁵⁾ 어쨌든 이러한 소형의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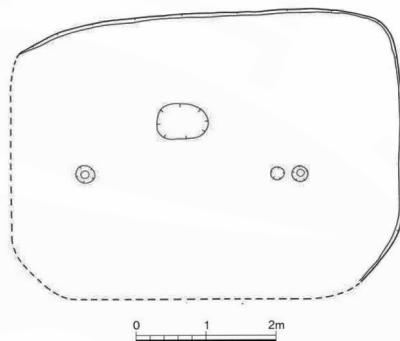
도면 25. 제주도 소형 (장)방형주거지

84) 주거지의 규모는 20㎡이하를 소형, 20㎡이상 30㎡미만을 중형, 30㎡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하였다.(김승욱, 2006b, 전계서, p.9.)

85) 1인당 필요한 주거면적을 5㎡로 보는 견해가 있다.(金正基, 1968, 「韓國竪穴住居址考(一)」,

동거주방식에서 세대단위거주방식으로 바뀌는 후기적 양상으로 볼 수 있어 조·전기와는 다른 생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장)방형주거지의 또 다른 특징은 노지, 저장공 등의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또한 주거지의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주거지의 면적이 작아질수록 노지 및 저장공은 외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확



도면 26. 반송리식주거지

인되는 소형의 (장)방형주거지에서는 노지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등장한다는 사실과 부합한다.⁸⁶⁾ 구례봉북리유적, 보성옥평리유적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출토유물이 뚜렷하지 않아 비교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장)방형주거지와 비교될 만한 양상으로는 화성반송리유적이 있다. 화성반송리유적의 장방형주거지는 대체적으로 10~20m²의 면적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의 소형주거지보다 다소 크기는 하지만 청동기시대 전기의 중·대형의 (세)장방형주거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반송리의 주거지는 노지가 설치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라져 가는 양상을 보이며 특이한 점으로 중앙에 두 개의 주공이 설치되며 타원형수혈이 중심부에서 다소 벗어나 위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 때문에 반송리식주거지가 송국리식주거지의 형성과정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되기도 한다.⁸⁷⁾

반송리에서 확인되는 심발형토기는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이 확인되고 있어 제주도의 장방형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문양요소와 비슷한 듯 보이나 무문양토기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문양이 있는 토기가 다소 우세한 제주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시간적 차이인지 지역적 차이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지역 모두 탈 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2) 원형주거지(송국리식주거지)의 검토

검토대상인 원형주거지는 내부에 타원형수혈이 설치된 송국리식주거지를 말한다. 송국리식주거지는 협의의 의미로 원형의 평면형태에 주거지 중앙에 타원형수

『考古學』 1, pp.31~60)

86) 김승욱, 2006b, 전계서, p.21.

87) 李亨源, 2007,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의 構造와 性格』, 『華城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내 18지점 발굴조사보고서-』, PP.179~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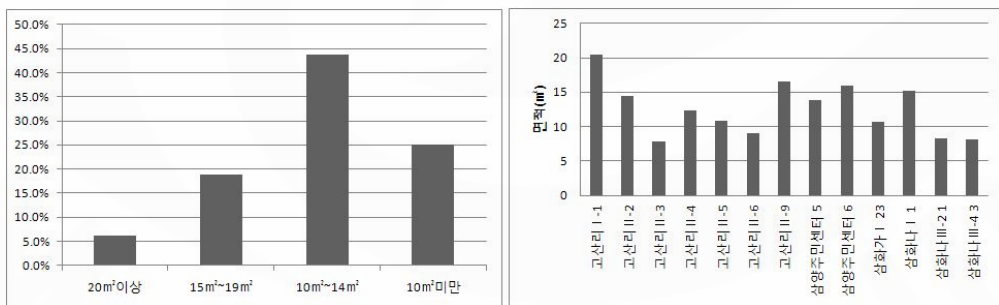
혈이 설치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지만 타원형수혈이 설치된 주거지라면 평면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송국리식주거지로 불리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송국리식주거지는 모두 원형으로 방형계의 송국리식주거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송국리식주거지가 제주도에서는 기원후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청동기시대에 한정되어 있어 초기철기시대나 그 이후로 편년되는 송국리식주거지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판단되는 송국리식주거지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청동기시대로 판단되는 송국리식주거지는 고산리유적, 삼양동주민센터신축부지내유적, 삼화지구유적에서 확인되고 있고,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지만 광지리에서도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가 확인되는 송국리식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삼양동선사유적의 주거지 중 청동기시대로 편년할 수 있는 주거지가 일부 보이고 있으나 출토유물의 공반관계가 불명확해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송국리문화는 B.C.4세기 이후에 수용되어 성행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제주도에도 청동기시대로 편년되는 송국리식주거지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송국리문화의 수용이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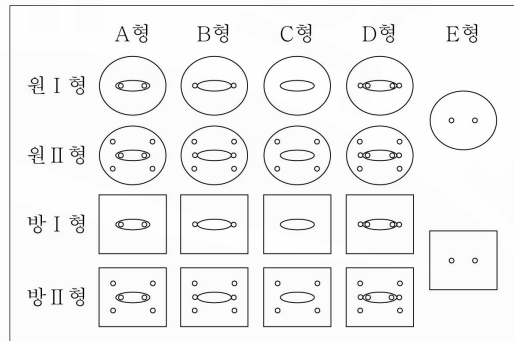
고산리유적, 삼양동주민센터신축부지내유적, 삼화지구유적에서 확인되는 송국리식주거지는 모두 16동이며 이 중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되고 AMS연대가 B.C.4세기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고산리 II-1호, II-7호, II-8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는 13동에 해당한다. 주거지의 면적을 살펴보면 20.4㎡에서 7.9㎡까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10㎡에서 14㎡사이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삼화지구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소형의 (장)방형주거지보다 면적이 넓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송국리식주거지는 평면형태, 타원형수혈과 중심주혈의 배치관계, 4주혈의 추가 배치 여부를 기준으로 형식분류를 할 수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방형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며 타원형수혈과 중심주혈의 배치관계는 타원형수혈 내부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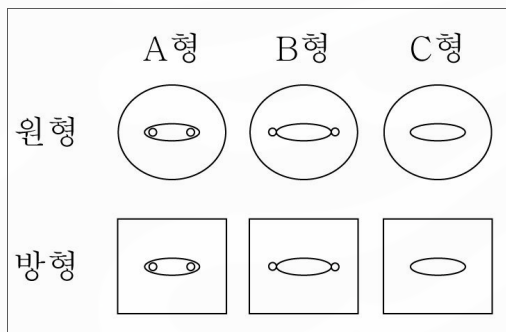


도면 27. 원형주거지 면적 분포도

심주혈이 배치되는 것, 타원형수혈 외부에 배치되는 것, 타원형수혈만 배치된 것, 타원형수혈 내부와 외부 모두에 배치되는 것으로 총 네 가지의 형식이 있다. 여기에 4주혈의 추가배치 여부가 더해져 총 16가지의 형식으로 구분한 것이 김승옥의 형식분류안이다.⁸⁸⁾ 최근 이정진은 김승옥의 형식분류안에 타원형수혈 없이 중심주혈만 배치되는 원형과 방형의 주거지를 추가하여 18가지의 형식분류안을 제시한 바 있다.⁸⁹⁾ <도면 28>은 김승옥의 형식분류안에 E형을 추가한 이정진의 분류안이다. 본 연구에서 형식분류의 목적은 제주도과 남한지방의 송국리식주거지 비교 검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식을 제외하도록 하겠다. 우선 D형은 표본의 절대수가 적고 A형과 B형의 조합된 형식으로 굳이 다른 형식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4주혈의 추가배치는 비교적 면적이 작은 제주도의 주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형주거지의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능적 속성⁹⁰⁾으로 양 지역의 비교에 있어 중요한 속성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E형은 낙동강 중류지역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지만 주류의 형식은 아니며 타 지역에서도 적은 수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형식으로 묶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승옥(2006a)과 이정진(2012)의 형식분류안을 간소화하여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하고 원형과 방형을 나누어 총 6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부 주거지 중 중심주혈이 하나는 타원형수혈 외부에 배치되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 배치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주혈 굴착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굳이 다른 형식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A형이나 B형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 애매하기



도면 28.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분류 모식도
(이정진 2012)



도면 29.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분류

게 문제되지 않는다. 4주혈의 추가배치는 비교적 면적이 작은 제주도의 주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형주거지의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능적 속성⁹⁰⁾으로 양 지역의 비교에 있어 중요한 속성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E형은 낙동강 중류지역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지만 주류의 형식은 아니며 타 지역에서도 적은 수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형식으로 묶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승옥(2006a)과 이정진(2012)의 형식분류안을 간소화하여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하고 원형과 방형을 나누어 총 6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부 주거지 중 중심주혈이 하나는 타원형수혈 외부에 배치되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 배치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주혈 굴착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굳이 다른 형식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A형이나 B형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 애매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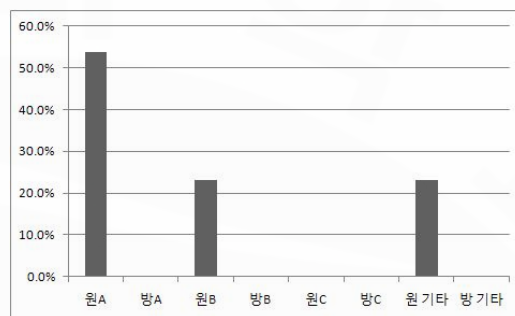
88) 김승옥, 2006a,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湖南考古學報』 24輯, pp.35~36.

89) 이정진, 2012, 『송국리형 주거지의 확산과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9~61.

90) 김승옥, 2006a, 전제서, P.36.

때문에 기타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송국리식주거지는 앞서도 밝혔듯이 방형은 없고 원형만 확인된다. 그 중 A형이 7동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원A형은 제주도 송국리식주거지의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원B형이 3동, 기타가 3동으로 각각 23.1%가 확인되고 있다.



도면 30.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도

아직 제주도에서 청동기시대로 편년되는 송국리식주거지의 표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10~15㎡의 비교적 소형의 면적에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타원형수혈 내부에 중심주혈이 배치되는 형식의 주거지가 주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호남지역 등 일부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벽구시설과 면적의 크기와 관련된 4주혈의 추가배치는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구덩이 평면	A형	B형	C형	기타	합계
원형	7 (53.8%)	3 (23.1%)	0	3 (23.1%)	13 (100%)
방형	0	0	0	0	0
합계	7 (53.8%)	3 (23.1%)	0	3 (23.1%)	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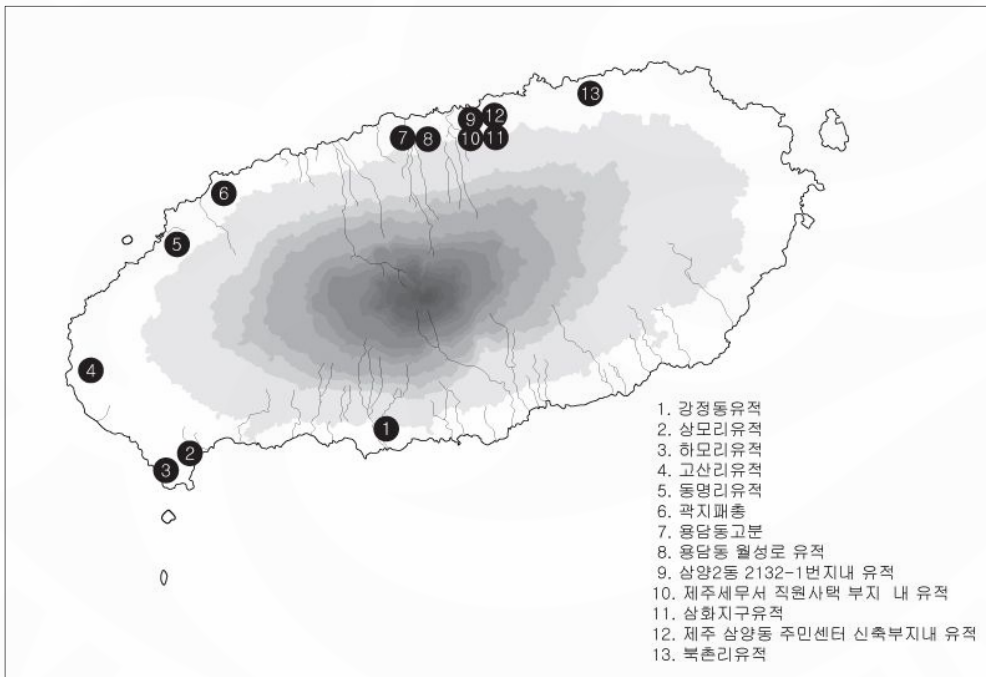
표 3. 제주도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Ⅲ. 제주도의 유적 검토와 편년

1. 개별유적의 검토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해안에서 남쪽으로 100km 가량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동서 73km, 남북 31km로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총면적은 1,820km²로 한반도 주변 다른 섬들보다 월등하게 크다. 섬 중앙에는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의 남서해안 및 부속 島嶼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3°~5°의 매우 완만한 경사이며, 남북사면은 5°정도로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盾狀화산체이다. 해발고도에 따라 200m이하의 해안저지대, 200~400m사이의 중산간지대, 400m이상의 산록지대로 구분된다. 지질구조는 신생대 제4기초의 서귀포층과 제4기말에 형성된 화산쇄설물이 퇴적되어 있는 성산층·신양리층 등의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암, 조면암질안산암 등의 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다.⁹¹⁾ 제주도의 하천은 대부분 乾川으로 飲用水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반면 해발 200m 이하의 해안 저지대를 따라 용천수가 집중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음용수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31. 제주도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도

91) 국립제주박물관, 2001, 『濟州의 歷史와 文化』, p.11.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해안 저지대를 따라 제주도 동북부에서 서남부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보통 내륙 강변에 위치한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특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해안 저지대에 음용수로 이용 가능한 용천수가 집중되고, 양질의 토양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의 토양개황도를 살펴보면 4개군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제주도 동북부에서 서남부에 이르는 해발 100m 미만의 해안 저지대 및 평탄대지에 위치한 동귀-구업-용흥토양군은 용암류평탄지로서 매우 양호한 미사식양질토양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토양군에 비해 양호한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²⁾ 본 장에서 살펴볼 유적은 총 13곳에 이르는데 대부분 위와 같은 용수조건과 토양조건이 만족하는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1) 강정동유적⁹³⁾

제주도 남부인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유적은 해안에서 한단 올라온 해발 65~80m 내외의 완경사면에 위치하며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km가량 떨어져 있다. 유적의 서편 경계로 약근내가 위치하며, 서쪽으로 900m가량 떨어져 강정천이 해안으로 흐른다. 유적은 2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구역은 8,800㎡, 2구역은 2,900㎡로 총 11,700㎡에 이른다.

1구역에서는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등과 세석핵, 세석인, 밀개, 뚜르개, 굽개, 찜두기, 타제석촉 등 신석기시대의 유물상이 주로 확인된다. 1구역의 일부와 2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야외노지 34기와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는데, 유물의 출토양상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시기설정이 어렵다. 다만 2구역의 수혈유구 등에서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렬문토기 등 복합문토기가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사용된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2) 상모리유적⁹⁴⁾

유적은 제주도 서남부에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 마을에 위치한다. 대정읍의 최남단에 송악산이 바다를 향해 돌출해 있는데 이 송악산의 북쪽으로 형성된 해안사구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유적과 해안선과의 거리는 20~30m이고, 해발고도는 5m내외 이다. 유적이 속한 대정읍은 한라산 정상부에서 멀리 떨어진 남서사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높은 산이 별로 없고, 제주도의 다른 읍, 면과 달리 전역이 해발 200m 이하의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남북 100m, 동서 500m에 이른다. 유적은 남쪽으로 형성된 평탄

92)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정밀토양도-제주도』.

93)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강정동 유적』.

94) 濟州大學校博物館, 1990, 『上墓里遺跡』

한 유물산포지 및 퇴적층 구역, 북쪽의 사구층 지역과 그 주변구역으로 나뉜다. 전자는 A지구이고 후자는 다시 유물산포지를 B지구, 사구 자연 모래층을 C지구, 패각층이 발달된 지점을 D지구로 나눈다.

유구는 화덕자리 2기와 집자리로 추정되는 유구 1기만이 A지구에서 발견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 방추차, 어망추, 마제석부, 삼각만입식석촉, 유경식석촉, 갈판 등의 인공유물과 조개류와 동물뼈 등 자연유물이 확인되었다. 무문토기의 기형은 심발형, 호형토기가 대부분이고 문양요소는 이중구연단사선문, 공렬문, 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각목돌대문 등 다양하게 확인되며 마연토기와 점토대토기도 출토되었다.

3) 하모리유적⁹⁵⁾

제주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5번지 일대의 사구층과 그 주변의 평탄대지 일부를 포함한다. 제주도의 서사면에 위치하는데 한라산에서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고 넓은 평탄대지를 형성하여 해안으로 이어지는 지대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 고산리와 더불어 서부권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상모리유적과 3k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상모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해안선과 가까이 인접해 있다.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1구역에서는 수혈유구와 집석유구, 2구역에서는 노지가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만기의 점렬문, 능형문, 세침선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확인되었고, 무문토기는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공렬문토기, 마연토기,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타제석기, 석촉, 지석, 고석, 홈석, 연석 등이 소량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고산리유적⁹⁶⁾

제주도 서부 끝자락인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유적은 해안으로부터 약 1.4km 떨어진 해발 18~21m의 평탄한 대지상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한 고산리 일대는 대정읍 하모리와 함께 제주도에서도 보기 드문 저평한 평야지대로 음용수와 농업용수로 이용가능한 풍부한 용천수도 자리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주거지는 모두 원형주거지로 12기가 확인되는데 1기를 제외하고 모두 중앙에 타원형 수혈이 설치된 송국리식 주거지이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내만

95)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제주 하모리유적』.

9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제주 고산리 유적』.

구연 또는 직립구연의 심발형토기, 호형토기, 외반구연토기와 석검편, 편평편인석부, 지석, 고석 등의 석기류가 확인되었다. 일부 주거지에서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가 확인됨에 따라 주거지의 시기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굴립주건물지 8기, 수혈유구 107기 등이 확인되었고 심발형토기, 호형토기와 일단경축 등의 유물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5) 동명리유적⁹⁷⁾

유적은 제주도 서북부인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위치한다. 해안에서 1.5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해안저지대에서 한단 올라온 평탄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해발 46~50m 내외이며 동고서저의 지형을 보이고 있다. 유적의 북쪽과 남쪽으로 乾川인 한림천과 한남천이 흐르고 있어 두 하천의 중심에 형성되어있는 양상을 보인다.

수혈유구, 소토유구, 굴립주건물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공렬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공렬구순각목문토기,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고석, 지석, 요석, 석부 등의 석기류가 확인되었다.

6) 광지패총⁹⁸⁾

유적은 제주도의 서북부 중심에 위치하며 제주시 중심에서 서쪽으로 20km 가량 떨어져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시 애월읍 광지리에 해당하며 제주도 해안을 따라 일주하는 일주도로 남쪽변의 경작지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으로부터 직선거리는 500~800m 정도이며 유적지 주변은 해발 30m 내외의 완만한 경사지대를 이루고 있고 하천을 가까이 두고 있다. 유적의 범위는 동서 1km, 남북 500m로 총 7개지점에서 피트 내지 층위단면 조사가 이루어 졌다.

총 세 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 I 지구에서 나오는 유물은 출토량이 매우 적다. 토기는 무문토기와 타날문 토기, 신라토기들과 장타원형의 단면을 가진 점토대 토기와 갈색 마연토기도 확인된다. 무문토기의 문양으로는 구순각목문과 구순각목공렬문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최하층에서 확인된다. 그 밖에 방추차와 어망추, 타제석부와 고석, 연석 등이 확인되고 있다.

7) 용담동고분⁹⁹⁾

유적은 제주도 북부의 중심지역에 위치하며 해안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정도 떨어진 해발 30m 지점에 있다. 제주시 용담동에 월성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

97)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濟州 東明里 遺蹟』.

98) 濟州大學校博物館, 1985, 『郭支貝塚』.

99) 濟州大學校博物館, 1989, 전게서.

치하며 이 지역은 완만하게 형성된 평탄면이 반경 2km 이상 이어져 제주시 해안 지역에서 가장 너른 대지를 형성한다. 주변에 용담동 고인돌군을 비롯해서 적갈색경질토기가 확인되는 유물산포지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

묘역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는데 한가운데에 동서로 길게 나 있는 석렬이 있다. 북쪽은 철검 등 철제품이 확인되는 구역으로 석곽묘 1기, 용관묘 6기가 확인되며, 남쪽은 공렬토기가 확인되는 석곽무덤이 있는데 모두 3기이다.

공렬토기가 확인되는 남쪽은 동서 8m, 남북 5.6m로 대략 40㎡의 넓이를 가지며, 모두 북쪽 묘역과의 경계석렬에 바로 붙어 배치되어 있다.

출토유물로는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이 시문된 무문토기와 적갈색경질토기 그리고 다량의 철제유물들이 출토되었다.

8) 용담동 월성로 유적¹⁰⁰⁾

유적은 용담동고분에서 동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해발 40m의 완만한 평탄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까지의 직선거리는 1.5km 정도이며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는 漢川이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을 따라 지식묘와 취락유적, 유물 산포지가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 1기와 수혈유구 2기, 불다짐소성유구 1기, 석곽묘 1기 등이 확인되었고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와 석부, 석착 등이 확인되었다.

9) 삼양2동 2132-1번지내 유적¹⁰¹⁾

제주도 북부 중심에서 동쪽으로 살짝 치우친 지점에 위치한 제주시 삼양2동에 자리잡고 있다. 해안에서 한단 올라온 해발 22~25m의 평탄한 구릉상에 위치하며 해안에서 380m 가량 떨어져 있다. 삼양동 일대는 유적의 동쪽에 위치한 원당봉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다. 유적의 동쪽과 서쪽으로 소하천이 흐르고 있고 해안가에 크고 작은 용천수들이 분포하고 있다.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1기 등의 유구가 보고되었는데 1호 수혈유구는 주거시설로 추정된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와, 공렬문토기, 마연토기와 옥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10) 제주세무서 직원사택 부지 내 유적¹⁰²⁾

삼양2동 2132-1번지 내 유적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5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4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적은 해안에서

100) 강창화·김경주, 2003, 『濟州 龍潭洞 月星路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101) 國立濟州博物館, 200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02) 國立濟州博物館, 2007, 『濟州稅務署 職員舍宅 敷地 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한단 올라온 해발 25m내외의 평탄대지상에 자리한다.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장방형주거지 2기, 수혈유구 1기, 적석유구 1기와 삼국~조선시대의 적석매납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공렬구순각목문토기, 호형토기, 마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착, 갈판 등의 석기류가 확인되었다.

11) 삼화지구유적¹⁰³⁾

유적은 제주도 북동부에 위치하며 제주시 도심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삼양동, 도련동, 화북동에 걸쳐 형성되어있다. 해안에서 1km 가량 떨어진 해발 25~40m 정도의 평탄대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편과 서편으로 음나물내와 삼수천이 자리하고 있다.

삼화지구는 가-I 구역, 가-II 구역, 나-I 구역, 나-II 구역, 나-III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구역별로 유적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가-I 구역

삼화지구의 북동편에 위치한 가-I 구역에서는 장방형주거지 33기, 방형주거지 17기, 원형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장방형과 방형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공렬문토기, 마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마제석촉, 석부 등의 석기류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면적은 대부분 10m² 내외의 소형주거지에 해당한다. 원형주거지는 중앙에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된 송국리식 주거지로 발형토기를 비롯하여 석부, 지석, 연석 등이 출토되었다.

무덤으로는 옹관묘 5기와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다. 옹관에 사용된 토기는 초기철기시대에 확인되는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로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유물과는 시기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광묘에서는 유경식 마제석검과 단면원형의 점토대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수혈유구 156기, 소성유구 11기, 소토유구 8기 등이 확인되었고 구순각목문토기, 공렬구순각목문토기, 마연토기, 점토대토기, 편평편인석부, 주상편인석부, 이단병식 마제석검 등이 출토되었다.

② 가-II 구역

가-I 구역과, 나구역의 남쪽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다.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수혈유구 103기, 구상유구 25기, 집석유구 6기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

103)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I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화지구 유적』.

湖南文化財研究員, 2010, 『濟州 三和 나地域 遺蹟』.

는 호형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 공렬구순각목문토기, 마연토기, 합인석부, 갈돌 등의 청동기시대 유물과 적갈색경질토기, 철촉 등 탐라성립기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③ 나-I 구역

삼화지구의 동편에 위치한 나-I 구역에서는 주거지 1기, 수혈 28기, 옹관묘 9기 등이 확인되었다. 1기가 확인된 주거지는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가 설치된 송국리식 주거지로 공렬문토기 등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에서는 발형토기, 호형토기 등 무문토기와 마제석부, 갈돌 등 석기류가 확인되었다. 옹관묘는 합구식이 8기, 단옹식이 1기가 확인되었는데 옹관으로 대용된 토기는 삼양동 계외반구연토기로 초기철기시대 이후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④ 나-II 구역

가-II 구역과 나-I 구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유구로는 수혈 유구 15기와 소성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구순각목문토기를 비롯한 무문토기편들과 곡옥, 갈돌, 지석, 석부 등이 확인되었다.

⑤ 나-III 구역

삼화지구의 북편에 위치하고 있는 나-III 구역에서는 주거지 31기와 수혈유구 54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장)방형주거지 29기와 원형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다. (장)방형주거지는 대부분 10㎡ 내외의 소형주거지로 구순각목문토기, 단사선문토기 등의 무문토기가 확인되어 가-I 구역의 (장)방형 주거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원형주거지 2기는 모두 내부에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된 송국리식 주거지로 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수혈유구 등에서 확인되는 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공렬문토기, 공렬구순각목문토기,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토기 등 무문토기와 유경식석검, 합인석부를 비롯한 석기류가 있다.

12) 제주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내 유적¹⁰⁴⁾

유적은 제주도의 북부중심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서 한단 올라온 해발 20~40m의 평탄대지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과의 직선거리는 400m 정도이다.

주거지는 모두 7기가 조사되었는데 (장)방형주거지가 4기, 원형주거지가 3기이다. 장방형주거지의 면적은 15㎡ 미만으로 소형주거지에 해당한다. 주거지 내부

10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 유적(2136-9번지)』.

에서는 구순각목문토기, 공렬문토기, 단사선문토기 등의 무문토기가 확인되어 삼화지구의 (장)방형주거지와 비슷한 시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원형주거지에서 내부에 타원형구덩이가 확인된 경우는 6호주거지가 유일하며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공렬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 일단경식석촉 등이 확인되고 있다.

13) 북촌리유적¹⁰⁵⁾

유적은 바위그늘 주거지 유적으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다. 제주도 동북부의 해안지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제주도에서 위도상 가장 북쪽이라고 할 수 있다. 해안까지의 직선거리는 600m 정도이며, 마을과는 직선거리는 300m 정도이다. 유적은 해발 20m 내외의 완만한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유물은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무문토기편, 마연토기편으로 무문토기의 문양으로는 구순각목문과 공렬문이 있다. 그 밖에 골각기와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2. 유적간 공반양상의 비교

각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의 조합과 주거지의 양상은 서로 相似性과 相異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유적의 공반양상을 살펴보면 유적간의 시간적 서열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상모리유적을 살펴보면 A지구의 III층부터 VI층까지의 유물 출토양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VI층·V층·IV층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을 중심으로 공렬구순각목문(CD) 등 다양한 문양요소가 고루 확인되고 있는 반면 III층에서는 공렬구순각목문(DE)을 중심으로한 단순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문양토기가 VI층·V층·IV층에 비해 증가한다. 즉 상모리유적에서는 복합문토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양요소들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문양요소가 단순화되어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이 주로 확인되는 단계로 변화해 가는데 이 큰 특징을 기준으로 상모리 1기와 상모리 2기로 구분가능하다.

상모리 1기에서 확인되는 심발형토기의 기형은 I 식과 II 식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完形의 토기가 거의 없는 관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구연부편의 형태로 추정해 본 결과 I 식 내지 II 식으로 판단된다. I 식의 토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C)요소가 포함되고 있어 이 문양과 관련된 특징적인 기형으로 보인다. 또한 II 식의 토기는 공렬문(D)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문양과 심발형토기의 기형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모리 1기에는 호형토기와 I 식의 마연토기가 공반되는데 호형토기에는 구순각목문이 시문되는 경

105) 濟州大學校博物館, 1988, 『北村里遺蹟』.

우가 대부분이며 마연토기는 동체부에 횡대구획문이 시문되는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상모리에서 확인되는 석기로는 삼각만입촉, 이단경식석촉, 일단경식석촉, 단면 타원형의 합인석부 등이 확인되는데 모두 지표수습유물로 시기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남한지역에서 복합문토기와 위의 석기류들은 공반되는 경우가 많아 상모리 1기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상모리 2기는 직립구연이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II식의 심발형토기가 주류로 추정되는 가운데 I식과 III식의 심발형토기도 다수 공반했을 것으로 보인다. 호형토기는 상모리 1기와 마찬가지로 구순각목문이 시문되는 경우가 보이며 마연토기는 출토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상모리 1기는 A지구의 VI층·V층·IV층과 함께 B지구가 포함되며 상모리 2기는 A지구의 III층과 C지구, D지구가 포함된다.

하모리유적의 2호 수혈유구는 두 개의 층위가 확인되는데 하층인 II층에서는 공렬구순각목문(DE)과 공렬문(D)·구순각목문(E)이 확인되는데 반해 상층인 I층에서는 무문양토기만 확인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양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하모리유적은 2호 수혈유구의 층위와 1-1호·1-2호 수혈유구의 중복관계를 기준으로 단순문토기 중심의 하모리 1기와 무문양토기 중심의 하모리 2기로 구분한 바 있다. 하모리 1기에서는 II식의 마연토기가 공반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속하는 유구는 2호 수혈유구 II층을 포함하여 1-2호 수혈유구·3호 수혈유구가 있다. 하모리 2기는 2호 수혈유구 I층과 1-1호 수혈유구·1-3호 수혈유구·1-4호 수혈유구가 있다.

삼화지구유적은 소형의 (장)방형주거지가 주류인 가운데 일부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가 확인된다. 남부지방의 주거지 편년을 살펴봤을 때 소형의 (장)방형주거지가 원형주거지보다 이를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시기를 구분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형의 (장)방형주거지에서는 단순문토기가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일부 원형주거지에서도 공렬문(D), 구순각목문(E) 등의 단순문토기가 확인되고 있고 AMS연대도 (장)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의 시기차이를 논할 만큼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삼화지구의 원형주거지에서는 단순문토기가 거의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AMS연대가 (장)방형주거지의 연대와 비슷하고 인접한 삼양동주민센터유적의 원형주거지에서는 공렬문(D)토기와 구순각목문(E)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장)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간의 시기구분이 쉽지가 않다. 물론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가 (장)방형주거지의 소멸 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뒤에서 살펴볼 고산리유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그 출현시기에 있어서는 (장)방형주거지가 성행했던 시기와 겹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삼화지구에서 확인되는 심발형토기에는 공렬문(D), 구순각목문(E), 공렬구순각

목문(DE)이 주로 시문되며 상모리유적에 비해 무문양의 심발형토기 비중도 높아진다. 이중구연단사선문(C)은 매우 드물게 확인되고 있어 상모리 1기에 비해 늦은 시기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심발형토기의 기형은 Ⅲ식을 중심으로 Ⅱ식의 심발형토기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호형토기가 확인되기는 하나 매우 소량이고 외반구연토기가 등장한다. 외반구연토기에는 구순각목문(E)이 시문되는 경우가 있어 관창리식토기와의 관련성이 의심된다. 이러한 구순각목문(E)이 시문된 외반구연토기는 구연부편으로만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마연토기는 Ⅱ식과 Ⅲ식이 확인되며 석부는 함인석부가 줄어들고 편인석부류가 증가하고 있다. 석검은 이단병식석검과 유경식석검이 확인되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단병식석검은 황현진 분류 I b식과 I c식으로 시기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동해안지역에서 I b식은 방내리 9호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I c식은 포월리 9호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두 주거지는 시기차가 있는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

삼화지구에서 출토되고 있는 마연토기와 이단병식석검으로 봤을 때 삼화지구유적도 시기구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Ⅱ식, Ⅲ식의 마연토기와 I b식과 I c식의 마제석검은 156호 수혈에서 공반출토되고 있어 시기구분이 어렵다. 삼화지구의 대부분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문양요소의 조합은 상모리 2기·하모리 1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동일 시기로 판단된다. 하지만 Ⅲ식의 마연토기와 같이 다소 늦은 시기의 유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삼화지구가 다른 유적들 보다 좀 더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산리유적은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가 확인되는 유적으로 토기의 문양요소로는 구순각목문(E)만 드물게 확인되며 대부분 무문양토기가 출토된다. 심발형토기는 完形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만되는 구연부편이 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Ⅲ식이 주류를 점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형토기로 추정되는 토기가 한 점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산리유적에서 호형토기의 사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 다수 확인되어 아마 호형토기는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산리유적에서는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를 볼 수 있는데 이들 주거지에서는 AMS연대도 타 주거지에 비해 늦은 B.C.4세기 이후로 나타나고 있어 청동기시대 이후의 것으로 판단된다. 고산리유적은 내만구연토기, 송국리계외반구연토기가 확인되는 시기와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가 등장하는 시기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전자를 고산리 1기, 후자를 고산리 2기로 설정하고 고산리 2기는 초기철기시대로 편년하고자 한다. 또한 고산리 1기중 2σ 보정연대가 B.C. 8세기를 상회하는 값이 일부 확인되어 삼화지구의 원형주거지가 소형의 (장)방형주거지와 공존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송국리식주거지 출현시점은 B.C.8세기의 비교적 빠른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적 외에 강정동유적, 동명리유적, 광지패총 II지구 IV층·III층, 용담동고분 남쪽묘역, 삼양2동 2132-1번지 내 유적, 제주세무서 직원사택 부지 내 유적, 삼양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내 유적, 북촌리유적 등은 모두 공렬문(D)이나 구순각목문(E) 또는 공렬구순각목문(DE)이 새겨진 심발형토기가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상모리 2기와 삼화지구유적의 존속기간 범위에 포함되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편년

위에서 살펴본 각 유적의 공반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의 무문토기문화는 유물의 출토양상과 주거지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가능하다. I기는 상모리 A지구를 중심으로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CDE)의 복합문토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양요소가 확인되는 복합문토기단계, II기는 문양요소가 단순화되며 소형의 (장)방형주거지가 성행하는 단순문토기단계, III기는 문양요소가 사라지고 외반구연토기가 성행하며 원형주거지만 사용하게 되는 무문양토기단계이다.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시작은 복합문토기문화가 성행한 상모리에서 시작된다. 남한지방에서는 소위 미사리유형이라고 불리는 각목돌대문토기문화를 조기로 설정하여 무문토기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조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상모리 D지구에서 각목돌대문토기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 1점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조기를 설정할 정도의 유물군이 확인된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남한지방의 각 지역별 복합문토기의 편년을 살펴보면 영동지역은 III기에 해당하며¹⁰⁶⁾, 경기지역은 전기중반¹⁰⁷⁾, 아산만지역의 2기¹⁰⁸⁾, 호남지역의 III기¹⁰⁹⁾, 남강유역은 II기¹¹⁰⁾로 설정하고 있는데 연구자들마다 조기와 전기에 대한 견해에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상모리와 같이 퇴화된 이중구연을 갖는 복합문토기는 전기 중반 이후에 성행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복합문토기 출현시점도 남한지방에서 성행했던 시점인 전기중반 이후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106) 朴榮九, 2008, 전계서, pp.60~61.

107) 金權中, 2010, 전계서, p.59.

108) 羅建柱, 2006, 전계서, p.40.

109) 홍밖음, 2010, 전계서, pp.69~70.

110) 高旻廷, 2003, 전계서, pp.81~82.

이처럼 남한지방보다 다소 늦게 시작된 제주도의 무문토기문화는 상모리에 정착한 후 초기에는 상모리주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 기의 문화양상이 확인되는 곳은 상모리유적 A지구의 VI층, V층, IV층과 B지구이다. 강정동이나 삼화지구에서 복합문토기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확인되지만 현재의 출토양상으로 I 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I 기의 복합문토기문화는 제주도의 다른 지역까지 널리 퍼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I 기의 역연대를 남한지방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추정해 보고자 한다. 우선 영동지역의 조양동유적은 복합문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으로 보고자는 이 유적의 연대를 B.C.10세기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¹¹¹⁾ 그리고 호남지역에서도 복합문토기가 출토되는 보성옥평리 1호 주거지와 여수 월내동 상촌Ⅱ지구 1호 주거지의 중심연대를 B.C.10세기로 판단하고 있다.¹¹²⁾ 복합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의 AMS자료 검토결과 영동지역, 호서지역, 호남지역의 대부분 자료가 B.C.9세기 이전의 2σ 교정연대를 보이고 있어 B.C.10~9세기 사이에는 복합문토기문화가 매우 성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상 남한지방과 시기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남한지방에서 성행했던 시점에는 제주도로 유입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도의 복합문토기문화는 늦어도 B.C.10~9세기 사이에는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I 기의 연대는 오차범위 등을 감안하여 B.C.10~8세기로 추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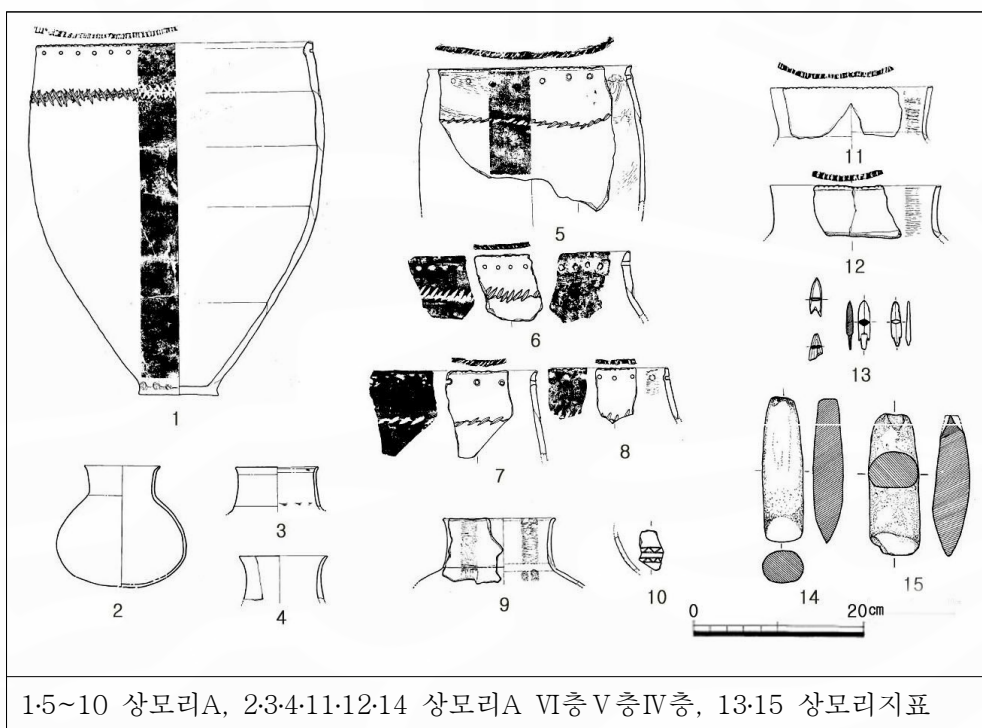
Ⅱ기에 이르게 되면 복합문토기는 점차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이 퇴화되어 탈락하면서 공렬문과 구순각목문만이 복합되거나 단독으로 시문된다. 이러한 현상은 문양요소의 퇴화현상으로 남한지방에서도 많이 관찰되고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유적명	주거지번호	B.P연대	교정연대(cal BC)	
방내리유적	3	2930±50	1270-970	95%
관산리유적	KC004	2890±60	1260-905	95%
	KC009	2750±60	1015-805	95%
	KC012	2780±70	1110-805	95%
	KC013	2920±70	1305-910	95%
여수월내동상촌Ⅱ지구	1	2720±50	980-790	95.4%
옥평리유적	1	2770±50	1040-810	95.4%

표 4. 복합문출토유적 주거지 AMS 분석자료

111) 白弘基, 2000, 「編年 및 周邊地域과의 關係」, 『東草 朝陽洞 住居址』, P.112.

112) 홍밝음, 2010a, 전게서, pp.67~69.



도면 32. 제주도 무문토기문화 I 기

단사선문이 늦은 시기까지 존재하거나 또는 공렬문이 가장 늦게 까지 지속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문양의 퇴화현상은 보편적이면서도 반면에 지역성을 띠며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Ⅱ기는 상모리 A지구 Ⅲ층, 상모리 C지구, 상모리 D지구, 하모리 1기, 동명리 유적, 광지패총 Ⅱ지구 Ⅲ·Ⅳ층, 용담동고분 남쪽묘역, 삼양2동 2132-1번지 내 유적, 제주세무서 직원사택 부지 내 유적, 삼화지구 장방형주거지 단계,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내 유적의 장방형주거지 단계, 북촌리유적 등이 포함된다.

I 기가 상모리유적에서만 확인되는 것에 비해 Ⅱ기의 유적은 제주도 동북부에서 서남부에 이르는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 기에서 Ⅱ기로 넘어가며 무문토기인들의 생활영역이 제주도의 거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Ⅱ기가 되면 소형의 (장)방형주거지가 등장하는데 한 주거지 내의 거주인구가 매우 적은 수의 핵가족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I 기의 유적인 상모리에서는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한지방에서의 사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복합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중·대형의 (세)장방형주거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Ⅱ기에서 확인되는 소형주거지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형태

로 주거방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거방식의 변화는 생활방식에서도 이전 시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데 I기에서는 합인석부의 출토량이 많고 II기에서는 편인석부의 출토량이 증가하는 양상도 그 추측을 뒷받침한다. 안재호는 별채용으로 분류되는 합인석부가 많이 출토되는 유적은 火田이 중심을 이루고 목기가공용으로 분류되는 편인석부가 많이 출토되는 유적은 水稻作과 관련시킬 수 있다고 한다.¹¹³⁾ 물론 그렇다고 해서 I기인 상모리에서는 화전이 행해졌고 II기인 삼양동에서는 수도작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화산점인 제주도의 특성과 유적의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양 시기 석부류의 출토양상이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은 굳이 농경 방식의 차이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삶의 방식에서의 차이점은 분명 존재한다.

이처럼 II기의 변화는 II기가 I기로부터 단순히 유물의 겉모습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더불어 삶의 영역의 확대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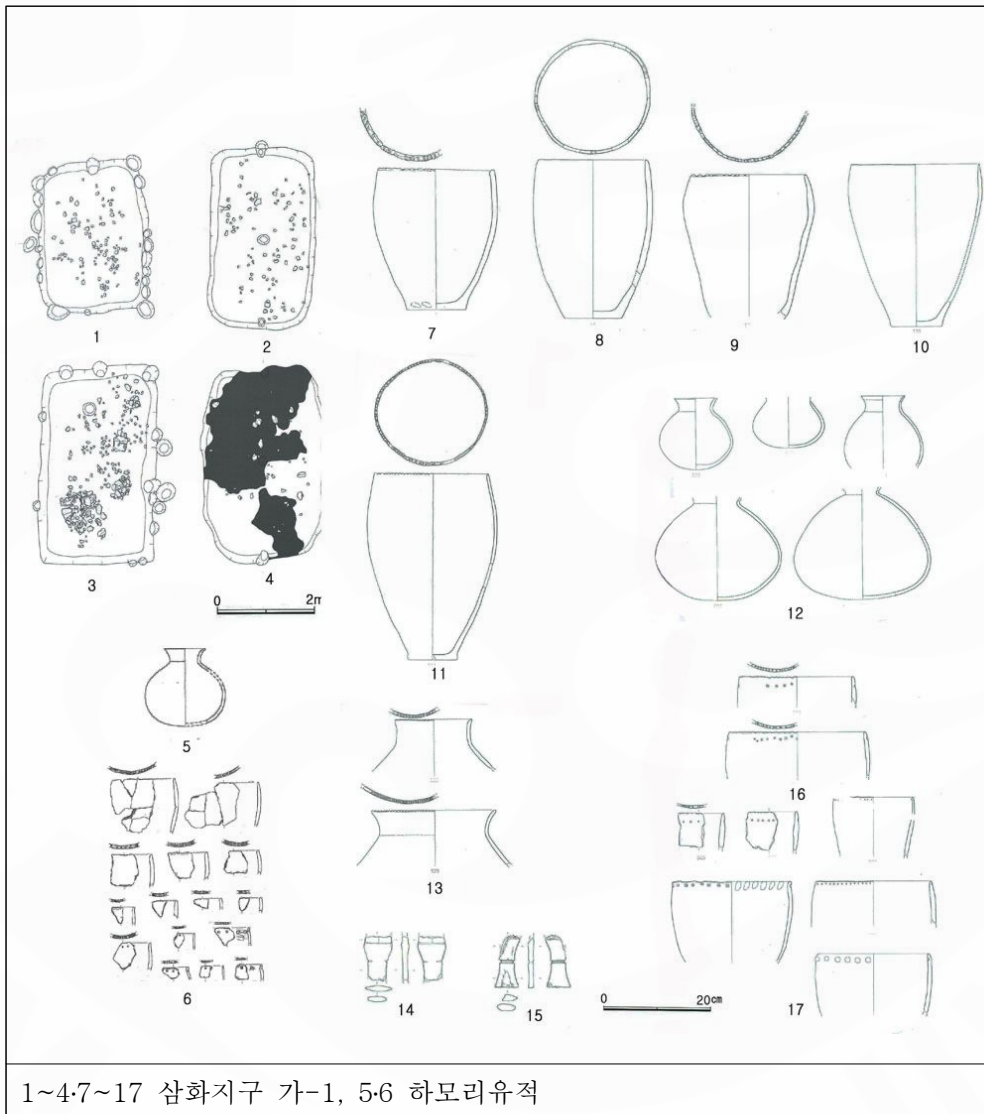
삼화지구 가I 구역의 156호 수혈에서는 마제석검편이 여러 점 확인되었는데 그 중 병부의 형태가 확인 가능한 두 점의 석검으로 II기의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한 점은 단의 폭이 좁은 이단병식석검이며 다른 한 점은 병부의 양 측면에 결입홈을 낸 이단병식석검이다. 전자는 방내리 9호주거지와 백석동 I-16-①호 주거지의 출토품과 유사한데 이 두 주거지는 전기 후반부로 판단된다. 후자는 포월리 9호주거지의 출토품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 주거지는 방내리보다 늦은 시기인 후기 전반부로 편년된다. 두 형식의 석검이 함께 출토되는 156호 수혈은 공렬구선갑목문토기, 외반구연토기 등 다양한 유물들이 공반되고 있어 전기후반부터 후기전반까지 비교적 장시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56호 수혈을 통해 추정해 보면 단순문토기가 성행하던 II기는 무문토기시대 전기 후반에서 후기전반에 걸쳐져 있다고 판단된다.

유구명	평면형태	시료종류	B.P연대(BP)	교정연대(cal BC)	
삼화가 I 4호	장방형	목탄	3550±50	2030-1740	95.4%
삼화나III-4 5호	장방형	목탄	2860±50	1210-900	95.4%
삼화가 I 7호	장방형	목탄	2720±60	1010-790	95.4%
삼화가 I 9호	장방형	목탄	2630±50	910-740	89.0%
삼화가 I 17호	장방형	목탄	2640±60	930-740	86.0%
삼화나III-3 5호	장방형	탄화곡물	2520±50	800-490	92.4%

표 5. (장)방형 주거지 AMS 분석자료

113) 安在皓, 2000, 전제서, p.51.

최근 삼화지구에서 확보된 AMS 분석자료를 통해 II기의 역연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삼화지구의 장방형주거지에서 얻어진 자료를 검토해 보면 다른 자료에 비해 연대가 올라가는 삼화가 I 4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B.C.9~8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σ 의 오차범위가 비교적 넓지 않은 삼화가 I 7호 주거지의 교정연대는 1010-790(cal BC)을 나타내고 있어 이미 B.C.8세기에는 장방형주거지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포월리유적의 보고자는 포월리유적의 역연대를 B.C.8세기로 보고 있는데¹¹⁴⁾ 영동지역의 방내리단계와 포월리단



도면 33. 제주도 무문토기문화 II기

계에 걸쳐져 있다고 판단되는 제주도 II기의 연대는 늦어도 B.C.8세기에는 시작 되었다고 보여지며 문화지체현상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면 B.C.7세기나 그 이후에도 이어졌을 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II기의 중심연대는 B.C.8~7세기로 추정하고자 한다.

III기는 하모리 2기, 고산리유적, 삼화지구 원형주거지 단계,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내 유적 원형주거지 단계가 해당되며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광지리 1808-5번지유적도 III기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지만 삼양동선사유적¹¹⁵⁾의 일부 원형주거지도 III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모리 2기에는 원형주거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경주에 의해 하모리 1-1호 수혈유구와 고산리 II-9호 주거지는 동일시기로 추정된 바 있어¹¹⁶⁾ III기에 포함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III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형주거지(송국리형주거지)의 성행이다. 남한지방에서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되어 있는 원형주거지가 제주도에 서는 초기철기시대에 성행하기 시작하여 기원후 까지 사용되어 진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조사된 고산리유적, 광지리 1808-5번지유적 등에서 심발형토기, 외반구연토기 등 무문토기가 확인되는 원형주거지가 발굴됨에 따라 제주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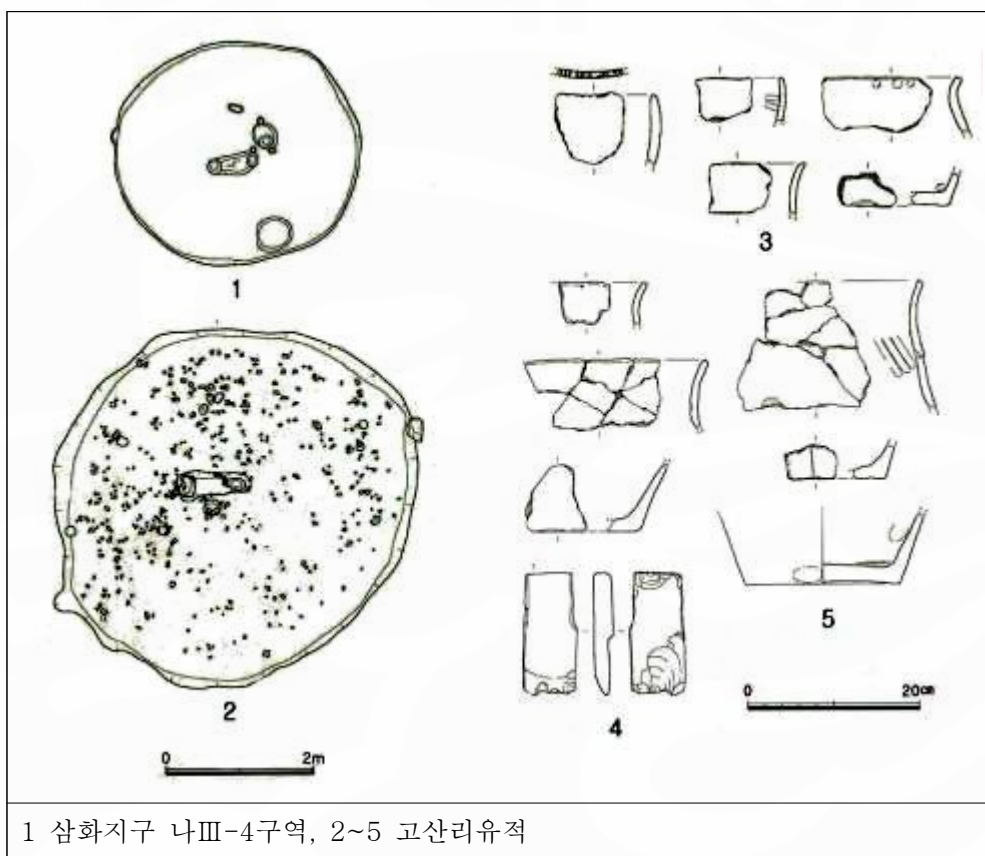
유구명	평면형태	시료종류	B.P연대(BP)	교정연대(cal BC)	
삼화나 I 1호(1)	원형	목탄	2520±60	800-480	90.3%
삼화나 I 1호(2)		목탄	2670±50	930-770	95.4%
삼화나III-4 3호	원형	목탄	2660±50	920-760	95.4%
고산 I 1호	원형	목탄	2620±50	910-740	84.0%
고산 II 3호	원형	목탄	2640±50	920-750	93.5%
고산 II 2호	원형	목탄	2520±50	800-490	92.4%
고산 II 6호	원형	목탄	2320±50	540-340	70.0%
고산 II 1호	원형	목탄	2090±50	210-30	90.5%
고산 II 7호	원형	목탄	2190±50	390-110	95.4%
고산 II 8호(1)	원형	목탄	2160±50	370-50	95.4%
고산 II 8호(2)	원형	목탄	2030±50	180-70(AD)	95.4%

표 6. 원형주거지 AMS 분석자료

114) 江陵大學校博物館, 2002, 「編年 및 周邊地域과의 關係」, 『江陵 浦月里 住居址』, P.109.

115)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三陽洞遺蹟』.

116) 김경주, 2012, 전계서, p.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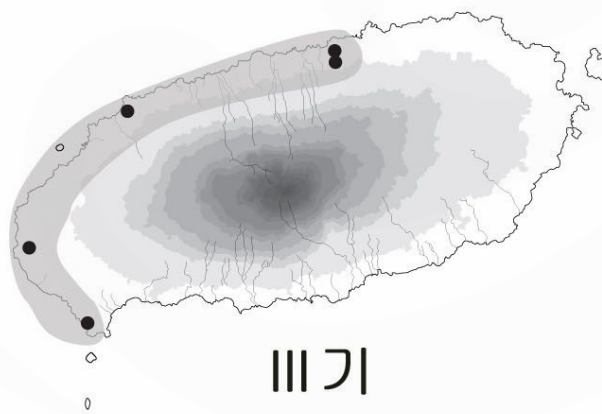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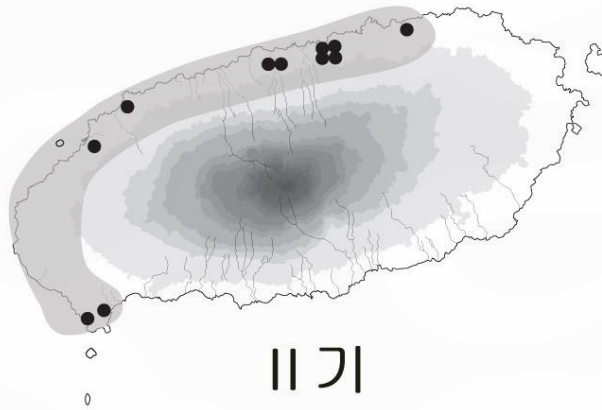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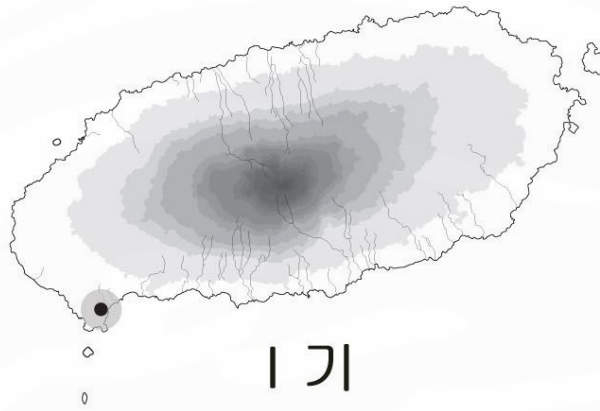


도면 34. 제주도 무문토기문화 Ⅲ기

서도 청동기시대부터 원형주거지가 성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토기 문양요소의 소멸과 원형주거지, 외반구연토기의 등장으로 Ⅱ기와 Ⅲ기는 구분지어 지는데 이 분기는 ‘송국리문화’의 유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Ⅲ기는 Ⅱ기에 비해 주거지의 수가 급감하는데 아마도 수도작을 중심으로 발달한 송국리문화가 제주도에 정착해서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주거지의 형태가 제주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면이 있어 청동기시대 이후에도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화지구, 고산리유적 등에서 원형주거지의 AMS 분석자료가 확보되었는데 이를 통해 Ⅲ기의 연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삼화지구에서 확인된 AMS연대는 삼화나 I 1호 주거지에서 930-770(cal BC), 삼화나Ⅲ-4 3호 주거지에서 920-760(cal BC)의 오차범위가 좁은 교정연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소 B.C.8세기에는 원형주거지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형주거지의 유입은 Ⅱ기의 (장)방형형주거지의 중심시기와 겹치게 되는데 (장)방형주거



도면 35. 분기별 유적분포도

지 단계에 등장하는 원형주거지의 해석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Ⅲ기의 상한이 Ⅱ기의 상한과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게 되어 시기구분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B.C.8세기로 편년되는 원형주거지는 Ⅲ기로 설정하는 것 보다 Ⅱ기에 등장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제주도의 원형주거지는 B.C.8세기인 Ⅱ기에 등장하여 Ⅲ기에 성행한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Ⅲ기의 상한은 Ⅱ기의 하한인 B.C.7세기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삼양동계 외반구연토기가 확인되는 고산리 Ⅱ구역 7·8호 주거지에서는 B.C.4세기 이후의 교정연대가 측정되었는데 이 시기까지 Ⅲ기에 포함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Ⅲ기의 하한을 초기철기시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점토대토기 유입 이전으로 보고자 한다.¹¹⁷⁾ 김경주는 점토대토기의 제주도 유입시점을 B.C. 4~3세기로 판단하고 있는데¹¹⁸⁾ 이에 따라 Ⅲ기의 하한은 점토대토기의 유입 시점인 B.C.4세기경으로 보고자 한다. 즉 Ⅲ기는 B.C.7세기에 시작되어 B.C.4세기까지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Ⅲ기의 시간적 범위가 다른 시기에 비해 다소 넓다는 문제가 있고 Ⅲ기는 세부적으로 구분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Ⅲ기의 문화양상이 뚜렷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부터 세부편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시기 폭을 상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시기구분	내 용	역연대
I 기	복합문토기의 성행, 호형토기의 공반, I 식·II 식의 심발형토기, I 식의 마연토기, 삼각만입석촉·이단경촉·함인석부사용	B.C.10~8세기
II 기	단순문토기의 성행, II 식·III 식의 심발형토기, 호형토기의 쇠퇴, 외반구연토기의 등장, II 식·III 식의 심발형토기, II 식·III 식의 마연토기, 이단병식석검·편인석부류사용, 소형의 (장)방형주거지 성행, 원형주거지의 등장	B.C.8~7세기
III 기	토기문양의 소멸, III 식의 심발형토기 성행, 외반구연토기의 성행, 일단경촉·편인석부류 사용, 원형주거지의 성행	B.C.7~4세기

표 7.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시기구분

117) 최근 철기유입 이전에 등장하는 원형점토대토기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과 함께 삼양동계외반구연토기가 나타나고 대규모의 취락구조

IV.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유입과정 검토

1. 남부지방의 무문토기문화 검토

제주도의 무문토기문화가 한반도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은 두 지역 문화의 유사성과 상관관계를 봤을 때 분명한 사실임이 틀림없다. 다만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 무문토기문화가 유입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외지산태토의 토기를 분석하거나 외지산암석으로 만들어진 석기의 산지를 추정해 보는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의 광물이나 암석의 분포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반도 각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태토성분을 분석하여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필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양 지역의 유물 갖춤새, 전개양상 등을 분석하여 가장 유사한 지역을 찾는 것이다.

정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한반도 전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만은 하나 사실 남부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바다를 통해 제주도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유물출토양상은 남한지방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일한 문화양상이 한반도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같이 분포하고 있다면 제주도로의 유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부지방에서 넘어왔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추론이 될 것이다. 또한, 중부지방에서 주로 확인되는 臺附壺, 臺附甕 등의 마연토기가 아직 제주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도 중부지방과의 연관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남부지방 즉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유입경로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1) 호남지역

(1) 소단위별 유적검토

① 만경강유역권

만경강유역권은 전라북도의 서해안에 해당하는 곳으로 금강이남지역이며 동진강유역권이 포함된다.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익산영등동, 전주성곡, 전주호자4, 김제제상리, 부안격하패총 등이 있다. 주거지는 대형의 (장)방형주거지이며 노지는 위석식, 토광형, 무시설식 등이 확인된다. 유물은 이 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토기가 전주장동 I-9호 주거지에서 출토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이 중구연단사선문토기를 중심으로 이 중구연거치문토기, 이 중

가 형성되는 점 등을 미루어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을 또 다른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자 한다.
118) 金慶柱, 2010, 전제서, PP.76~77.

유적명	주거지의 특징	출토유물의 특징	비고
익산영등동	(장)방형의 대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이중구연거치구순각목문	
	방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등 무문토기	
익산부송동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마연토기	
완주반교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마연토기	
전주여의동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심발형토기	
전주성곡	(장)방형의 대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저부투공토기	
전주장동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문	
전주효자4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전주송천동2가	방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전주송천동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전주평화동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김제제상리	(장)방형의 대형주거지	이중구연거치문토기	
김제석담리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석촉	
군산고봉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군산도암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원형점토대토기	
부안격하패총		단사선문, 이중구연거치문	

표 8.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유적

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익산부송동, 완주반교리, 전주송천동, 전주평화동, 김제석담리, 군산고봉리 등이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내지 방형이며 주거지 내부에 타원형수혈이 설치된 송국리식주거지이다. 출토유물로 외반구연토기, 심발형토기, 마연토기 등이 있으며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기도 한다. 만경강유역권은 송국리문화가 등장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금강 중·하류와는 매우 근접한 지역으로 송국리식주거지가 매우 성행하는 특징이 있다.

② 영산강유역권

용추곡에서 발원하는 영산강은 광주, 나주를 거쳐 목포에서 바다와 만난다. 황룡강, 지석강, 고막원천 등의 지류가 합류하여 서남해로 흘러나가는 지역을 포함

유적명	주거지의 특징	출토유물의 특징	비고
영광군동	소형의 (장)방형주거지	구순각목문, 단사선구순각목문	
	방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심발형토기, 외반구연토기	
담양태목리	장방형주거지	절상돌대문, 무문토기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담양성산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석축	
담양중옥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광주산정동	대형의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광주수문	(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공렬문, 구순각목문	
광주용두동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광주외촌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삼각형석도	
광주송암동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석도, 석부	
나주횡산		구순각목문, 공렬문	
나주이암	방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함평소명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석축, 석부	
함평고양촌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함평신흥동	중소형의 (장)방형주거지	단사선문, 구순각목문	
무안인평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석부	
무안통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석축	
영암장천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삼각형석도	
영암금계리	말각방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고창예지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석도, 석축	
고창산정리	방형, 타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심발형토기	
고창죽림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석축	
정읍보화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표 9.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유적

하며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영광, 고창, 정읍도 이 유역권에서 다루고자 한다.

영산강유역권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영광군동, 광주산정동, 광주수문, 광주용두동, 함평고양촌, 함평신흥동 등이 있다. 대부분 중·대형의 장방형주거지가 확인되며 일부 소형의 장방형주거지도 보인다. 노지는 석상위석식, 토광형, 무시설식 등이 확인되며 토기는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렬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는 담양성산리, 담양중옥리, 광주외촌, 광주송암동, 나주이암, 함평소명, 무안통정, 영암장천리, 고창예지리, 고창죽림리, 정읍보화리 등이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또는 원형이며 내부에 타원형 수혈이 설치된 송국리식주거지이다. 만경강유역권과 마찬가지로 송국리식주거지가 매우 성행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유물은 외반구연토기, 심발형토기와 일단경축, 삼각형 석도 등이 확인된다.

③ 남해안서부 및 섬진강유역권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발원하는 섬진강은 전라도의 동부지역을 따라 남으로 흘러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경계를 이루며 남해안으로 빠져나간다.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유역도 포함되며, 전라도의 남해안 지역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적명	주거지의 특징	출토유물의 특징	비고
남원고죽동	(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	
곡성유정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심발형토기	
구례봉북리	중·소형의 장방형주거지	공렬문	
순천죽내리		이중구연단사선문	
승주대곡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공렬문, 무문토기, 석촉	
	소형의 (장)방형, 말각방형주거지	외반구연토기, 무문토기, 일단경축,	
광양복성리	소형의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공렬구순각목문, 공렬문	
광양용강리기두	방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여수화장동	말각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여수월내동상촌Ⅱ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화순복교리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보성동촌리	타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석촉, 석도	
보성금평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공렬문토기, 무문토기	
보성옥평리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장흥신평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심발형토기, 외반구연토기	
장흥상방촌B	말각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강진호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표 10. 남해안서부 및 섬진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유적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남원고죽동, 구례봉북리, 순천죽내리, 승주대곡리, 광양복성리, 여수월내동상촌Ⅱ, 보성옥평리, 강진호산 등이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중·대형의 (세)장방형주거지와 소형의 장방형주거지가 있다. 노지는 토광형과 무시설식이 주로 설치되며 소형의 장방형주거지에서는 아무런 내부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다. 남원고죽동, 여수월내동상촌Ⅱ, 보성옥평리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의 복합문토기가 확인되어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중심을 이루던 만경강유역, 영산강유역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세 유적을 제외하면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중심의 출토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곡성유정리, 승주대곡리, 광양용강리기두, 여수화장동, 화순복교리, 보성금평, 장흥신평, 장흥상방촌B 등이 있다. 말각방형 또는 원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주거지 내부에는 타원형 수혈이 확인된다. 호남지역은 전체적으로 방형 또는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기는 공렬문토기가 간혹 확인되기도 하나 무문양의 외반구연토기와 심발형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석기는 일단경촉과 삼각형석도 등이 확인되고 있다.

(2) 전개양상검토

호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는 순창원촌의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돌대문토기 문화이다. 주거지는 평면 방형에 내부 중앙에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고 주거지 내부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담양태목리 20호 주거지에서도 석상위석식노지가 확인되었는데 순창원촌 1호와 달리 2개의 노지가 단벽쪽에 치우쳐 확인되며, 유물은 절상돌대문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 돌대문토기문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호남지역은 돌대문토기문화가 번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의 전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중심으로 문양요소가 전개되어 나가는데 이중구연부는 좁은 것에서 넓은 것으로 변하며 단사선문은 초반에는 이중구연내부에 시문되는 경우만 확인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중구연과 동체부의 경계에 걸쳐 시문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باط음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호남지역의 전기를 4기로 구분하였다.¹¹⁹⁾

I 기는 2cm이하의 매우 좁은 이중구연부를 가지며 단사선문은 이중구연부에만 시문되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확인된다. 주거지는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무시설식 또는 토광형노지가 1~2기 설치된다. I 기의 주거지는 주로 만경강유역에

119) 홍باط음, 2010a, 전계서, pp.68~72.

분포하여 이중구연단사선문의 요소와 가장 먼저 접촉한 것으로 보여진다.

Ⅱ기의 이중구연단사선문은 2cm이하와 2~4cm의 이중구연부를 가지며 단사선문은 이중구연부에 시문되거나 동체부와의 경계에 걸쳐지는 경우가 모두 확인된다. 토기문양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거치문, 이중구연거치구순각목문 등이 확인되어 거치문과 구순각목문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확인되며 노지는 무시설식, 위석식, 토광형노지가 0~3기 설치된다.

Ⅲ기의 이중구연단사선문은 이중구연 폭이 넓어져 4cm이상이 되며 단사선문은 이중구연 S내부에 시문되는 것과 동체부와의 경계에 걸쳐 시문되는 것이 모두 확인된다. 토기문양은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등이 확인되는데 거치문요소가 사라지고 공렬문요소가 결합하는 복합문토기의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주거지는 장방형, 세장방형, 초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노지는 무시설식노지가 주로 설치되는데 많은 경우 5기까지 확인된다. Ⅲ기는 만경강유역에 집중되던 전기무문토기문화가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 및 남해안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Ⅳ기는 5.8cm 이상의 매우 넓은 이중구연부가 주로 확인된다. 이중구연단사선문, 단사선문, 구순각목문 등의 문양요소가 확인되어 Ⅲ기에 비해 문양요소의 결합양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는 원형과 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일부 장방형주거지도 보인다. 원형과 방형의 주거지는 비교적 작은 면적을 보이는데 송국리문화와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⁰⁾

호남지역의 후기는 송국리문화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경강유역의 송국리식주거지는 원형의 평면형태에 타원형수혈 내부에 양단주혈이 설치된 김승옥·이정진 분류 원ⅠA형이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의 형식이 금강 중·하류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두 지역은 송국리문화를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과 탐진강유역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아마도 만경강유역의 영향이 호남서부지역을 따라 남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유역은 방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 타원형구덩이 외부에 양단주혈이 배치되는 형식인 방ⅠB형이 가장 많이 보인다.¹²¹⁾ 이 형식은 남강유역에서 압도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섬진강유역은 만경강·영산강의 호남서부지역보다 남강유역과의 관계가 더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영남지역

120) 홍밖음, 2010b,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湖南考古學報』 36輯,

121) 김승옥, 2006a, 전계서, P.35.

이정진, 2012, 전계서, PP.59~76.

(1) 소단위별 유적검토

① 남강유역권

덕유산에서 발원하는 남강은 낙동강의 지류로 경상남도의 서쪽에 위치한 진주에서 지류인 덕천강과 만나 함안에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곳곳에 범람원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남강의 유적들은 대부분 이 범람원에 밀집되어 있다.¹²²⁾

산청소남리, 진주대평리어은, 진주대평리옥방, 진주상촌리, 사천본촌리 등의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초기로 편년되는 각목돌대문토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장)방형주거지이며 노지는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구연거치점렬

유적명	주거지의 특징	출토유물의 특징	비고
산청사월리	(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	
	원형, 말각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외반구연토기, 일단경축	
산청소남리	(세)장방형주거지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공렬문, 구순각목문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진주대평리어은	위석식노지의 (장)방형주거지	각목돌대문, 이중구연거치점렬문	
	(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	
	어은식주거지 ¹²³⁾	공렬문, 마연토기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공렬문, 외반구연토기	
진주대평리옥방	위석식노지의 (장)방형주거지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공렬문	
	(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마연토기	
	말각(장)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공렬문, 구순각목문, 외반구연토기	
진주상촌리	위석식노지의 (장)방형주거지	각목돌대문, 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장방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공렬문, 이중구연마연토기, 외반구연토기	
진주귀곡동대촌	(장)방형주거지	공렬구순각목문	
	방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공렬문, 외반구연토기	
사천본촌리	(장)방형주거지	각목돌대문	

표 11.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122) 2003, 高旻廷, 전제서, P.8.

문, 공렬문등이 공반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산청사월리, 산청소남리, 진주대평리어은, 진주대평리옥방, 진주귀곡동대촌 등이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이며 위석식노지나 무시설식노지가 주로 설치되어 있다.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의 복합문토기가 많이 출토되며 공렬구순각목문, 공렬문 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남강유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복합문토기가 많이 확인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전기의 유적과 거의 동일하며 같은 유적 내에 영역을 달리하여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방형, 말각방형, (타)원형 등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대부분 주거지 내부에 타원형수혈이 설치되어 있다. 보통 타원형수혈이 설치된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관계없이 송국리식주거지로 통일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평면형태, 타원형수혈의 배치 등에 따라 어은식주거지, 휴암리식주거지, 검단리식주거지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출토유물은 공렬문토기, 외반구연토기, 이중구연마연토기 등이 있다.

② 남해안동부 및 낙동강하류유역권

낙동강의 대구 이남지역과 경상남도의 남해안지역을 포함한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 중 청도진라리, 청도송읍리 등 청도지역에서는 (세)장방형주거지와 함께

유적명	주거지의 특징	출토유물의 특징	비고
양산소토리	장방형주거지	공렬문토기	
	말각방형,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심발형토기	
청도진라리	(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 공렬문	
	(장)방형, (타)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구순각목문, 심발형토기	
청도송읍리	(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함안암각화고분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함안가마실	방형주거지,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구순각목문, 무문토기	
함안오곡리	(타)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무문토기, 석도	
부산노포동	장방형주거지	구순각목문, 석촉	
사천이금동	장방형주거지	공렬구순각목문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	심발형토기, 마연토기	

표 12. 남해안동부 및 낙동강하류유역권

123) 庄田愼矢, 2009, 전계서, PP.64~66.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의 복합문 토기가 확인된다. 영남지방에서 남강유역과 함께 복합문토기가 확인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노지는 무시설식노지가 주로 확인된다. 장방형주거지가 확인되는 양산소토리, 사천이금동 유적도 전기에 포함된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은 양산소토리, 청도진라리, 청도송읍리, 함안암각화고분, 함안가마실, 함안오곡리, 사천이금동 등이 해당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말각방형, 원형이며 타원형수혈이 설치되어 있다. 구순각목문이 확인되기도 하며 일단경축, 석도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고 있다.

③ 형산강 · 태화강유역권

한반도의 동남해안지역으로 울산, 경주, 포항 등이 이 지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

유적명	주거지의 특징	출토유물의 특징	비고
경주충효동	위석식노지의 방형주거지	각목돌대문, 삼각만입석축	
경주금장리	(장)방형주거지	각목돌대문	
	울산식주거지	구순각목문, 심발형토기	
경주황성동	(세)장방형주거지	퇴화단사선문	
경주월산리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경주사라리	(세)장방형주거지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	
포항대련리	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공렬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	
포항초곡리	장방형주거지	공렬구순각목문	
울산구영리	위석식노지의 방형주거지	이중구연토기	
울산서부리남천	(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울산봉계리	(세)장방형주거지	이중구연공렬문	
울산인포리	장방형주거지	공렬구순각목문	
울산대안리	울산식주거지	무문토기, 석축	
울산방기리	장방형주거지, 울산식주거지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공렬문	
울산천상리	(장)방형주거지, 울산식주거지	공렬문, 무문토기	
울산창평동	장방형주거지, 울산식주거지	공렬문, 공렬난알문	
울산검단리	장방형주거지, 울산식주거지	공렬문, 난알문	
양산신평	말각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검단리식토기	

표 13. 형산강 · 태화강유역권

은 최근 경주충효동, 울산구영동 등에서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방형의 주거지에서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조기의 양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으로는 경주황성동, 경주월산리, 경주사라리, 포항대련리, 울산서부리남천, 울산봉계리 등이 있다. 출토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 등이 확인되고 있다.

형산강·태화강유역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벽구와 배수구가 설치된 장방형주거지인 울산식주거지가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식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부에 등장하여 후기까지 사용되는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¹²⁴⁾ 공렬문과 함께 공렬난알문, 난알문이 확인되는 것과 동해안 일대에 주로 확인되는 동북형석도가 출토되는 것도 형산강·태화강유역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2)전개양상

영남지역은 각 지역별로 무문토기문화가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남강유역

남강유역에서 가장 이른 단계로 편년되는 것에는 상촌리D B-2호 주거지, B-10호 주거지, 옥방5지구 C-3호 주거지, D-1호 주거지, D-2호 주거지, D-9호 주거지 등이 있다. 평면형태 대형의 장방형주거지에 판석부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장방형이며 초석열, 단시설, 저장혈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미사리식주거지와 차이를 보인다. 판석부위석식노지는 평면 장방형과 타원형의 2개로 구분되는데 시기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출토토기는 각목돌대문 토기와 함께 빗살무늬토기가 공반되기도 하며 절상돌대문토기, 공렬문토기, 공렬구순각목문토기도 확인된다. 석기는 반월형석도, 편평편인석부, 지석 등이 확인된다.

무문토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주거지로는 어은2지구 2호 주거지, 사월리(동) 11호 주거지, 옥방1지구(진) 1호 주거지, 사월리(동) 6호 주거지, 사월리(부) 5호 주거지, 옥방2지구 20호 주거지, 사월리(동) 3호 주거지, 옥방1지구(진) 2호 주거지, 귀곡동대촌 2호 주거지, 귀곡동대촌 7호 주거지 등이 해당한다. 주거지는 평면형태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특징이며 토기는 공렬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의 복합문토기와 마연토기 등이 확인된다. 석기는 삼각만입

124) 李秀鴻, 2010, 「蔚山 靑銅器時代 文化의 性格」, 『靑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 蔚山文化財研究院 開院 10週年 紀念論文集, p.130.

축, 이단경식석축, 장주형·단주형·어형의 반월형석도, 유혈구식석검, 합인석부, 편평편인석부, 환상석부, 부리형석기, 지석 등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공렬문+구순각목문의 심발형토기와 어형·주형의 반월형석도, 합인석부, 편평편인석부, 주상편인석부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심발형토기의 크기가 서서히 작아지고 구연부 무늬가 사라지며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등 후기의 양상이 출현한다. 이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은2지구 13호 주거지, 옥방1지구(경) 9호 주거지, 옥방1지구(진) 3호 주거지, 어은2지구 49호 주거지, 어은2지구 32호 주거지, 옥방2지구 29호 주거지, 귀곡동대촌 6호 주거지, 옥방2지구 28호 주거지, 어은2지구 37호 주거지가 확인된다. 주거지형태는 평면형태 장방형 또는 방형에 중앙에 타원형 수혈이 설치된다.

다음 시기는 방형, 원형의 평면형태와 중앙에 타원형수혈이 설치된 주거지가 확인된다. 외반구연토기, 반월형석도, 유구석부가 출토되어 송국리유형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시기의 주거지로는 옥방1지구(진) 6호 주거지, 옥방2지구 22호 주거지, 옥방1지구(진) 14호 주거지, 사월리(부) 4호 주거지, 귀곡동대촌 11호 주거지가 포함된다.

② 남해안동부 및 낙동강하류유역권

동남해안지역에서는 조기로 판단될만한 돌대문토기나 미사리식주거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되는 유적으로는 청도 송읍리 유적으로 장방형과 세장방형 주거지가 확인되며 토기로는 이중구연단사선문에 구순각목문이 결합된 혼암리식토기가 확인되었다. 석기로는 삼각만입촉과 주형석도가 확인되었다. 다음 시기로 판단되는 유적은 청도 진라리유적으로 세장방형 주거지에 위석식노지를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토기로는 퇴화단사선문을 중심으로 한 혼암리식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 시기로 소형 장방형주거지에 역삼동식토기 등이 확인되는 이금동유적으로 앞의 두 유적에 비해 다소 늦은 단계로 전기 말로 판단되며 이금동유적의 역삼동 문화까지가 무문토기시대 전기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후기는 방형, 말각형의 송국리식주거지가 확인되며 방형이 말각형보다 선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로는 심발형, 호형의 토기와 일단경축, 일단병식석검 등이 확인된다. 유적으로는 진라리유적, 소토리유적 등이 있다.

③ 형산강·태화강유역권

경주충효동에서는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방형주거지에서 각목돌대문토기가 확인되었고, 경주 금장리 8호 주거지에 돌대문토기가 확인되어 이 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또한 울산구영의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방형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주거지도 비교적 이른 시기로 보인다.

울산 서부리 남천유적에서는 장방형주거지에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구순각목문, 이중구연거치문토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전기의 시작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그 다음은 울산 봉계리유적에서 세장방형주거지가 등장하는데 이중구연구렬문 등이 확인되었고 경주황성동유적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등 복합문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전기 후반부가 되면 벽구와 배수구가 설치되는 울산식주거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공렬문토기와 삼각만입석축, 이단병식석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송국리문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형산강·태화강유역은 후기에 울산식주거지가 성행한다. 공렬문, 단사선문, 횡선문토기, 파수부심발형토기, 적색마연형토기와 석창, 동북형석도의 유물갖춤새를 갖는 울산식주거지문화는 검단리유형¹²⁵⁾으로 설정된 바 있는데 형산강·태화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특징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2. 각 문화요소의 연관성 검토

1) 복합문토기문화의 연관성검토

복합문토기는 역삼동식토기와 가락동식토기가 결합된 양상으로 소위 혼암리식토기로도 불리는데 공렬문요소와 이중구연단사문요소가 한 토기에 같이 시문된다. 결합양상으로는 이중구연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이중구연구렬구순각목문, 단사선공렬구순각목문, 단사선공렬문 등이 있다. 복합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주로 평면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와 주혈, 저장구덩이가 설치되는데 간혹 위석식노지가 설치되기도 한다. 적색마연토기, 삼각만입석축, 이단병식석축, 일단경식석축, 이단병식석검, 반월형석도, 합인석부, 편평편인석부, 환상석부, 주상편인석부 등이 복합문토기와 공반된다.¹²⁶⁾

대부분 유적에서는 복합문토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지만 상모리유적은 조양동유적, 관산리유적 등과 함께 한반도 내에서도 복합문이 매우 성행했던 몇 안 되는 유적이다. 상모리유적의 복합문토기 중에는 외지산태토로 제작된 토기편이 발견되는데 남부지방의 복합문토기 집단 중 일부가 제주도로 이주한 흔적으로 판단된다.

남부지방에는 남강유역에서 복합문토기가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경주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복합문토기의 출토량이 증가하고 있다. 호남지역에

125) 裴眞晟, 2005, 「檢丹里類型的 成立」, 『韓國上古史學報』, 第48號, p.5.

126) 高旻廷, 2003, 전제서, p.69.



도면 36. 남부지방 복합문토기 출토 유적분포도

서는 전주장동, 남원고죽동, 보성옥평리, 여수월내동 등에서 복합문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출토량이 많지 않아 복합문토기문화가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은 이종구연단사선문토기가 성행했던 지역으로 대전·청주 등 충청내륙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복합문토기가 중심이 되는 혼암리유형이 한강유역이나 원산만지역과 같은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는 기존의 학설은 김장석에 의해 부정되었고 많은 연구자가 그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혼암리유형은 가락동유형의 남하과정 중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인데 혼암리유형 유적 간의 편차가 심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¹²⁷⁾ 같은 복합문이라

127) 金壯錫, 2001, 전계서, PP.56~62.

할지라도 유적에 따라 복합문의 세부문양요소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나의 문화에서 파생되었다면 세부문양요소도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별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유적의 이질적인 양상 중 하나가 제주도의 복합문토기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양 지역의 연관성을 쉽게 밝혀 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 중 그런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상모리의 공렬문은 밖에서 안으로 관통 내지 반관통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부지방에서는 밖에서 안으로의 투공방향을 갖는 공렬문이 주류인 곳은 거의 없다. 천선행은 호남지역의 공렬문토기가 밖에서 안으로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지만¹²⁸⁾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적어도 복합문토기에서의 공렬문은 모두 안에서 밖으로 관통 내지 반관통 되어 있었다.

현재까지 발굴성과로 봤을 때 제주도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각각 전파되어 결합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앞에서도 밝혔지만 상모리에서 외지산태토의 복합문토기가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복합문토기는 남부지방으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공렬문 투공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남부지방으로부터 온 이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투공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남부지방에서는 밖에서 안으로의 투공방향이 비주류였다면 제주도로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주류로 변화한 것이다. 육지와 일정거리 떨어진 섬이었기에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단절성으로 인하여 투공방향의 변화가 쉽게 자리 잡았을지도 모른다.

양 지역 복합문토기문화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렬문의 투공방향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양요소로 이중구연단사선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모리의 이중구연은 전형적인 이중구연이 아니라 구연부의 점토관 접합부를 이용해 이중구연의 효과만 내는 퇴화이중구연이다. 이중구연의 폭은 1~8cm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3~6cm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단사선의 길이는 1~2cm로 짧은 편이며 이중구연의 접합부에 걸쳐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호남지역의 이중구연단사선문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전주장동의 복합문토기는 5.3cm로 제주도와 유사한 이중구연폭을 가지고 있지만 단사선이 이중구연부에 시문되어 있어 양 지역의 이중구연은 계보가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퇴화된 형식일 가능성이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남원고죽동1호와 여수월내동상촌지석묘Ⅱ-1호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복합문토기의 이중구연은 6.5cm이상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 남원고죽동1호에서는 복합문토기와 단사선문만 시문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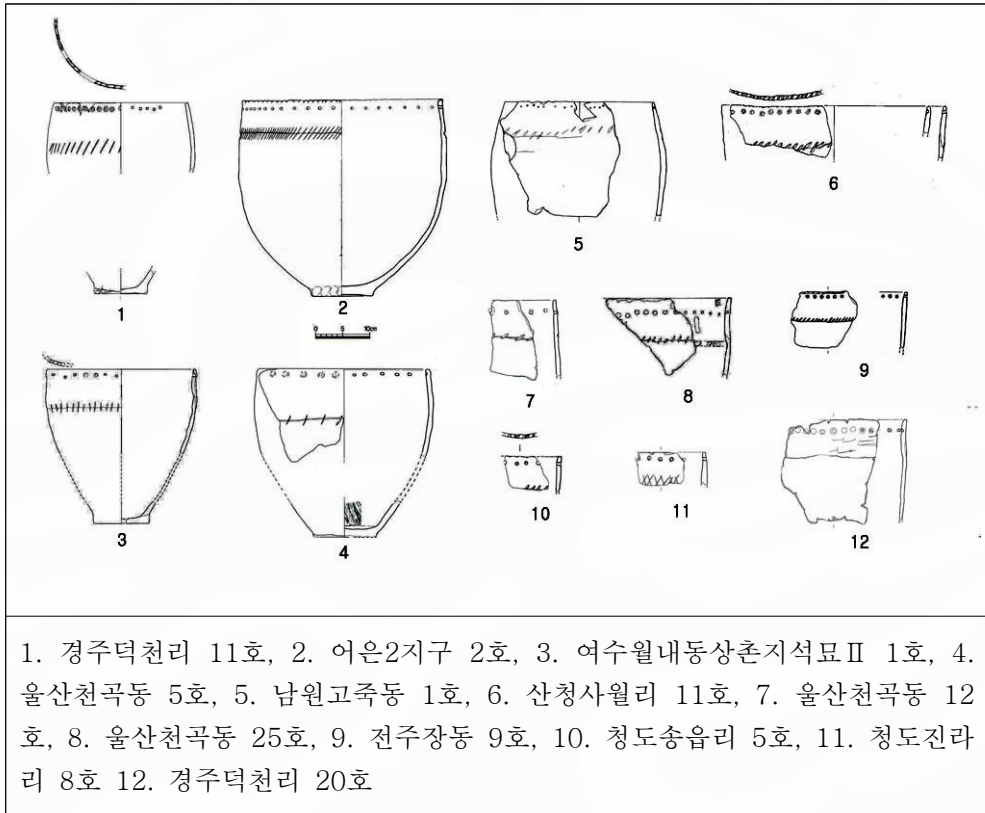
128) 千羨幸, 2008, 「西日本の孔列土器」, 『日本考古學』, 第25号, 日本考古学協会, PP.15~18

유적명	문양 형식	이중 구연폭	단사선 길이	단사선 시문위치	공렬투 공방향	관통 여부
전주장동 I-9호	CDE	5.3	1.0	a	안→밖	관통
남원고죽동 1호	CDE	6.5	1.9	b	안→밖	관통 반관통
	BDE				안→밖	관통
여수월내동상촌지석묘Ⅱ-1호	CDE	7.0	2.0	b	안→밖	반관통
보성옥평리 1호	CD	5.6	1.6	b	안→밖	관통
산청사월리 3호	BDE				안→밖	관통
	BDE		1.0		안→밖	관통
산청사월리 11호	CDE	8.0	2.5	b	안→밖	관통 반관통
대평리어은2지구 2호	CDE	5.8	2.6	b	안→밖	관통
대평리옥방4지구 1호	BD				안→밖	반관통
대평리옥방4지구 10호	CD	5.3	3.0	b	안→밖	반관통
청동송읍리 5호	CDE	6.0		b	밖→안	관통
청도진라리 8호	CD	4.0		b	안→밖	관통
울산천곡 나4-1호	BDE				안→밖	반관통
울산천곡 나16호	CDE	7.2	2.2	b	안→밖	반관통
울산천곡동 5호	CD	9.1	2.0	b	안→밖	반관통
울산천곡동 12호	CDE	7.0	2.0	b	안→밖	반관통
	CD	7.4	2.3	b	안→밖	반관통
울산천곡동 19호	CD	3.2	1.4	b	안→밖	반관통
	CDE	6.5	1.2	b	안→밖	반관통
울산천곡동 25호	CD	7.5	1.2	b	안→밖	반관통
경주덕천리 11호	BDE		3.0		안→밖	반관통
경주덕천리 12호	BDE		2.8		안→밖	반관통
경주덕천리 20호	C(?)DE	7.3			안→밖	반관통

표 14. 남부지방 복합문토기 속성표(단사선시문위치 : a. 이중구연내부, b.동체와 경계에 걸침)

토기편이 다수 공반되는데 이러한 양상들은 제주도와는 다소 이질적이다. 그나마 보성옥평리1호주거지의 복합문토기 이중구연폭이 5.6cm로 확인되고 단사선도 짧고 굵으며 이중구연접합부에 걸쳐져 있어 제주도의 것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호남지역은 복합문토기의 표본수가 적고 공반유물에서도 뚜렷한 유사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제주도와 연관성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복합문토기의 출토량이 증가하고 있는 형산강·태화강유역의 복합문토기는 대체적으로 7cm 이상의 폭이 넓은 이중구연이 특징이다. 공반되는 토기 중 이중구연이 사라지고 단사선문만 시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구연과 단사선이 함



도면 37. 남부지방 복합문토기

계 시문되는 경우가 많은 제주도와는 이질적이다. 또한 공렬문에 있어 관통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데 공렬문을 시문함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형식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형산강·태화강유역은 검단리유형이 형성된 지역으로 타 지역과는 다소 이질적이고 독특한 문화요소를 보이고 있어 제주도와는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밀양강유역의 청도송읍리 5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복합문토기는 구순각목문이 새겨진 호형토기와 삼각만입석촉이 공반되고 있는데 상모리의 양상과 유사하다. 상모리의 복합문토기가 확인되는 층위에서는 구순각목문이 새겨진 호형토기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삼각만입석촉이 지표수습되기는 하였지만 편평한 단면과 4cm가량의 비교적 짧은 길이는 청도송읍리 5호 주거지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공렬문이 밖에서 안으로의 방향성을 보인다는 것도 제주도와는 친밀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몇 요소의 유사성으로 제주도의 복합문토기문화가 청도에서 왔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단지 가능성만 열어 두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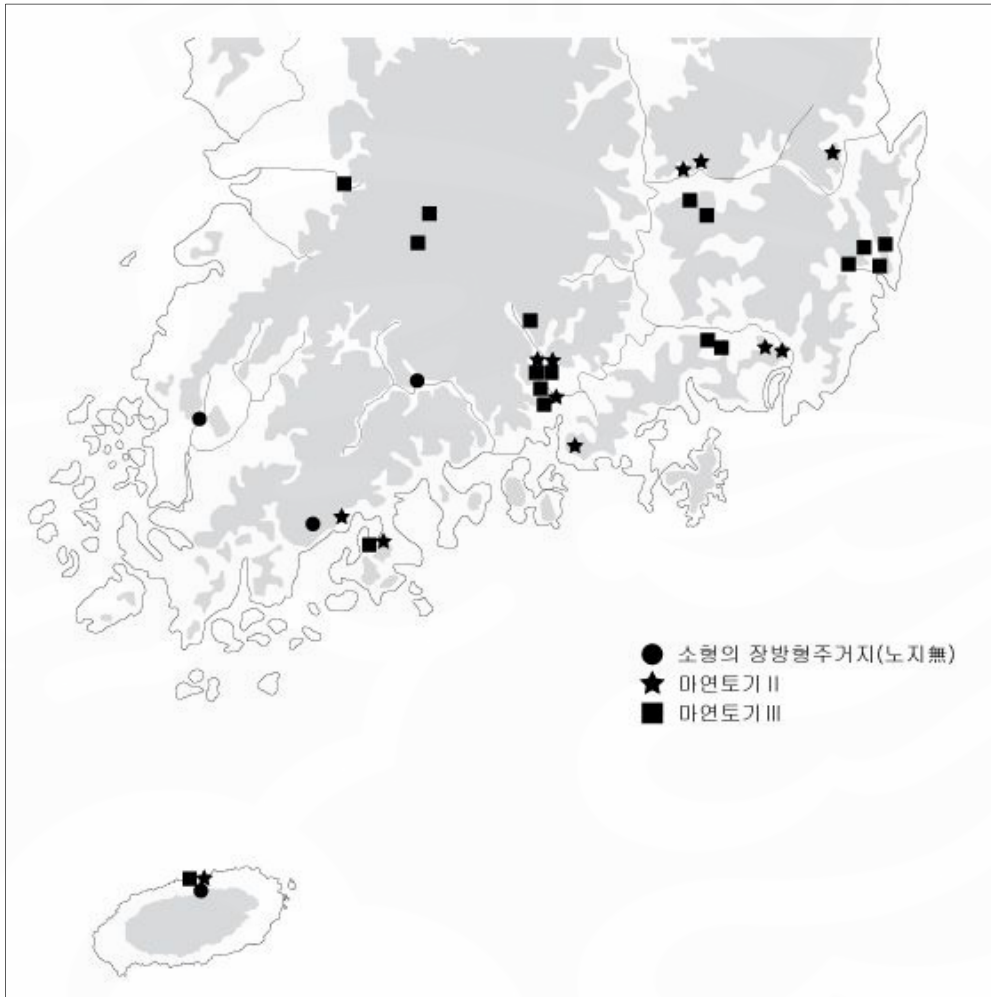
남강유역은 남부지방에서 복합문토기가 가장 성행했던 지역 중 하나이다. 이미 몇몇 연구자들은 상모리의 이주민들이 남강유역에서부터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산청사월리 11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마연토기와 3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삼각만입석촉이 상모리의 것과 유사하고 어은 2지구 2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단면 반원형의 방추차도 상모리와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반유물의 유사성면에서 본다면 남강유역이 가장 제주도와 친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복합문토기문화는 호남지역과 형산강·태화강유역의 동남해안지역보다 남강유역과의 연관성이 강해보이며 밀양강유역도 청도송읍리 5호주거지와 같은 출토양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지역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어느 지역으로부터 복합문토기문화가 이주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남강유역과 밀양강유역의 몇몇 요소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이질성도 갖고 있으며 복합문토기의 상호유사성을 비교하기에 아직 토기의 표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 제주도의 복합문토기는 남강유역이나 밀양강유역으로 부터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예측해 보는 선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좀 더 확실한 결론은 추후 연구로 미루도록 하겠다.

2) 단순문토기문화의 연관성 검토

단순문토기문화기에는 토기문양이 공렬문, 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으로 단순화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청동기시대 전기 말엽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비슷하게 발생한다. 이 시기에는 주거지가 소형화되고 함인석부의 비중이 줄어들고 편인석부가 증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토기문양의 단순화와 소형주거지의 등장은 어느 지역으로 부터의 영향인 것일까. 이 문제는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연관 짓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삼양동에서는 Ⅱ식과 Ⅲ식의 마연토기가 함께 확인되고 있어 남해안지역의 마연토기 출토지역과 비교 가능하다. Ⅱ식의 마연토기는 남강유역, 낙동강하류, 낙동강상류, 남해안 서부지역 등에서 확인되며 Ⅲ식의 마연토기는 남강유역, 낙동강하류, 태화강유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낙동강 상류, 남해안서부지역, 영산강유역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Ⅱ식과 Ⅲ식의 마연토기가 동시에 확인되는 지역은 남강유역과 낙동강하류지역인데 이 지역은 공렬문이나 구순각목문요소가 많이 확인되는 지역으로 제주도 Ⅱ기의 양상과 비슷하다. 특히 마연토기의 출토량이 집중되는 남강유역은 I기에 이어 제주도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면 38. 단순문토기단계 문화요소의 분포

삼화지구에서 확인되는 내부시설이 없는 소형의 (장)방형주거지는 남한지방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삼화지구처럼 어느 정도 규모의 취락이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호남지역의 구례봉북리, 보성옥평리, 함평신흥동 등에서 드물게 확인되고 있고 청도송읍리와 진라리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으나 주류의 주거지 양식은 아닌 듯하다. 이러한 경우는 한 유적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고 있을 뿐 어느 정도 규모의 취락을 이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삼화지구의 (장)방형주거지는 남한지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발달한 독특한 문화일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단순문토기도 I기의 복합문토기에서 자연스럽게

게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전에 없던 남한지방의 마연토기나 마제석검 등이 제주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양 지역이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양요소의 퇴화로 단순문토기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당시 시대적인 변화와 맞물려 발생했던 자체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3) 송국리식주거지의 연관성검토¹²⁹⁾

송국리식주거지는 앞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II기의 장방형주거지가 성행했던 시기에 등장하는데 III기에는 장방형주거지가 사라지면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송국리식주거지에서의 출토유물 양상은 뚜렷하지 않다. 토기도 대부분 편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기형을 알 수 없고 석기류도 일부 지표수습되었을 뿐 출토위치가 정확한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시기는 주거지의 형태로 남해안 지역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주거지 내부에 타원형수혈이 설치되는 송국리식주거지는 비교적 넓은 분포지역을 갖고 있지만 경기지역, 강원지역과 동해안지역은 발견 사례가 많지 않다. 남해안지역의 송국리식주거지 분포를 살펴보면 만경강유역, 영산강유역, 남해안서부지역, 남강유역, 남해안동부 및 낙동강하류유역에서만 확인되고 형산강·태화강유역에서는 발굴 사례가 거의 없다.

앞에서도 이미 확인하였지만 제주도의 송국리식주거지는 평면 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타원형수혈의 형태는 타원형수혈 내부에 양단주혈이 배치되는 경우와 타원형수혈의 양 끝에 걸쳐있거나 타원형수혈의 외부에 배치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청동기시대로 편년되는 주거지는 대부분 타원형수혈 내부에 주혈이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개의 주공이 타원형수혈 주변에 배치되는 형태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형식분류에 따르면 원A형이 제주도 송국리식주거지의 대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송국리식주거지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만경강유역에서는 원A형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방A형도 20%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비교적 고른 형식이 확인되는데 원형과 방형의 비율은 7:3 정도이고 타원형수혈의 형식은 A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영산강유역도 만경강유역과 비슷한 양상으로 원A형이 50%를 넘어 가장 많이 확인되기는 하나 방A형이 증가하여 37%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방형의 비율도 만경강유역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타원형수혈의 형식은 만경강유역 보다 A형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

탐진강유역은 방A형이 57%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원A형

129) 각 지역의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에 대한 분석은 이정진의 연구를 수정 후 인용하였다. (이정진, 2012, 전거서, pp.61~77.)

형식 평면	A형	B형	C형	기타	합계
원형	106 (50.7%)	23 (11.0%)	24 (11.5%)	1 (0.5%)	154 (73.7%)
방형	45 (21.5%)	9 (4.3%)	0	1 (0.5%)	55 (26.3%)
합계	151 (72.2%)	32 (15.3%)	24 (11.5%)	2 (1.0%)	209 (100%)

표 15. 만경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형식 평면	A형	B형	C형	기타	합계
원형	122 (50.9%)	5 (2.1%)	5 (2.0%)	1 (0.4%)	133 (55.4%)
방형	89 (37.1%)	6 (2.5%)	11 (4.6%)	1 (0.4%)	107 (44.6%)
합계	211 (88.0%)	11 (4.6%)	16 (6.6%)	2 (0.8%)	240 (100%)

표 16.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형식 평면	A형	B형	C형	기타	합계
원형	31 (31.9%)	5 (5.2%)	0	3 (3.1%)	39 (40.2%)
방형	56 (57.8%)	2 (2.0%)	0	0	58 (59.8%)
합계	87 (89.7%)	7 (7.2%)	0	3 (3.1%)	97 (100%)

표 17. 탐진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은 약 32%로 만경강과 영산강유역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타원형수혈의 형식에서는 A형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섬진강유역에서는 방형의 비율이 더 높아져 78% 가까이 차지하는데 타원형수혈형식에서도 B형이 근소하게 A형보다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방B형이 주로 확인되는 남강유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남강유역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방B형이 약 71%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전

형식 평면	A형	B형	C형	기타	합계
원형	15 (10.0%)	9 (5.9%)	1 (0.6%)	9 (5.9%)	34 (22.4%)
방형	36 (23.9%)	45 (29.9%)	15 (9.9%)	21 (13.9%)	117 (77.6%)
합계	51 (33.9%)	54 (35.8%)	16 (10.5%)	30 (19.8%)	151 (100%)

표 18. 섬진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형식 평면	A형	B형	C형	기타	합계
원형	1 (0.5%)	12 (5.8%)	5 (2.4%)	0	18 (8.7%)
방형	8 (3.9%)	148 (71.5%)	22 (10.5%)	11 (45%)	189 (91.3%)
합계	9 (4.3%)	160 (77.3%)	27 (13%)	11 (4.5%)	207 (100%)

표 19.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형식 평면	A형	B형	C형	기타	합계
원형	0	58 (59.1%)	7 (7.2%)	4 (4.1%)	69 (70.4%)
방형	1 (1.0%)	26 (26.6%)	2 (2.0%)	0	29 (29.6%)
합계	1 (1.0%)	84 (85.7%)	9 (9.2%)	4 (4.1%)	98 (100%)

표 20. 남해안동부 및 낙동강하류지역 송국리식주거지 형식별 분포

체적인 양상을 보면 방형이 90%는 넘어 남강유역은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를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타원형수혈의 형식은 A형은 거의 보이지 않고 C형이 간간히 확인되는 가운데 B형이 주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해안동부 및 낙동강하류 지역도 남강유역과 마찬가지로 타원형수혈 B형이 압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도면 39. 송국리식주거지의 형식별 분포도(김승옥, 2006a, 수정 후 인용)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 주로 확인되는 원A형(<도면 39>의 AII)의 송국리식주거지는 만경강유역이나 영산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들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중 만경강유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직접 제주도와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 영산

강유역은 한반도의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와 거리가 가까워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만경강유역에서 성행했던 원A형의 송국리식주거지는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확산되는데 한반도의 끝에서 멈추지 않고 해로를 통해 제주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청동기시대의 제주도는 한반도와 거리를 두고 있는 독립된 섬이지만 한반도의 무문토기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한 근거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유물갖춤새에서 유사성을 나타냄으로서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화산섬으로서의 척박한 환경과 내륙과 달리 타 지역과의 이동이 쉽지 않았다는 점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주거지의 규모가 남한지방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水稻作을 중심으로 한 송국리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못한 점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지방과 제주도와의 相似性和 相異性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했으나 필자가 기대했던 것만큼 뚜렷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며 차후 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제주도의 무문토기문화는 상모리유적의 복합문토기문화에서 시작된다. 상모리에서 확인되고 있는 외지산태토의 토기들은 제주도의 복합문토기문화가 남한지방에서 유입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기원지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였다. 다만 복합문토기 문양속성의 세부적인 형태와 공반유물의 조합을 통해 남강유역이나 청도지역과의 연관성을 상정해 보았다. 이러한 복합문토기문화는 늦어도 B.C.10~9세기에는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필자는 이 단계의 역연대를 B.C.10~8세기로 설정하였다. 제주도의 복합문토기문화에서는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아 취락구조 및 생활방식 등을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남한지방의 복합문토기문화는 대체로 중·대형의 (세)장방형주거지가 확인되며 구릉에 취락이 위치하는데 상모리유적은 해안가에 위치하며 주거지의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제주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남한지방과는 조금은 다른 생활방식을 선택했을 지도 모르겠다.

복합문토기문화는 토기의 문양요소가 간소화 되면서 단순문토기문화로 변화하게 된다. 문양요소의 단순화는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보편적인 현상으로 제주도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지방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모리에 집중되던 무문토기문화가 제주도 전 지역으로 퍼지면서 자체적으로 문양 단순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자 한다. 복합문토기가 퇴화된 후 B.C.8~7세기에 걸쳐 성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순문토기문화 시기에는 새로운 요소들이 발생하는데 우선 소형의 (장)방형

주거지가 성행한 점을 들 수 있다. 남한지방에서는 주거지의 소형화가 한 주거지 내의 거주인구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제주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석부류가 함인석부 중심에서 편인석부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도 생활양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와 외반구연토기가 유입되는데 크게 성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는 (장)방형주거지가 쇠퇴하면서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는 형태적인 특징을 봤을 때 만경강유역이나 영산강유역으로 부터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산강유역은 송국리문화가 전파된 지역으로 유력해 보인다. 송국리식주거지가 성행하던 시기는 토기구연부에 문양요소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 단순문토기문화 시기까지 잔존하던 호형토기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문토기문화의 끝자락인 B.C.7세기에 시작하여 원형점토대토기가 제주도에 등장하던 B.C.4세기 까지를 청동기시대의 무문양토기가 성행하던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비록 完形으로 출토된 사례가 드물어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외반구연토기와 심발형토기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편인석부류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의 유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송국리문화가 척박한 제주 환경에서 크게 발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약)보고서,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자료집

- 江陵大學校博物館, 1996, 『江陵 坊內里 住居址』.
- 江陵大學校博物館, 2000, 『束草 朝陽洞 住居址』.
- 江陵大學校博物館, 2002, 『襄陽 浦月里 住居址』.
- 강창화·김경주, 2003, 『濟州 龍潭洞 月星路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大邱-釜山間 高速道路 建設區間(제4·5工區)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 淸道 松邑里·榆湖里·內湖里 遺蹟 -』.
- 公州大學校博物館, 1998, 『白石洞遺蹟』.
- 國立濟州博物館, 200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國立濟州博物館, 2007, 『濟州稅務署 職員舍宅 敷地 內 文化遺蹟 發掘調查 報告書』.
-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 I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1, 『晉州 大坪里 漁隱2地區 先史遺蹟』.
- 東北亞支石墓研究所, 2011, 『寶城 玉坪里遺蹟』.
- 東北亞支石墓研究所, 2012, 『麗水 月內洞 上村支石墓 II』.
- 東義大學校博物館, 1999 『山淸沙月里遺蹟』.
- 선문대학교, 2001,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선사유적』.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5, 『淸道 陳羅里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경주 덕천리유적 I』.
-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6, 『蔚山 泉谷洞遺蹟II』.
- 濟州大學校博物館, 1985, 『郭支貝塚』.
- 濟州大學校博物館, 1988, 『北村里遺蹟』.
- 濟州大學校博物館, 1989, 『龍潭洞 古墳』.
- 濟州大學校博物館, 1990, 『上墓里遺跡』.
-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三陽洞遺蹟』.
-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研究所, 1997. 『南原 高竹洞 遺蹟』.
-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全州 長洞遺蹟II』.
- 제주문화예술훈재단, 2006, 『제주 하모리유적』.
- 제주문화예술훈재단, 2006, 『濟州 東明里 遺蹟』.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강정동 유적』.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화지구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광지리 1808-5번지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 유적(2136-9번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도련동 유적(614-1번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제주 고산리 유적』.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華城 盤松里 靑銅器時代 聚落』.

湖南文化財研究員, 2010, 『濟州 三和 나地域 遺蹟』.

2. 단행본 및 도록

국립김해박물관, 2005, 『전환기의 선사토기』.

국립제주박물관, 2001, 『濟州의 歷史와 文化』.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정밀토양도-제주도』.

裴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孫峻鎬, 2006, 「靑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2』, 서경문화사.

庄田愼矢, 2009, 「南韓 靑銅器時代 生産活動과 社會」, 학연문화사.

3. 논문

姜仁旭, 2007, 「두만강 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동북한 토기의 편년 및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第62輯.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고민정, 2009,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와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한국청동기학회.

孔敏奎, 2003, 『무문토기문화 가락동유형의 성립과 전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慶柱, 2010,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靑銅器學報』 6號.

김경주, 2012, 「고산리취락의 성격과 편년」, 『제주고산리유적(1874-16번지)』.

金權中, 2010, 『청동기시대 중부지방의 시·공간적 정체성-주거지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2010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문.

金奎正, 2011, 「湖南地域 靑銅器時代 前期文化의 特徵」, 『韓國靑銅器學報』 9號, 한국청동기학회.

김미영, 2010, 「적색마연토기의 변천과 분포에 대한 연구-원저호를 중심으로

- 」, 『경남연구』 제2집,
-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二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慶尙大學校碩士學位論文.
- 金炳燮, 2009, 「남한지역 조·전기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韓國靑銅器學報』, 4號,
- 김승옥, 2006,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湖南考古學報』 24輯.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 第60輯.
- 金壯錫, 2001, 「흔암리 유형 재고 : 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 28號.
-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韓國考古學報』 第69輯.
- 김장석, 2010, <청동기시대 중부지방의 시·공간적 정체성>에 대한 토론문, 2010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 金正基, 1968, 「韓國堅穴住居址考(一)」, 『考古學』 1.
- 金智賢, 2008, 『中西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의 炊事用土器 研究-驛三洞·欣岩里類型 鉢形土器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 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 5-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 김현식, 2008b,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의 文化史的 意味」, 『考古廣場』 2, 釜山考古學研究會.
- 羅建柱, 2006, 「前·中期 無文土器 文化의 變遷過程에 대한 考察-牙山灣·錦江流域의 資料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碩士學位論文.
- 文基善, 1973, 「濟州道 無文土器 文化研究」, 『濟州大學校 論文集』 5.
- 박근태, 2011, 「제주도 영선동식토기 연구」 『濟州道研究』 35집
- 박상운, 2011,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전기 호형토기의 변화양상」, 『韓國靑銅器學報』 9號.
- 朴淳發,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湖西考古學』 創刊號.
- 朴榮九, 2008, 「嶺東地域 無文土器文化의 展開樣相」, 『江原考古學報』, 第11號.
- 裴眞晟, 2003, 「무문토기의 성립과 계통」, 『嶺南考古學』 32.
- 裴眞晟, 2005, 「檢丹里類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 第48號.
- 배진성, 2009, 「압록강~청천강유역 무문토기 편년과 남한」, 『韓國上古史學報』, 第64號.
- 白弘基, 2000, 「編年 및 周邊地域과의 關係」, 『束草 朝陽洞 住居址』.
- 宋滿營, 1995, 『中期無文土器時代의 編年과 性格』,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宋永鎮, 2003, 『赤色磨研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11.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輯
-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 安在皓, 2011, 「屬性配列法에 따른 東南海岸圈 無文土器 文樣의 編年」 『韓國上古史學報』, 第73號.
- 安在皓・千羨幸, 2004, 「前期無文土器의 文樣編年と地域性」,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 李白圭, 1974,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器:土器編年을 中心으로」, 『考古學』 3輯.
- 李白圭, 1979, 「濟州道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濟州道の 考古學的 調査研究 I」, 『考古學』 56合輯.
- 李秀鴻, 2010, 「蔚山 青銅器時代 文化의 性格」, 『青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 蔚山文化財研究院 開院 10週年 紀念論文集
- 이정진, 2012, 『송국리형 주거지의 확산과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創刊號.
- 李清圭, 1995, 『濟州道 考古學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亨源, 1998, 「口脣刻目土器의 變遷과 性格에 대하여-無文土器를 中心으로」, 『百濟研究』 第28輯, 忠南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研究』, 忠南大學校碩士學位論文.
- 李亨源, 2007,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의 構造와 性格』, 「華城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8지점 발굴조사보고서-」
- 李弘鐘, 1988, 「日本 初期水田農耕期の 덧띠새김무늬토기-한반도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史叢』 33
- 李花英, 2008, 『青銅器時代 赤色磨研壺의 變遷』, 全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弘鐘, 2005, 「松菊里文化의 文化接觸과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 第48號.
- 林炳泰, 1969, 「漢江流域 無文土器의 編年」, 『李弘植博士回甲記念論文集』.
- 趙由典, 1994, 「청동기시대의 孔列土器」, 『東아시아의 青銅器文化-遺物을 통하여 본 社會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 第57輯.
- 千羨幸, 2007, 「無文土器時代 早期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青銅器學報』 1號.
- 千羨幸, 2008, 「西日本の孔列土器」, 『日本考古學』, 第25号, 日本考古学協会.
- 千羨幸, 2009, 「무문토기시대 한일 간 지역관계변천」, 『古文化』, 第73輯,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型式分流와 編年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홍박음, 2010a, 「湖南地域 青銅器時代 前期 文化의 展開過程」,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홍박음, 2010b,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湖南考古學報』 36輯.
- 黃炫眞, 2004, 「嶺南地域의 無文土器時代 地域性研究-東南海岸 無文土器文化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大貫静夫, 1996, 「欣岩里類型土器の系譜論をめぐって」 『東北アジアの考古學 第二 〔槿域〕』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編, 깊은샘)
-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の弥生土器」, 『弥生文化の研究3 弥生土器1』.
- 岡田憲一・千羨幸, 2006, 「二重口縁土器と孔列土器-山陰地方の縄文晩期土器と韓半島の無文土器-」, 『古文化談叢』, 第55集, 九州古文化研究會.

M.A. Thesis

A Study on Mumun Pottery Culture in Jeju Island

Gyeong-Min Park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eong-Gyu Lee)

Abstract

Although Jeju Island is an independent island from Korean peninsula with a certain distance, they share the similar cultural characteristics since the prehistoric time. During the Bronze age, the subject of this thesis, as well the same cultural distribution was established. However, a level of discrepancy also existed due to the sole transportation measure through sea route and the unique environment of volcanic island. In summary, Jeju Island and Korean peninsula shared the similarity and discrepancy in their culture.

The culture of Jeju Island mumun pottery is to date relatively uncertain

in comparison with other regions. However, the recent findings such as the Bronze age village in Samyangdong including Samhwa area and Songgukli culture in Gosanli started to shed new light on the mumun pottery of Jeju Island. The study on South Korean mumun pottery has been flourishing with active excavation since 2000 and become a foundation for reevaluating the culture of mumun pottery in Jeju Island.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take a new look to the mumun pottery of Jeju Island on the basis of the accumulated data.

The considerable data consists of living sites and artifacts composed of pottery and stoneware. But stoneware is used only for supporting data as it shows indistinctive presence. pottery is classified as Balhyung, Hohyung and Mayun pottery and flared Guyun pottery is reviewed with Hohyung pottery. Balbyung pottery has three types of different period. Hohyung pottery appeared during the early stage and was replaced by flared Gugyun pottery of Songgukli. It also has three types; type II and III came after type I. The patterns confirmed on Balhyung pottery exhibit integrated pattern elements which are gradually simplified and eventually disappear. The living sites consists of rectangular and circular sites. Rectangular sites are very small and show no sign of facilities. Circular sites is Songgukli type site which has an oval pit in the middle of interior. The rectangular sites appear to be replaced by the circular ones.

The sites confirmed in Jeju Island are distributed along the coast line due to the clear water coming up on the lowland of coast and fertile soil. Among the 13 sites with mumun pottery, a few show relatively clear display including Sangmori site, Samhwa area and Gosanli site. Sangmori site shows mixed pattern culture while small rectangular sites with simple pattern pottery are found in Samhwa area. Gosanli sites only show the circular sites of Songgukli type and the pottery of the site shows no pattern and consists of flared Guyun pottery.

The mumun pottery of Jeju Island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in terms of artifacts found in the sites. Phase I is the period of mixed pattern pottery concentrated on Sangmori site. Various pattern elements are found in the mixed pattern pottery and Hohyung pottery is also found. Mayun pottery of type I and a variety of stoneware with a large number of Hapin axes are found. Phase II is the period of simple pattern

pottery concentrated on Samhwa area and shows less Hohyung pottery and newly appearing flared Guyun pottery. Mayun pottery of types II and III are found and Pyunin axes have replaced Hapin axes. The small rectangular sites are prevalent and the circular ones also appear in phase II. Phase III mainly shows the pottery with no pattern. Hohyung pottery is rarely found and flared Guyun pottery seems prevalent. The majority of stoneware is Pyunin axe while Ildangyungsik spears are also found. The rectangular site has disappeared and the circular one of Songgukli type seems widely used.

Jeju Island's mumun pottery culture that consists of three phases seem to have received substantial influence from South Korean region. Although a definite attribution of particular region is difficult, estimation is possible based on the accumulated data to date. The mixed pattern pottery of phase I is found in almost all areas of South Korean region, however, based on the various circumstances the one of Namgang seems the most probable to reach Jeju Island. The small sites and simple pattern of pottery are found all around the country. Jeju Island may also have had its own shift as opposed to the influence from other region. Although Mayun pottery and Idanbyungsik sword confirm the exchange the pattern was simplified as the mumun pottery culture of Sangmori site was spread to the other areas of Jeju Island. The sites of Songgukli culture of phase III shows the most relevance with Songgukli culture of Youngsan river area based on their similarity and approximation. Although similar sites of Songgukli type are also prevalent in Mankyung river area, it is more distant to cast a significant influence on Jeju Island. Therefore, it is more likely to consider it as the influence of Youngsan river area.

In summary, the culture in Jeju Island seems to have three shifts and each had influence from other regions.